

“소극적인성도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책이다.”
메릴 오스틴 목사. Bella Vista Community Church. Bella Vista, Arkansas



뒷문을 “다시●열라”

케넷호크 / 서병채
김상복목사 추천

뒷문을 다시 열라

케넷호크 / 서병채
김상복목사 추천

추 / 천 / 사

우선 소극적 성도(inactive member)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이 책, [뒷문을 다시 열라!]가 나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30-35%의 소극적인 성도 문제에 대해 고민 안 해 본 분이 없을 것이다. “왜, 그 성도는 그럴까!” “왜 우리교회는 아직도 두 명이 들어오면 한명 나가거나 (2-1),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거나 (1-1), 최악의 경우 한 명이 들어오는데 두 명이 나가는 이런 문제(1-2)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특히 이 책은 ‘소극적 성도’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1) 예배출석이 부진한 성도, (2) 헌금을 잘 안하는 성도, (3) 교회활동에 잘 참석 안하는 성도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십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의견들이 모아서 내린 결론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훈련생 교재(Participant's Manual)와 지도자 지침서(Leader's Manual)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완전한 훈련자료로 개 교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자료는 미국의 목회자이며 심리학자인 케넷 호크 목사님이 개발하여 많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다. 금번 평신도목회 PACE 전문대학원의 서병채교수께서 번역하여 내놓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평신도목회 연구에 계속 헌신하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연구, 적용,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10월 1일

김상복목사
전, 할렐루야교회담임
평신도목회 PACE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우수하다! 읽기 쉽다! 실제적이다!

마가렛 터니애브 목사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Lilburn, Georgia

소극적인성도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책이다.

메릴 오스틴 목사
Bella Vista Community Church
Bella Vista, Arkansas

이 책은 모든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매년마다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텐 커레 목사
Knight Memorial Church
Salem, Oregon

사람들의 느낌에 대해 잘 썬여진 책이다. 이것은 결과지향적 보다는 과정 지향적 이라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티슨 목사
St. John Episcopal Church
Marysville, California

이 책으로부터 내가 배운 메시지는 ‘그들을 잘라내기 보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소극적인 성도들을 치유하는 것을 배워라’ 이다.

베드 베체드 목사
Bethlehem Baptist Church
Lake Oswego, Oregon

소극적인 성도들을 방문하기 주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

엘돈 오링거 목사
Foothills Lutheran Church
Calgary, Alberta, Canada

이 책은 정말 좋다! 그것은 무시되고 이리에게 잡혀먹도록 내버려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임스 리아 목사
First Presbyterian Church
Salem, Oregon

나는 이 책을 교회 도서관에 비치해두어 모든 성도가 읽도록 하고 싶다.

로버트 머쉬러쉬 목사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Rook Island, Illinois

전적으로 성서적이고, 느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동기부여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다.

케이트 딕스 목사
Trinity Lutheran Church
Lincoln, Nebraska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성도들에게 달아야 하는 긴박성을 보여주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실제적인 안내서이다.

조셉 모텐선 박사
First Baptist Church
Midland, Michigan

정말 훌륭하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다.

토마스 페트롱
St. Joseph Catholic Parish
Tiltonsville, Ohio

소극적인 성도들은 많은 회중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생각하면 죄의식, 가책, 그리고 분노를 느낀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잊혀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중요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로날드 마틴슨 목사
Central Lutheran Church
Anchorage, Alaska

차 / 례 /

추 / 천 / 사	2
차 / 례 /	5
서 / 언 /	6
제 1 장 새로운 시작	8
제 2 장 소극적이란 무엇인가?	11
제 3 장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20
제 4 장 공통적인 실수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	34
제 5 장 당신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7가지 단계들	45
제 6 장 민감성과 이해력	66
제 7 장 특별한 관심들	79
제 8 장 단계를 수립하라	95
제 9 장 닿기(Reaching Out)	107
제 10 장 “분위기를 바꾸고 과거에 대해 안녕!”	119
제 11 장 방어와 비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131
제 12 장 상처와 분노 다루기	141
제 13 장 초청적이냐 또는 초청적이 아니냐	153
제 14 장 훈련과 다른 어려운 결정들	166
제 15 장 한 온스의 막는것 그 이상	177
제 16 장 당신과 당신교회를 위한 비전	188

서 / 언 /

교회의 소극적인성도에 대한 주제로 수년 동안 수백 번의 강의와 워크숍을 인도한 것은 나에게 큰 특권이였다. 이런 경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너무 커서 - 내 자신의 관심과도 일치하는 데 - 목사와 평신도참석자들이 세미나 전에, 세미나 동안에, 그리고 세미나 후에 수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퍼 부었다. 종종 나는 그런 질문들을 적어보고 또 해답도 생각해보았는데 수천 개나 되었다! 나는 그런 수천 개를 계속 생각해보며 가장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공통적인 대답들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결과 이 책에 나와 있는 220개의 질문들로 압축되었으며, 이것이 교회들에게, 소극적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사역을 갈망하고 있는 세계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교회 동참이 엄청나게 증대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제시하는 접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 **[뒷문을 다시 열라]**에서 나의 목표들 중의 하나는 인간적이 되는 것(to be personal)이다. 나는 소극적이 되어온 사람들의 고통, 비애, 그리고 필요(욕구)들을 반영하기 원한다. 추가하여 나는 소극적인 성도들과 관련지어온 적극적인 성도들 - 기쁨과 좌절 양쪽 - 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나의 또 다른 목표는 아주 필수적이며 긍정적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 소극성에 대한 주제는 가치가 없거나 부정적인 명성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소극성에 대해 동정심과 돌봄을 갖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경험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나를 변호해준다: 긍정적이 되는 데에는(to be positive)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희망이다!

이 책, **[뒷문을 다시 열라]**는 교회 교역자 팀을 위해, 평신도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교회가 소극적인 성도에 대해 다루게 될 때에 엄청난 욕구가 있으며, 모든 성도는 그런 욕구들을 다루는데(addressing) 있어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백 개의 아이디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훈련교재, [소극적인 성도 돌보기]를 위한 교과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훈련에서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자료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질문들에 대해 많은(거의 대부분) 해답들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당신은 훈련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강화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수천 명의 질문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나와 함께 열심히 나누지 않았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책의 원고를 읽고 조언을 해준 20개 교단의 700여명에게 정말 감사한다. 여러 개개인에게, 그리고 전체에게 감사한다.

제 1 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다. 교회의 소극적인 성도들에 대한 염려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소극적인 사람들에 대한 긴박한 관심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더 생겨지고 있다. 이런 실제적인 염려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교회 소극성(inactivity)에 대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도의 30-35%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상처받고, 또 정을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소극적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잠재력을 생각해보라. 더 나아가, 당신은 최근의 적극적인 성도들 사이에서 소극성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종종 교회 성장의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무시되어온 요소이기도 하다 -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두 번째 방법(첫 번째 방법은 새신 자를 얻는 것). 나는 현재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계속 반복해왔다:

“두 명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한명이 뒷문으로 나간다.” (usually)

“한명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한명이 뒷문으로 나간다.” (worse)

“한명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두 명이 뒷문으로 나간다.” (the worst)

당신이 누구이든지,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당신은 소극성을 막을 수 있다. 당신은 소극적인 성도들을 돌봄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당신은 그들을 집(교회)으로 환영하여 그들이 돌아올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소극성에 대해 당신이 알맞게 접근할 때에, 당신은 엄청난 화해와 치료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당신이 이런 부분의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때에 화해는 양쪽(both ways)을 흔들거리는 문이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와 동참이 없이는 완전이나 전체성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적극적인 성도와 소극적인 성도는 똑같이 신앙의 공통된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소극적성도목회의 질적인 면이 온 성도에게 심각하게 고려될 때에 엄청난 사건이 회중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다행히도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을 얻는 최상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하는 것과 얻는 것은 함께 간다(Retaining and gaining go hand in hand).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내가 언급한 “알맞은 접근”은 교회 그 자체가 소극적인 성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때 종종 제대로 실천되어오지 않았다. 반대로, 회중은 소극적인 성도에 대해 전혀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노와 고통에 의해 발생한 알맞지 않은 접근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과정(wrong moves)을 밟아왔으며, 확실히 잘못된 방법(wrong ways)으로 접근해왔다. 그들은 뒷문에 서서 떠나는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문을 꽂 닫아버렸다. 당신은 모든 접근들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회의 앞문이 아니라, 뒷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 책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태도와 당신의 행동에 그것이 터치되기를 허용한다면 부적당한 것(improper)으로부터 알맞은 것(proper)으로 당신의 접근들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성도들은 소극적인 멤버들과 더 낮게 연관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는 잘 돌볼 수 없다.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알맞은 방법을 더 예민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더 나올 수 있다.

이해하는 것은 시작이지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실천에

대한 편견(bias)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안에 아주 분명히 명시해 놓았다. 해답을 원하면서 나를 밀어재치는 대부분의 질문자들은 공허한 추측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고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많은 질문들의 취지는 이런 식 이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접근할 수(닿을 수) 있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동정심과 돌봄으로 당신 동료 크리스찬의 필요에 부응하려고 배우는 것은 당신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교회 소극성을 다루는 것은 신나는 모험이다. 당신은 단조롭기 보다는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고, 당신은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됨으로 확실히 따뜻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여기에서, 신선한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당신은 이해력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기술을 배우고, 소극적인 멤버의 마음과 적극적인 멤버의 마음을 꼭 같이 엿보게 될 것이고, 접근하는 것(닿는 것)의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100일 동안에 완료될 것은 아닙니다. 처음 1,000일 동안에도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시작합시다.

제 2 장 소극적이란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사도요한은 말한다.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주 잘하는 분(누구도 놀랄 것 없이)으로 판명된다.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의미한 바를 알기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얘기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바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한다.

인간이란 것은 정의를 내리는 자인데, 역시, 놀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같은 방법에서 같은 시작으로 출발해야 하는 사건의 전환과 같은 것이다.

Q. 당신은 소극적인 멤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A. 나는 소극적인 멤버를 이렇게 정의한다:

소극적인 성도(inactive member)란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예배생활, 재정지원, 교회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성도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소극적이 된다. 이것은 아마도 출석이 감소되거나 또는 예배에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마도 헌금하는 것을 줄이거나, 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 프로그램 활동들에 참여를 줄이거나 또는 아예 멈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Q. 소극적인 것(inactive)과 할 수 없는 것(unable)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A. 기준은 선택에 있다. 소극적인 사람은 동참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을 거부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라든가 다른 병 때문에 신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무능력이 역시 삶의 실제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마치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50% 정도가 공포증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포증의 한 종류인 아골라포빅스(군중공포증: Agoraphobics)는 열린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어왔는데 몇 가지 방법들로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 아골라포빅스는 그들이 당황함을 당했을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묶여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무리한 공포의 희생자들은 다리를 건너면서 운전할 수 없고, 만약 교회로 가는 길에 꼭 다리를 넘어야 할 경우라면 그들은 교회에 갈수가 없다.

그런 감정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적인 사람들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의해서 전적으로 무력하거나 모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 눈질하며 얘기한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당신의 사역은 다르다. 그러나 당신은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필요한 애정과 이해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마음으로 접근하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 예를 들어 군대에 가 있거나, 다른 도시에 가서 대학을 다니거나 - 은 분명히 그들의 모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들은 올 수 있으나, 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

Q. 얼마나 오래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소극적이라고 단정하는가?

A. 시간의 길이가 기준은 아니다. 사실, 어떤 이는 그렇게 “오래(멀리)”가 있지 않더라도 위험요소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보아야 할 주요 요인은 그 사람이 삶에 있어 도움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있는지(*moving away*)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아직 성도의 한 부분이라고 느낀다면, 소극성은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단지 한주간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음은 이미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후자의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소극적이 되는 과정에 있다. 초기 신호가 있을 때에 특별한 예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매주 출석하긴 하지만 “소극적 바로직전(*pre-inactivity*)”일 수도 있다.

Q. 당신은 말하기를 예배참석, 재정협력,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정규참석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있다. 그들은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에만 참여한다. 그들은 소극적인가?

A.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을 소극적이라 분류하고 싶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관련된 일에 20-30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사람을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소극적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나누었을 때에 한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이 질문에서 서술한 교회동참을 선택했다면 나는 정말로 신 났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 가지 모든 분야에 동참한다면 - 예배, 헌금, 그리고 프로그램 -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나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준’이라 말하고 싶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더 동참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그들은 아직 하나님 집의 문간에 서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포함되어 있다.

Q. 소극적인 멤버라는 용어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Q. 소극적인 멤버라기 보다 더 나은 용어는 없는가?

A. 당신은 또 다른 용어를 좋아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실 내가 접한 용어들이다:

결석자	태만한자
변절자	연합 안 된자
뒷문 크리스찬	떨어진 교회멤버
뒷문으로 나가다	떨어진 형제
흑염소 크리스찬	변두리 멤버
방관자	소멸된 멤버
크리스마스/부활절 참석자	언저리멤버
임시참석자	낙심자
임시크리스찬	사라진자
죽은 나무	메달려있는 만화영화
	벗어난 크리스찬

대부분 이런 용어들은 그대로 옮겨놓기에 거부했다. 그들은 서술적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소극적인멤버* 라는 명칭이 훨씬 더 낫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서술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character)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activity) 수준을 말한다.

잠시 소극적인 성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나는 작년에 *소멸된* 멤버였어”? 또는 “나는 6년 동안 *태만한* 크리스찬이었어”? 나는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없다.

*소극적인멤버*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말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교회 동참을 얘기할 때에 사실상 선택하여 소극적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용어를 들을 때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여기 한때 소극적이었던 멤버가 한 얘기가 있다:

“나는 소극적인 멤버라는 말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과거 상태때문에 나를 깎아내리거나 모욕을 주는 것 같지 않다.”

나는 항상 덜 중요한 용어를 대신하는 더 중요한 용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최근에-예배-헌금-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부족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 즈음에, 소극적인 멤버라는 용어는 사용 될수 있는 가장 돌보는 용어(caring term)인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를 얘기할 때 꼭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동안 ‘예배에 참석치 않는다’ 든지,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치 않는다’ 든지의 주제가 대두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 ‘소극적’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 할 수도 있다. 당신은 꼭 ‘소극적인 멤버’로 분류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류의 사람이다!

Q. 왜 멤버들은 갑자기 소극적이 되는가?

A. 그것은 마치 “갑자기” 소극적이 된 듯이 보이지만, 대개의 경우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전형적으로 교회헌금을 잘 안하게 될 경우,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과정(a long-term process)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갑자기 소극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종 그들 삶 속에 위기가 오는 경우이다 - 내적 또는 외적. 내적인 위기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moorings)이 끊어져버리는 감정적인 단절의 결과이다. 외적인 위기는 가족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살아남기 위해 투자하면서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있는 직장에서도 또한 어떤 원인들이 있으면 더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Q.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특히 소극적인 멤버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편견이다:

1. “그들은” 아주 게으르다.
2.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3. “그들은” 너무 냉담하다.
4.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기 원치 않는다.
5. “그들은” 혼자 있기 원한다.
6.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7. 만약 당신이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8. “그들은” 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9. “그들은” 한번 전화만 해주면 돌아올 것이다.
10.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11. “우리는” 그들의 느낌을 다루거나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12.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가정들은 너무 서두른 속단이고 추정에 불과하다. 어떤 평가가 내려지기 이전에 많은 돌봄과 잘 들어줌이 첫번째이어야 한다. 확실히, 믿음이 약해져서 소극적인 멤버가 된 경우도 있다. (또한 믿음이 약해졌지만 적극적인 멤버가 있다.) 물론, 냉담해졌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소극적인 멤버도 있기는 하다. 또한 진짜 게으른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 상황은 위의 어떤 오해나 또는 이런 오해로 몰아붙이기는 경우이다. 당신의 할일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애정있는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Q. 당신은 누가 소극적인 성도인지 발견할 수 있는가?

A.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

이 질문은 정말로 나를 놀라게 한다.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리교회에서 우리는 교인명단을 훑어보고,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극적인 멤버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며, 또한 더 복잡한 일인 것 같다.

음, 그것은 맞을 수도,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더 깊은 질문을 배후에 가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소극성을 초기단계에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도 빈틈을 통해 떨어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모든 말을 종합하여 소극적인 멤버를 발견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보자:

1. 목사와 부교역자는 누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예배후 집으로 퇴근하기 이전에 예배불참자를 확인한다.)
2. 교회의 리더그룹(한개 또는 몇 개)은 종종 교인명부를 확인하여 누가 소극적이 될 것 같은지를 결정한다.
3. 교단에서 각 교회별 세례교인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4. 서약한 멤버들의 경우, 그들의 기부패턴을 바꿀지도 모른다. 기부금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을 잘 관찰하여 담임목사나 소극적멤버사역팀(inactive member ministry team)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헌금의 감소나 증가가 방문의 총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소극적인 멤버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헌금이 줄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다구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어떤 문구를 쓴다할지라도 당신은 마치 재정이나 아주 관심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어떤 교회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싸인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의자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것은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6.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연결토록하는 목자/집/지역 계획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7. 사람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들을 때에 당신은 초기소극성 표시들을 알 수 있다.
8. 정보망(grapevine)은 소극성이 초기단계에 있는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삶에 위기를 겪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소극성에 최우선 후보자이다.

9. 컴퓨터는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는 귀한 도구이다. 개인 삶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적인 프로그램은 당신의 컴퓨터 안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컴퓨터시대에 교회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담당이나 재정담당자만큼 가치 있는 보물이다.

이런 9가지 제안들이 데이터(Data)를 모으는 방법들이다. 이들중에 어느 것이 모아졌다고 하여 그 데이터가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데이터는 정보, 즉 인간에게 알기 쉽게 바꾸어(번역)질 때까지는 무용지물이다. 단지 자료(데이터)만을 위해서는 모으지 말고, 그것이 ‘사역과 닿는 노력(ministry and outreach efforts)’을 시작하도록 당신을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라.

Q. 누군가가 소극적이라 생각되어, 어떤 사람이 접근하여 제안을 함으로 그 사람(제안한 사람)이 모욕(경멸)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열심에서 증대되고 또 쇠퇴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A. 당신은 누군가가 확실히 소극적이라고 단정하여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에게 접근하여 “당신은 교회에 더 이상 관심이 없구만”이라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요즘 어때요?” 라고 단순하게 질문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돌보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는 반대가 없다. 그럴 때 당신의 관심은 감사하게 되지 경멸받지는 않을 것이다.

멤버들이 동참에 있어 변동은 정상적이다. 사람들의 100%가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에 100% 동참하고, 100%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한다면 이것은 목사나 교회 스태프에게 정말 기쁜 일이다. 비현실적이지만, 기쁜 일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동참과 봉사에 대한 그들의 가용성(availability)에서 증대되고, 또 쇠퇴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

다. 사람들의 삶은 바뀐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갖고, 학교를 가고, 자녀를 갖고, 그리고 은퇴한다. 이런 변화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더 참여, 또는 덜 참여에 영향을 준다.

물론 모든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동요되고 격려되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shoulds*)”라는 개념은 안 좋은 동기부여라고 본다. 교회가 자체의 능력(*capacities*)을 한층 더 높일(*upgrade*) 생각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건강과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성이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지속적인 도전이다.

교회가 이런 도전에 잘 부응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for-you-ness*)” 이라고 크게, 그리고 분명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하여(*for you*)를 의미한 사랑이다. 예수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for you*) 죽으셨다. 교회의 구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직이다. 모든 크리스찬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사역자로(*as a minister*) 보고, 그 거룩한 은사를 신뢰하게 된다면, 내가 말한 100%의 꿈은 실현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제 3 장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나의 한 친구는 교회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호기심이 가득 찬 참여자였다. 그들은 소극성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어떻게 관련지을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나의 친구는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는 데에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극적인 멤버와 잘 관련지을 수 없다. 나는 그들에 대해 너무 화 난다!” 라고 아주 성실한 성도가 말했다.

한 남자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당신이 말한 것 중 어떤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것은 변명밖에 안된다!”

소극적인 멤버는 종종 처음에는 변명하지만, 어떤이가 그것들을 알게 됨으로, 그들은 그것이 ‘진짜 이유들’ 이 되게 해버린다고 내 친구는 용기 내어 말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느끼기를 그는(소극적인 멤버) 그들의 부분에 대해 확실성을 배제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현명하게 다른 주제들을 얘기했다고 말한다. 그는 부정적인 느낌과 잘못된 개념은 소극적인 멤버를 위해 돌보려는 동기부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많은 책들을 만들어 내게 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일반적인 말투(어법)에서 오해되고 있는 용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동기부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부모들과 많은 독재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기 원하도록 만들 수(make)는 없다’는 것이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항상 내적으로 생겨지는 것이지 결코 외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기 원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과 전혀 똑같지는 않지만 당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종류의 “동기부여”는 대개 두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위협 또는 거부이다: “존스, 너는 제때에 오지 않으면 해고야,” 그리고 “쌈양배추(쌈이 있는 배추)를 먹지 않으면 후식도 없어!” 개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내적인 동기부여는 아마도 두려움, 안전의 보존, 또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이후에 오게 되는(available) 좋은 것에 대한 바램이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항상 내적으로 산출되는 것이기에, 교회와 개인들은 그런 내적인 필요와 바램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장에 나오는 질문의 요지이다.

Q. 당신은 어떻게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소극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는가?

A. 사실 당신은 할 수 없다(bad news). 그리고 또한 당신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good news)! 적어도 기초적인 관심의 측면에서, 시발적인 동기부여는 많은 능동적인 멤버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에 대해 알고, 또 돌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씌여질 때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격화 하기시작 할 때에, 그들은 정말로 메리, 조, 그리고 옆집에 사는 이웃의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타고난 애정어린 크리스찬은 서로가 이런 돌봄을 할 수 있는(released)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인도한 워크샵에서 이런 것을 반복하여 보았다. 나는 계속적으로—그리고 즐겁게—교회안에 특별한 리더십 역할이 없으면서도 소극적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는 보통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Q. 어떻게 하면 나는 적극적인 멤버로 하여금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한 목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A. 이것은 바로 이전에 질문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중과 개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답은 교육과 훈련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직”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목회역할을 위해 멤버들의 인식과 책임은 깨어났고 상승되었고, 소극적인 성도들에 대한 목회에 그들의 응답이 증대 될 것이다.

Q. 왜 그렇게 많은 적극적 멤버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을 방문하기 꺼려하는가?

Q. 왜 그렇게 많은 적극적 멤버들이 소극적 멤버들에 연관짓는 것조차 두려워하는가?

A. 적극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작용할 수 있다: 거절의 두려움, 분노 발산의 두려움, 불확실성의 두려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의 두려움,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지식의 부족 등등이다.

이것에 대해 내가 의미하는 바는 능동적인 멤버들은 소극적인 멤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옳은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능동적 멤버들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여 “얼어붙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술이 별로 없고 수줍음이 있다고 본다. “나는 일반적인 얘기를 잘 못해”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것은 좋은 뉴스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small talk)”는 소극적인 멤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큰 청취력(Large Listening)”이 소극적인 멤버가 필요한 것이며, 누구나 다 그것은 배울 수 있다.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찬스, 비공식 또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 종종 소극적인 멤버와 어떤 만남에서든지 당신은 교회의 주제를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다. 단지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됨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면 된다.

자연스런 당신이 되고 친절 하라. 꾸짖지(berate)말고 관련(relate)지어라!

저항의 또 다른 측면은 방문 또는 연관의 목표가 무엇이나,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목표들이 “모든 댓가를 치르더라도 소극적인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돌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종종 그런 목표들-나는 그것을 결과지향적 목표라고 말하는데-은 확실히 성도들이 세우는 목표들이다. 아마도 몇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강압적인 판매, 강요적인 접근에 편안해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목표들이 관계성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소극적인 멤버들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고, 아마도 사라질지도 모른다.

“과정목표(process goals)” 라고 내가 부르는 그런 긍정적인 목표들은 목회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한다(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려주는 좋은 예이다.

Q. 강한 접근은 “적극적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요청하였다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A. 만약 당신이 소극적인 성도에게 “적극적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커뮤니케이트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을 택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강제적인 접근은 하나는 얻을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결과접근으로 사람들에게 관련짓는 것은 나도 지고-너도 지는(lose-lose) 상황을 만들고 만다.

Q. 결과지향적 목표(results goals)와 과정지향적 목표(process goals)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달라. 그것들은 무엇인가?

A. 능동적 멤버들은 소극적인 멤버들에 연관짓는 주요목표를,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또는 그들의 관점을 바꾸려 하거나, 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모두 결과지향적 목표들이다. 사실, 능동적 멤버들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시간 전에 결정하여서, 그가 애쓰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당사자가 아닌)의 삶에 개입하는(playing) 것이 된다.

결과지향적 목표들과 과정지향적 목표들은 초점에서 다르다. 나는 그 차이들을 다음의 차트에서 요약해 놓았다.

돌보는 사람이 결과목표들에 초점을 맞출때	돌보는 사람이 과정목표들에 초점을 맞출때
강조하는 것은 '결과'이다.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이며 관계성의 블록들을 세우려는 것인데, 듣기, 사랑하기, 돌보기이다.
치료가 목표이다.	돌봄이 목표이다.
돌보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결과는 하나님과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초점은 미래이다.	초점은 현재이다.
스트레스(압박)는 돌보는 사람과받는 사람 양쪽에 증가된다.	스트레스(압박)는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제거된다.
율법이 부추긴다.	복음이 작용한다.
신뢰와 믿음이 변화의 중개인이라 보여지는 사람속에 내재 한다.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과정을 사용하실 것이다.
돌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돌보는 사람은 돌보는 관계성에서 자신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돌보는 사람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돌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장과 변화가 방해받는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

과정지향적 목표들은 소극적인 멤버에 초점을 둔다. 당신이 세우는 목표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크리스찬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과정지향적 접근은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것과 자치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종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결과지향적에 꼭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소극적인 멤버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들이 용서 받도록 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 변화시키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결과를 너무 강조하여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레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Q. 어떻게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닿는 데에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울 수가 있는가?

A. 훈련과 실습이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멤버들에 연관짓는 데에 숙련될 수 있도록 배웠다면 해소된다. 소극적인 멤버에게, 당신은 나와 같이“단지 동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신화를 쫓아버릴때- 그들은 게으르다, 자기만족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자들- 능동적 멤버들은 그들을 상처받도, 문제있고,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로 보게 된다. 닿는것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태도는 그때야 가능해진다.

자기 확신을 개선시키는 교육과 훈련같은 것이 없으면, 증대되는 두려움에 대해 자기 확신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

Q. 나는 소극적인 멤버에게 접근할 때 당황함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그 당황함(난처함)을 극복 할 수 있는가?

A. 어떤 사람들은 수줍어하고, 다른 사람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당혹해한다.

만약 당신이 좋은 질문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최상으로 얘기하게끔 하는 것을 배운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은 훌륭한 대화자라고 분명히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소극적인 멤버들에 관련짓는 데에 열쇠가 된다. 그들로 하여금 많이 얘기하도록 하라.

아마 당신은 또한 왜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다가가는지 당신자신에게 물

어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여러 번 그런 관점에 대해 당황함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부여는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얘기하는 목적이 그들을 바꾸려하거나,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고정된 아이디어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류의 결과지향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고 또 당황하도록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해독제(교정수단)는 당신은 돌보기 때문에 단순히 연관짓는다고 당신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다.

Q. 나는 어떻게 소극적인 성도에 대한 나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가?

A. 적극적 멤버들은 소극적 멤버들에 대한 분노를 쉽게 표현한다. “그들은 잠자려고 한다.” “그들은 내가 교회에 하는 만큼의 모든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들은 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교회에 헌금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교회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극복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쉽게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출발하는 곳은 [용서함]이다. 누구를 용서하는가? 당신 자신이다. 물론,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용서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구해야 한다. 당신 역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이런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내어 놓을 때 까지는 소극적인 멤버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분노는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당신이 관련을 짓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방면의 교육과 훈련은 분노를 쫓아버리는데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있게 될 때에, 태도는 아주 신속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들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상처, 또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위기를 당신이 깨달을 때에, 분노의 태도는 당신의 동정심의 따뜻함 속에 녹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좋은 모델이다.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 그는 어떻게 행동 했는가? 두명의 세리 마태와 삭개오에 대해서는? 매춘부에 대해서는? 그가 그들을 본 것과 같은 식으로 동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본

다는 것은 “행운”이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Q. 비판주의를 피하는 것에 관련하여, 나는 어떤 기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A. 어떤 능동적 멤버들은 소극적 멤버들의 삶 속에 죄의 작용으로서 소극성을 보기도 한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소극적인 멤버들을 죄인들로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사역에 치명적이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의 본질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이해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죄란 우리 모두의 본성속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극성에, 육신적인 것에, 자기 의로운 행동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소극적인 멤버들을 단지 죄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 자동적으로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분명히 비판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표준은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소극적인 멤버가 다른 견해나 행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그런 표준들을 당신자신의 입장에 비추어서 적용시키거나 또는 그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당신 자신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소극적인 멤버를 방문하기 위하여 주일예배를 빼먹어서는 안된다 - 당신은 생각하기를 그가 혹시 그 시간에 집에 있을지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인데, 인간이 간직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놀라운 파트너십의 일부이다. 그들의 영적 성장은 그들을 위해 당신이 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잔뜩 분위기를 잡고, 법적인 어투로-“랄프,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말하려고 여기 왔네!”라고 말한다고 하자. 당신은 아마도 옳

을지는 몰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행한 입장에 있게 된다. 당신은 올바른게 되기 원하는가, 또는 랄프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가? (그리고 물론, 랄프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밀어붙이지 말라.) 그리고 역시 기억할 것은 당신은 단지 표면만 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전체 관점을 못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 이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기 어려운 특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극적 멤버와 관련할 때에, 당신은 그 사실이 주요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가. 당신은 아주 직접적인 당신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 조용하고 순수한가, 또는 그것을 정통으로 때려 소극적인 사람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몰아 어리석고 잘못되었다고 호되게 메질할 것인가? 첫 번째 반응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둘째 스타일은 그것을 질식 시킨다.

Q. 교회지도자들은 어떤가-장로들, 재직들, 집사들?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멤버의 사역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

A. 같은 해결책이 교회리더십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적용한다.

장로들, 집사들, 위원회멤버들, 또 어떤이들은 그들의 역할의 부분을 성취하기 하게 될 때에, 만약 그 역할이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노곤해(줄리는)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노곤한 상태(활발치 못한)는 기술훈련을 통해 다시 깨어날 것이며, 능력(자격)과 확신으로 대치될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은 또한 결과지향적 형태에서 빠져나와 과정지향적 형태로 가야한다.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소극적멤버들과 관련짓는 사람들은 엄청난 즐거움을 가질 것이며 그것을 하는 데에서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지도자이든 일반성도이든 결과목표로 생각을 하여 측량하고 또 그렇게 보기 원한다면 어떤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장로들이나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일이나 시간이 포함된 일의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의 위치에서 일들은 그들의 은사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그들의 은사에 들어맞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어떤 리더십역할을 맡도록(미래 소극성에 대한 위험한 표시) 강요된다. 물론 여기에서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를 사역에 맞추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Q.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특히 유용할 것인가?

A.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성도들의 전반적인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은사들이 중요하다.

소극적인 멤버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 대개 “**궁휼(mercy)**”로서 번역되는 은사인데(롬 12:8; 희랍어로 *elos*) “감정이입적인 돌봄”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
2. 섬김의 은사(롬 12:7, 고전 12:5; 희랍어 *diakonia*)
3. “**격려**” 또는 “위로”로 이해되는 훈계의 은사이다(롬 12:8; 희랍어 *paraklesis*).

소극적인 멤버들의 사역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4. “**돌보는 리더십**” 또는 “**엄마 양계장**”으로서 더 잘 이해되는 리더십의 은사이다. (롬 12:8; 희랍어 *proistemi*)
5. “**지배통치**”로서 더 잘 번역되는 행정의 은사이다.(고전 12:28; 희랍어 *kubernesis*).
6. **가르침**의 은사이다.(롬 12:7, 고전 12:28, 엡 4:11; 희랍어 *didaskalos*). 왜냐하면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닿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은사들—지혜, 지식, 믿음, 전도—역시 함께 오게 된다. 사도 바울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은 사실이다: “....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전 1:7).” 이것은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접근하는 진실한 사역을 세우려고 당신이 생각할 때에 당신과 지도자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다.

Q. 우리의 회중적인 리더십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없는가?

A. 몇 가지 점을 얘기 하겠다:

1. 소극성은 우리의 교회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밖에는 상처받은 소극적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소극성을 막는지 잘 알아야 하고 이미 소극적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소극적이 되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역하여야 한다.
3. 교회가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전반적인 사역을 강조할 때에, 혜택은 전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회중속에 사역의 질적인 면이 능동적인 멤버와 피동적인 멤버 양쪽을 개선하게 된다.
4. 소극적인 멤버들은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또한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5.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사역은 많은 방법들에서 상당히 성공적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성도중에 한때는 소극적이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교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가 있다. 리더십 팀은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지도자들, 또는 가족중 누구라도)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만약 그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바라는지, 또는 그의 가족들 중 누구에게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소극적 멤버들에게 지금 응답하는 방법이다.

Q. 어떻게 목사로 하여금 소극적인 사역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독려할

수 있는가?

A. 성도들이 이런 분야의 사역을 위해 책임을 지려할 때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흥분해 하는지 놀랄 것이다. 전통적으로 그 책임은 그들 혼자에게 지워졌는데, 교회재직들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대해 눈에 불을 키고 감독하는 것이다.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이 당연지사인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태도는 단지 퇴보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가 대학에 다니던 한여름에 교구사역자로 10주간 자원봉사 한 적이 있다. 나의 목사와 나는 여름에 소극적인 성도와 불신자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나는 그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박을 받지 않았다. 그해 가을, 26명이 교회에 등록하였거나 다시 돌아왔다.

다음해 여름, 나는 또한 교구 사역자로 고용되었다. 이제는 급료를 받게 되었으며,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느껴졌다. 그해 여름의 결과는 한명의 소극적인 멤버만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지금은 가끔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새 신자는 한명도 없었다. 첫 번째 여름은 단지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돌보는 데에 집중하였기에 정말로 기쁨이 있었던 반면, 다음번의 여름은 나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는 느낌만 갖게 했다.

내가 추천하는 강조점-결과보다는 과정-은 목사들에게 지워지는 압박을 덜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는 사실은 다른 스트레스, 즉 고독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것이다. 이런 압박을 대치하는 것은 목사의 노력이 가치 있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협력적으로 일하는 기쁨일 것이다. 질적인 관계성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될 때에는 과정지향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결과지향적 목표는 그렇지 않다. 결과지향적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을 존경할 필요는 있다. (아마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과정지향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만약 당신이 그 개념을 이해(도착)하기 어렵다면, 이 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라.

제 4 장 공통적인 실수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

정의를 손에 넣고,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당신은 이제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뭔가 소극적인 멤버를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거기 잠깐 머무르라. 첫째로 되어야할 위험과 실수에 주의하라.

고려해야할 첫 번째 실수는 태도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결과지향적 사회의 생산품이다.

Q.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사역에 합리화된(a streamlined) 접근 방법이 있는가?

A. 그것은 합리화(간소화, 능률)라는 것에 대해 당신이 의미하는바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 “소극적인 멤버를 접촉하는 데에 신속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 그들을 올가미로 잡아 우리에게로 질질 끌고 오는 것”이라면 대답은 ‘No’이다. 교회에 다른 질적인 활동들이 그렇듯이, 이 사역을 하는 데에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없다. 이런 것은 하늘나라에나 가셔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합리화(간소화, 능률)라는 것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사려깊게 계획세우고 질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태도나 실천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대답은 ‘Yes’이다. 합리화된 접근은 결과지향적 접근에 반대되는 것으로 ‘과정지향적 접근’이다.

결과지향적 접근은 미래에, 그리고 끝(ends)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능동적, 피동적 멤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압박을 증가한다. 피동적멤버 사역에 대한 결과지향적 접근은 이루어야하는 결과들에 치중하므로 하나님을 소극적멤버들로부터 무모하게(쓸데없이) 떼어내려고 애쓰

는 결과밖에 안된다.

과정지향적 접근은 현재에, 그리고 중간(means)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소극적멤버와 적극적멤버 양쪽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능동적멤버들이 통제하도록 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피동적 멤버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Q. 우리의 성도들은 피동적멤버들에 대한 사역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가 하기전에, 우리는 다음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몇퍼센터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가?

A. 아마도 그 대답은 100명중에 단 한명이 될 수도 있다 - 그래도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다음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눅 15:4-6

당신의 질문은 정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아닐 때 만이다. 시간 이전에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람에 대한 사역에 불길한 징조(death-knell)같이 들릴 수 있고, 또한 어떤 사역이고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부인)하는 것 같은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적인 응답은 100분의 1보다야 훨씬 높겠지만, 그리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100명중에 100명에 가깝게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돌봄으로 관련짓는 사역은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양쪽에 좋은 것으로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와 함께 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 목회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직 피동적으로 있는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

님이 그 사람을 위해 결정하시도록 하는 돌봄의 체인(사슬)에 한 연결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목회할 때에,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다 - 자신에 대해, 회중에 대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에 대해. 당신이 배우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할 것이며, 장래에 소극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경감 시킬 것이다. 이런류의 혜택의 배가는 활동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 것이다.

확실히 당신의 숫자는 많은 요인들에 달려있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존 쉐베지(John Savage)는, 한교회가 86%돌아오고; 다른 교회는 60%가 돌아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¹⁾. *피동적인 멤버를 위한 돌봄*²⁾의 훈련에서 한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우리교회 명부에서 120명의 피동적 멤버를 확인했다. 그들을 접촉한 결과, 60명이 이사했거나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을 알았다; 19명은 군대갔고, 대학 때문에 갔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41명은 방문을 환영하고 다음 접촉이 있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확인한 100%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들이 당신이 피동적 멤버에 대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것” 이기에 그들을 목회하는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은 우리이다” 우리는 그들을 능동적 멤버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호헌신이며, 그리고 비록 약속에 대한 그들의 측면에 대해 약속을 어기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어기는 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Q. 결과지향적 사람들은 과정지향적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가?

A. 결과지향적 사람들이 과정지향적 접근에 대해 훈련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 그 이상이 될 것이다 - 그들은 무아지경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과정지향적 접근에서 성장(번영)할 텐데,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피동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것을

멈추도록 허락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지향적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종류의 사역을 위한 기질을 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지향적 접근에서 얻는 혜택을 누리도록 그런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한다: 강단 꽃꽂이, 점심식사 준비, 교회관리 보수 등등. (그리고 비록 이런 활동이라 할지라도, 포함되는 사람들과 관련지을 때에 ‘과정지향적’ 이 되기 바란다.)

그러나 훈련은 단지 ‘천성적으로’ 과정지향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해서는 안된다. 어떤면에서 이런 사역에 천성적으로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과정적 생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충분히 배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 교회 안에 결과지향적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피동적 멤버들에 대해 가장 소리 큰 비평가들이 될지도 모른다. 훈련이 없을 경우, 결과 지향적 사람들은 당신이 피동적 멤버들과 주의 깊게 양육해온 관계성을 깨어버릴 지도 모른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Q. 만약에 피동적인 멤버를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가운데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성공할 것이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A. 누가 그런 판단을 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더 나은 방법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가르치는 황금 기회를 갖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교회의 계속교육 과정에 동참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효과 없는 신념(생각)에서 풀려지도록 (해방) 해야 한다.

잘못된 기대들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양상하게 될 것인데, 피동적인 멤버를 방문하는 것이 교회목사이거나 팀의 지도자일 때 오게 되는 것이다. 만약 목사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

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교육이 아직 열쇠이다.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그들에게 주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들을 연구하도록 제안하라: 잃은 양(눅 15: 3-7); 잃은 동전(눅 15:8-10); 탕자(눅 15:11-32). 역시 훈련과정을 만들어 실시하라.

그런 것에 대해 아주 강조함이 없이는, 피동적인 멤버 사역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과지향적으로 바꾸도록 충고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프로그램은 좋지 보다는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다. 과정지향적 접근의 장점(가치)은 그것의 기반인 신학과 목회적인 태도를 탐구하려고 시간을 가질 때 아주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붙잡을 것이다.

Q. 우리 성도들은 3개월 동안 피동적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추가(follow-up) 편지를 보낸다. 이런 접근은 아주 잘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응답들이나 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화난다. 편지 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A. 분명히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

소극적인 성도를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편지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지만, 반면에 가장 효과가 적은 도구이다. 이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소극적인 멤버와 교회가 멀 경우에는 괜찮다. 세미나에서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소극적인 멤버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다른 사람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한 참석자가 말했다: “예, 우리 가족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나는 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제기시키는 직접만남 보다는 편지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Q.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뉴스레터 등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얻는 것(good) 보다는 잃는 것(danger)이 더 많다. 그것은 사람들을 몰고 가버린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대게 만든다.

비인격적인 것(impersonal)에 덧붙여서, 편지와 이런 타입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들은 종종 비난소리같이 들리고, 그리고 그것들은 거의 항상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인식된다. 편지라는 것은 아주 한쪽 측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우월-열등(superior-inferior)을 만들 수밖에 없다. 비록 그 편지가 소극적인 사람에게 응답하도록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단지 한가지 응답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여지는 데, 즉 *교회로 돌아오라!* 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선택이 아무것도 안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 사이라면, 아무것도 하지마라. 당신은 덜 해를 입으면서(less damage) 더 사역을(more ministry) 할 수 있다.

Q. 단지 ‘관계성 수립’ 메모 같은 것을 소극적인 멤버에게 보내는 것은 어떤가?

A. 아마도, 당신이 보내는 것이 결과지향적이 아닌 과정지향적 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다.

당신의 동기에 대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단지 소극적인 멤버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적어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일과 결혼기념일 카드를 보낸다. 만약 소극적인 멤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대우 받는다면, 이것은 도움(a plus)이 된다.

개인적인 접근과 더불어 보내는 메모나 편지는 확실히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또 알맞기도 한데, 그들은 관계성을 계속 수립하고 싶다는 노력을 감지할 것이다. 그들 자신으로서, 그들은 미완성이다.

Q. 소극적 멤버에게 전화심방(telephone-ministry)은 얼마나 효과가 있

는가?

- A. 격려하는 메모, 카드 등과 함께 전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개인접촉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화로 관련짓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관계성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전화하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접촉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직접(in-person)만남이 아니다. 전화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실마리들(nonverbal cues)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 생각에 소극성에 대한 좋은 과정지향적 돌봄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의 감각과 느낌인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눈으로 알아채리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민감성은 많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한다.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나누면서 영향이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직접) 만나는 것이다. 전화접촉은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8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겠지만, 관계성을 수립해야할 때는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관계성이 수립되고 나면 그것들을 유지하는 도구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Q.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성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A. 질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6가지 일반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이다.

1. 아무것도 안 한다 - 소극적인 멤버들을 그냥 내버려둔다.
2. 너무 심하게 밀어 붙인다- 과정지향적 접근이 아니라 결과 지향적 접근을 한다.
3. 돈을 빌리려고 소극적인 멤버를 접촉한다.
4. 소극적인 멤버의 필요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한다.
5. 왜 소극적인 멤버가 소극적이 되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 너무 빨리 일반화 하는 것이다. (“모든 소극적 멤버들은 게으르다; 소극적 멤버들은 모두 다 일요일은 쉬기 원한다; 모든 소극적 멤버들

은.....”)

6. 사역의 방법에서 돌보기보다는 정죄한다.

Q. 돕기가 너무 늦은 경우는 언제인가?

A. 결코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너무 늦은 경우는 없다.

교인들은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너무 빨리 포기한다. 소극적인 멤버와의 첫 번째 접촉에서, 그들의 측면(part)에서 너무 많이 피하고 있다. 소극적인 멤버들은 당신이 정말로 돌보는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정말 그런가? 두 번째 세 번째 접촉에서, 소극적인 멤버들은 당신의 헌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기억하실 것은, 만약 당신이 순수하게 돌보고 과정지향적 방법으로 다가 간다면 시작시점에서 신뢰가 생겨질 수도 있다.

Q. 소극적인 것을 돌보는 데에 최상의 방법으로 입증된 것은 무엇인가?

A. 간단한 해답: 소극성을 첫 단계에서 막는 것이 소극적 멤버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나면, 최상의 방법은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강요치 않는 돌봄으로서 표현되는 개인적 접촉이다.

Q. 왜 개인적인 만남이 최상의 방법인가?

A. 첫째, 개인적인 만남은 소극적인 멤버를 가치있는 사람으로서 대우한다.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에 가치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 본인이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첫 경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적인 접촉이 순수하고 돌봄이 있을때에 소극적인 멤버는 골라져야할 물건같이 느끼지를 않는다. 초점은 진짜 사람(real person)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지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인 접촉은 느낌의 교류를 허용하면서 오해를 풀어준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접촉은 소극적인 이방인을 친구로 바꾸어놓기 때문에 된다. 그것은 관계성을 수립한다.

Q. 소극적인 멤버들을 방문하는데 생겨지는 질문에 대해 행정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목사들이여, 만약 당신이 간다면 더 낮게 응답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가?

A. 어떤 측면에서 목사는 소극적인 멤버에게 닿는 데에 더 알맞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한쪽이 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누군가가 소극적인 멤버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뜨거운 포테이토칩처럼 왔다갔다 던지지 않는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포테이토”는 차가워져 안 팔리는 것이다. 어느것이 더 알맞은지에 대한 불변의 진리는 없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행정적인 전문가에 대한 그런 응답은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리라. 그것은 아마도 개인적인 접촉을 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소극적인 멤버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부적당하다고 느낀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리라. 또는 그들은 사역의 본질과 그들의 목사에 대한 그들의 관계성을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사를 이런 목회의 짐을 지도록 급료를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행정적인 전문가(그리고 전체 성도들은)는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Q. 당신은 상황에 따라서 목사나 평신도가 접촉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라도 있는가?

A. 소극적인 멤버에게 닿는 데에 꼭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오게 되는 분명한 불리함은 산수로부터 두드러진다.

내가 전에 얘기한 교회를 볼 때에 잠재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은 120명, 그리고 그중에 41명은 사실 소극적이었다. 방문준비를 5분간 하고, 1인당 1시간 30분을 방문하고, 또 방문시 가고 오는 시간을 더하면, 41명을 한번씩 방문한다 해도 다 하려면 65시간이 필요하다. 관계성을 수립하려면 한번 방문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분명히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사라는 직책의 권위는 소극적인 멤버가 아마도 필요로 하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목사가 고통으로 상처받고 있는 소극적인 멤버를 방문하여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다니 정말 안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반면에 평신도가 다가갈 때에 한가지 유리한 점(혜택)은 소극적인 멤버는 평신도에게 마음을 더 열거나 더 정직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가끔 목사에게 ‘목사님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소극적 멤버는 평신도의 방문을 “그는 단지 이 일만 하는데, 그것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치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순수한 돌봄과 관심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한 목회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교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목회하는 평신도팀을 가지고 있다. 가끔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방문해야 하는가? 또는 화해해야 할 사람에게 내가 가야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목사님이 아직 가실 때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알려드리지요”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판단을 완전히 따른다.

이 목회자는 인내하였고 그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에 예민했으며, 평신도들이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Notes

1. John S. Savage, "Reactivating the Inactive Member," in *Ministry*, May 1983, p. 27.
2. Kenneth C. Haugk, *CARING FOR INACTIVE MEMBER: How to Make God's House a Home* (St. Louis: Tebunah Ministries), 1990

제 5 장

당신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7가지 단계들

정의, 동기부여, 그리고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들을 알았으니 당신은 이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7가지 단계를 제안하겠다.

Q. 소극적인 멤버를 위한 목회를 개발하는데 성도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1단계: 기도하라(Pray)

A. 첫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이다. 소극적인 멤버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도록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조각이 나거나 불규칙한 사역이 생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동기부여가 헌신되거나, 집중적인 노력을 하기에 충분히 깊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분명한 명령을 제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방향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단지 시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멤버를 위한 당신의 사역 전반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기도는 내가 가끔 빼먹는(leave out) 단계이며, 그리고 나는 왜 소극적인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에 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전화하려 할 때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도우려고 하심을 잊어버린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작용할 때 결과는 뻔한 것이다.

교회 소극성이 범하는 세가지 상처들을 당신이 깨달을 때 기도를 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극적 멤버들이 고통하고, 교회가 고통하고, 그리고 세계가 고통한다. 당신은 소극적 멤버의 안녕복지(good)를 위해, 교회의 안녕복지(good)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분내고 비판주의적인 많은 사람들을 소극적 멤버를 향하도록 하는 위안(salve: 고통을 덜어주는/재난구조, 화재구조)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의 기도-지도자와 멤버들 똑같이-는 당신의 분노와 비판주의를,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도록 하는(will change) 엄청난 바람속에서 하나님께로 넘겨야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마틴 스미스(Martin L. Smith)는 그의 책, [말씀은 당신 아주 가까이에]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안에 진행되고 있다. 사랑안에서 포괄적인 아버지(Father)는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안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유출과 아들의 사랑안에서 성령의 도래속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의미하는 모든 것이 있다-친밀, 찬양, 자기 희생, 사랑, 바람, 고통과 슬픔에 의해 쪼개어진 세상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는 동정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원한 댄스가 이미 춤을 추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다.1)

이런류의 사랑의 표현(exposure)으로 우리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누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는가? 기도의 주제에 대해 네 가지를 얘기하려 한다:

1.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전반적으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내심을 주고 그 사람의 고통 속에 충분히 참여 하면서 그 사

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2.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 관계하고, 마음이 열리고 또 환영하도록; 소극성의 초기 신호에 대해 예민하여, 그런 사역이 즉시 시작되도록 기도하라.
3.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당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그 일에 대해 용기, 지혜, 지구력,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이다. 당신이 만든 ‘소극적멤버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즐거움으로 봉사하도록 해달라고 하라.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극적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 염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Q.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2단계: 결정하라(Decide)

- A. 당신의 교회, 또는 당회(또는 재직회)는 의도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아주 오랫동안 탁상공론(talking stage)으로 끝나면서 전혀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행동없이 서서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어느 누구라도 예배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의도적인 것이 행동으로 인도한다. 설

교는 준비되어야하고, 찬송가는 선택되어야 하고, 난방상태는 잘 가동되어야 하고, 등등이다.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조직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청지기사역(stewardship)이 효과 있게 될 것인가? 의도적인 것이 행동으로 이끌고 간다. 만약 전혀 초점이나 강조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사역은 잘 될 것인가?

그것은 소극적멤버를 위한 사역에 비추어볼 때도 꼭 같다: 의도적인 것이 행동으로 인도한다. 의도적이란 것은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한 제공적, 지원적인 질적인 사역이 당신교회의 우선권이란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질적인 소극적멤버 사역은 몇가지 부분이 있다: 1) 소극적 멤버에게 닿기; 2) 돌아오는 소극적 멤버를 환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3) 소극성을 막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것.

이제 소극적인멤버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원하는 당신의 이유들을 찾아보거나 두려움 없이 확인하는 시간이다. 나는 종종 그들 자신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교회들을 보곤한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가?

나는 첫 번째의 두가지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원한다. 기도는 이 과정의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며,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기회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것의 두 번째 단계질문에 ‘yes’라고 말함으로(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질문들이다), 당신은 나머지 단계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올바른 곳(the right place)에 있기 때문이다.

Q.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기도했고, 우리는 정말로 소극적 멤버에 대한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3단계: 계획세우라(Plan)

A. 너무나 종종 이 분야에서 성도들의 다음 단계(또는 첫단계)는 소극적인 멤버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위해 만나고, 감언이설로 당겨올 일종

의 "사냥 팀(bounty hunters)" 을 모집하는데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한다. 얼마나 망치는 일인가?

당신은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당신이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조직하고 진행시키는 데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가? 어떻게 훈련시키려 하는가?

[영향력있는 교회가 되는 12가지 열쇠]의 저자 케논켈라헨(Kennon Callahan)은 당신의 영속에 있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수행하라고 추천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획 세우는 것의 목적은 행동이다. 더 성취하기 위해서는 덜 계획세우라. 더 계획을 세우면 당신은 곧 덜 성취할 것이다.”2)

일반적으로, 당신교회의 조직적인 구조에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목사와 리더십의 축복(열정적인 참여!)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런 노력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십의 헌신(약속)은 이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과 그것을 최우선의 노력으로 하는 연속성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모든 성도들이, 또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역(informal ministry)에 동참되어야 하는가? 또는 소극적인 것에 대해 사역할 팀이 있어야 하는가?

A. 이것은 이것이나-저것이나의 질문은 아니다. 소극성에 대한 이슈는 너무 강하고 복잡하여 어느누구이든지 문제를 양쪽 입장에서 표현하도록 잘 충고 받을(well-advised) 수도 있다.

잘 훈련받은 팀이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특별히 닿고 의도적인 관련을 갖는데 책임을 질수도 있다. 훈련받고 임무부여 받은 다음에, 그들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지원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특별하게 구성된 그룹은 단지 퍼즐의 한 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잘 공감된(well-informed) 멤버십을

창조하는 것인데, 소극성에 대한 초기표시에 주목하여 사려깊은 접근(thoughtful approach)이 되는 단계를 밟으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당신은 소극적인 멤버를 돌아오게 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고, 누군가의 생각 없고(thoughtless/부주의하게) 잘못된 언어로 방해할 때에 아주 사려깊은(careful)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일반적이고 특수한 훈련 양쪽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인 훈련이 성도들에게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첫 번째 훈련은 잘 응답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특별하고 직접적인 봉사(섬김)를 위한 기회들에 호의있게 응답할 수 있는 핵심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다.

Q. 소극적인 멤버에게 닿기위해 특별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나은 건가? 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가?

A. 만약 두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룹도 이 사역을 확실히 할 수 있다:

- 1) 그 그룹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소극적인 멤버 사역을 추가할 수 있다.
- 2) 그 그룹멤버들은 소극적 멤버들에 닿는데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원해야 한다.

첫 번째 이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룹안에 있는 개개인이 이런 아주 예민한 사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또한 당신 교회의 구조와 정책에 달려있기도 하다. 당신은 그 구조안에서 일해야 한다. 어쨌든 이것을 주의하라: 어떤 종류의 그룹을 당신이 사용하든지 간에, 개개인은 훈련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재난(과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Q. 우리교회는 몇 년 전에 스테반시리즈(Stephen Series System)에 등록했으며, 지금 성공적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³⁾ 스테반 사역자들 중에서 소극적 멤버사역을 하도록 할 수 있는가?

A. 스테반 사역자들은 삶에 있어 위기를 맞고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모집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스테반사역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극적 멤버들에게 정말 목회할 수 있다. 다른말로, 돌봄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소극성이 아니라 소극적이 된(to be inactive)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삶에 위기이다. 이런 상황아래서, 스테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 같이 느껴진 필요(a felt need)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 멤버들에 대해 목회할 수 있다.

스테반사역은 성도들이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닿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다. 포함된 스테반 사역자들은 어느 누구이든지 이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스테반 사역자들은 그들이 이런 목회를 시도하기 이전에 특별한 훈련이 요구된다.

스테반사역과 소극적멤버사역 팀 양쪽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상적인 위치이다. 소극적멤버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을 돌아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스테반사역자들에게 질문을 구할 수가 있다.

Q.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최근들어 소극적이 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또는 한참동안 소극적이 된 사람들에게인가?

A. 이것은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조점 때문이다.

교회들은 어떻게 유한한 자료들을 배치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실제들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원하려는 종들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시간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자분류(triage)의 의학적인 개념이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전시에 전쟁터의 희생자로나 다른 큰 재난의 희생자들은 신속하게 세그룹으로 평가되어 나누어진다:

* 그들이 즉각적인 처방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 만약 그들이 즉각적인 care를 받는다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 비록 그들이 즉각적인 care를 받아들이든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살아남는 숫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로서, 의료진은 중간 그룹을 먼저 처방할 것이다. 당신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같은 원리로서 나의 충고는 그들이 보낸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처음 접촉에서 가장 응답적인 듯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가장 최근들어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교회에 감정적으로 가장 연결되어있는 사람들(the strongest emotional attachment)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멤버들이 오래 떠나있는 경우에는 그 만한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그리고 돌아오는 멤버는 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은 또한 무시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다. 기도하고, 우연히 만나고, 특수한 개인들에 접근 하는 것, 모든 것은 먼저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데 돕는 부분들이다.

Q. 사역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가?

4단계: 알려라(Publicize)

A. 이것은 내가 확신하건데, 사람들은 응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회에 동참될 필요를 느끼며, 그리고 그 필요를 그들이 소극적멤버들에 관련짓는데 동참됨으로 만족된다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알리는 것(publicity)은 사람들의 필요와 당신의 제공 사이에 다리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당신이 알리는 노력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당신의 프로그램 제공 사이에 연결을 보는 그런 방법에서 얘기되어야 한다. 당신이 제공하는 훈련경험은 높은 질적이 되어야 하고, 그 질적인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Q. 만약 우리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사용한다면, 소극적인 멤버들은 프로그램 역시 읽고 듣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의 염려나 방어가 증대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가?

A. 당신이 바라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들이 훈련에 대해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읽게 하는 것이며, 그 프로그램에 대해 그들이 듣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알리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해 엄청난 증거와 당기의 시작일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이 말하는 방법 양쪽이 열쇠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한 메시지로 커뮤니케이트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소극적 멤버들을 추적하러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려 한다.” 이와 같은 결과지향적이며 돌봄이 없는 호소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당신은 소극적멤버에게 그들에 대해 돌보고, 소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커뮤니케이트 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관점으로부터 소극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회중을 그런 사랑과 돌봄의 장소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집(가정)과 같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환영하는 회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소극적 멤버들에 더 낮게 관련짓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필요에 대해 예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결과지향보다도 과정지향적의 메시지는 그들의 회중이 하는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해줄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what is to come)를 그들로 준비하게 해준다.

Q. 우리는 너무 많은 소극적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5단계: 훈련하라(Train)

A. 이 문제는 두가지 수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들 양쪽은 훈련에 관련되어 있다. 소극적 멤버들에 대해 무엇인가 정말로 하기 원하는 회중은 다음을 할 필요가 있다.

1.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에게 소극성에 대해서 교육한다. 이것은 소극적멤버들로서 여기 저기에서 좋은 목회를 산출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적극적멤버들이 소극성의 초기단계에 예민해 지도를 배워서 미리 막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소극적 멤버가 돌아오려고 결정할 때에 실수할 것 같은 것을 최소화할 것이다.
2. 특별한 소극적 멤버들에게 의도적으로 닿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소극적멤버사역팀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

일반적인 훈련을 제시하는 경우에 성도들속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내원들, 교회직원들, 소그룹인도자들, 그리고 청년지도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들로 멈추지 말라. 이런 당기(outreach)의 생생한 측면은 가능한 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동적인 멤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건강하게 관련지을수록 더 좋다.

Q. 이 훈련이 광범위하게 되기위해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이

디어가 있는가?

A. 소극적인 멤버를 돌보는 훈련과정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는 어떤 훈련이 포함되어야 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성서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스텝이나 선택된 평신도지도자들이 가르칠 수(to conduct)있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훈련의 중심적인 개념은 결과지향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과정지향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소극적 멤버사역팀을 위해서만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회중들을 교육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4)

- *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태도
- * 우연히 만나게 될 경우
- * 과정지향적 관계성
- * 소극적이 되는 이유들
- * 소극성을 막는 방법
- * 소극성의 초기단계 알아채리기
- * 소극적인 멤버의 처음 접촉
- * 소극적인 멤버들과 관련짓기
- * 소극적인 멤버를 집으로 초대
- *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기

성도들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 많은 주제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다른 분야의 사역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예를들어, *과정 지향적 관련(process-oriented relating)*은 모든 목회와 돌봄에 대한 주요개념(a key concept)이다. 소극성을 막는 것은 당신의 리더십그룹이 단지 소극적인 멤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에 더 낮게 부응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다. *소극성에 대한 초기발견*은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있을 때에 교육받고 예민한 강한 멤버들에 의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인 멤버들에 관련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관련짓는 것으로 바뀌어지는(transfer) 모든 종류의 기술을

취한다.

Q. 나는 소극적멤버 사역팀이 그런 개념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고 본다. 성도중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A. 관련짓는 것에 대한 꼭 같은 개념과 실제적인 의미는 소극적멤버 사역팀에 대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양쪽에 딱 맞다.

교육은 개교회의 책임들 중의 하나이다. 마28: 19-20은 우리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명령인데 “그러므로 가서 가르치라.”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내가 믿기로, 소극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다-소극적인 멤버와 어떻게 연관짓는가, 소극성을 어떻게 막는가, 그리고 소극적인 멤버를 어떻게 교회(집)에 환영하는가.

나는 교회안에서 실제적이고, 사용할 수 있고, 명백한 교육을 향한 진짜 성향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안에서의 삶과 사역들에서 사용될 수도, 또한 안 될 수도 있는 여기저기에서의 몇가지 사실들 그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고, 기술에 근거한 훈련(actual, hands-on, skill-based training)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이 소극적인 멤버에게 효과적으로 관련짓는 방법을 배울 때에, 그들은 모든 관계성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크리스찬 교육이다. 당신은 당신이 평소 때에 사용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훈련을 제시할 수 있다. 아마도 매주 저녁시간 몇 번을 연속해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평신도 아카데미’같은 것을 만들어 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런 것을 세우면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그것을 좋아할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정규적인 성경공부반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Q. 일반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소극적멤버팀의 사역에 들어맞는가?

A.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라.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일 같은 때에, 많은 소극적 멤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당신의 성도들중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소극적멤버

버 사역팀의 추가적인 멤버들이 된다.

일반적인 교육제공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또한 당신의 첫 번째 소극적사역팀의 부분이 될 수있다. 당신은 이것을 강제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명으로 듣고 더 의도적인 봉사에 자원하려 할 것이다. 종종 제공하는 훈련에 의해-매년, 또는 더 자주- 사역을 위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다.

Q. 우리는 당신이 제안하는 소극적멤버 사역팀을 구성하여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보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몇 명의 소극적인 사람들이 각 멤버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6단계: 동참하라(Involve)

A. 처음에는 한두 명이 최상이다. 아마도 만약 그 사람이 은퇴하였거나 다른 경우로 시간이 더 있을 경우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두 명이 낫다.

Q. 그것은 아주 적은 숫자인데,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A. 관계성은 시간이 걸린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관련짓는 데에 있어서 ‘질적인 돌봄’이다.

확신하건데, 만약 당신이 덜 연관적인 접근을 한다면, 한사람이 한번에 5명, 1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관리(handle)”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handling)”은 단지 그들을 조종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문제는, 당신이 효과적이기 바라는가? 또는 아닌가 이다. 제로의 10배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역시 제로이다($0 \times 10 = 0$). 하나 또는 두개 곱하기 1은 하나 또는 둘의 효과성을 의미한다($1 \times 1 = 1$,

2X1=2). 그리고 나는 꼭 “교회로 돌아오는 것”의 의미에서 효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속에서 사랑스런 방법으로 관련짓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소극적멤버사역팀의 효과(영향, impact)를 살펴보자. 다시말해, 10명이 1년동안 사역한다고 보자. 아마도 그 팀의 10명 각각이 소극적멤버 한명을 3개월 동안 관련지으면, 1년에 4명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소극적멤버들 중에 40명이 1년동안 질적인 당기로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며, 나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확인해왔다.

여기에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God's economy)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모든 계산을 넘어서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 한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보자:

샌드라는 우리 교회 속에 아주 변두리멤버(marginal member)였는데, 1년에 6번 정도 밖에 출석을 안 한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여자와 나는 독신여성(특히 20-45세)지원 사역을 시작했다. 60세였던 샌드라는 참석해도 괜찮다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 그룹에 완전히 동참함으로써, 점점 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그룹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몇 년 전에 다른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소극적 멤버-이 우리교회에 합류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극적인 아들과 그의 가족이 우리교회에 합류했다. 당기의 순환(cycle/주기)은 아직도 계속 된다: 샌드라는 아직 사람들을 우리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것의 전체 요점은 소극적인 멤버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목회함으로써, 당신은 그 사람이 역시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닿는 수십 배의 혜택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때에, 누가 당신을 막을 수 있겠는가?

Q. 소극적인 멤버에게 의도적으로 관련짓는 데에 포함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A. 훈련의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구비될 수 없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을 많이 하더라도 일에 알맞지 않는(ill-suited) 사람은 결코 구비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소극적멤버에 접촉하는 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갖기 원치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에 좀 더 맞는 다른 활동들에 동참하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격려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해(harm)가 없다- 사실, 그런 교육경험은 어떤 타입의 사역이 그들에게 좋은지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잘 안 맞는 것(unsuitability)”은 단지 훈련이 문제라는 것이 판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아직도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정을 그들 자신이 하지 못한다면 그때 당신의 결정(firmness)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Q. 소극적멤버를 접촉하기 위해 사람들의 동참을 형성화함(formalizing)에 있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에게 관련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가?

A. 그렇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 될 때에는, 그나 그녀는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성(gender)을 섞는 것은 관계성을 수립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보태는 격이 된다.

소극적인 멤버는 그의 소극성에 대해 동성끼리의 관계성에서만 다루어야 될 정도로 충분히 예민한 상황을 만드는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

Q. 어떤 종류의 우선적인 관계성이 소극적인 멤버와 그들을 방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좋은가? 그들은 서로 잘 알아야 하는가, 조금 알아야

하는가, 또는 전혀 모르는 사이어야 하는가?

- A. 관계성이 어디에서 시작할 것 인지에는 덜 중요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공통적인 실수는 가까운 관계성이 꼭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비록 서로 서로가 전혀 "모르는(stranger)"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이고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점을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6차선의 다리를 만든다.

- Q. 소극적멤버를 방문하는 데에 동참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심령이 늘 깨어있게 하는가?

7단계: 지원하라

- A. 그들의 책임들의 부분으로서 소극적인 멤버들에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닿는 데에 동참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이든지 지원, 문의 그리고 확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미팅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 팀 멤버는 아주 특별하게 그들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들의 느낌들, 그들이 옳게 한 것, 그들이 잘 하지 못한 것 등등. 반드시 인도자(a definite leader)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목사가 될 것이다. 인도자의 역할은 중요한 안내중의 하나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고 제 코스에 있도록(on track) 하는 것이다. 인도자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한다. 인도자는 미팅이 격려, 확증, 그리고 지원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룹의 심령(마음)상태를 깨어나 있게 하는 또 다른 것은 그룹이 결과 지향적 보다는 과정지향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꼭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 질 때, 그룹의 사기는 경쾌하게 올라가는 것이

다.

Q. 얼마나 종종 이런 지원미팅을 가져야 하는가?

A. 한달에 한번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달에 두 번도 괜찮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 자신의 상황에, 그리고 당신 멤버들의 바램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큰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훈련을 원한다; 그들은 확실한(명백한) 지원을 원한다. 그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들의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

Q. 이런 모임시에 무엇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A.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이 진행될 수 있다.

1. *지도감독과 지원.* 적어도 세 사람이 그들의 돌봄관계성을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그들의 동료와 지도자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한다.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 사이가 적합하다.

2. *계속교육.* 관계성기술에서 팀멤버를 위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듣는 것 과 느낌표출; 크리스찬 견지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기술을 돕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소극적 사역에서 함께 하는 분(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결정짓는 데에 그 분(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3. *개인적인 나눔.* 팀멤버는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좌절을 표현할 것이고,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함께 한 경험으로 축복을 표현할 것이다.

4. *행정.* 거기에는 꽤 많은 행정적인 업무가 있다 - 지도자는 얼마나 종종 팀멤버가 그들의 소극적인 멤버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할당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5. *기도지원*. 팀 멤버와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그들은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리스도는 이미 소극적인 멤버속에 계셔서 그들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준비가 되어있다. 모든 소극적 멤버사역은 주님의 뜻을 가져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 니라”(마18:14).

이런 모든 것은 사기를 향상시키고, 본질적으로 팀멤버로 하여금 소극적인 멤버들에게 관련하는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모임들은 확증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모든 사람이 출석에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은 서로 서로와 또 그들이 목회하는 소극적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 음식을 함께 먹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마도 지도감독과 계속교육 사이 휴식 시간일 것이다. 많은 상호사역과 비형식적 배움은 커피와 쿠키먹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

Q. 신뢰성(confidentiality)은 어떤가 - 팀 미팅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 어떻게 나는 알 수 있는가?

A. 당신을 위해 몇가지 지침을 얘기하겠다.

- * 팀멤버에게 소극적 멤버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 * 소극적인 멤버가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팀멤버에게 말하지 *말라*.
- * 목회관계성에서 전혀 유익이 없는 소극적 멤버 삶의 사사로운 것 들은 다른 팀멤버들과 나누지 *말라*.
- * 목회관계성에 대해 팀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 * 공적인 기도 시간이나 간증시간에 소극적 멤버의 이름이나 목회관계성에 대해 자세한 것을 언급하지 *말라*.
- * 그나 그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나 그녀를 위한 다른 종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소극적 멤버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말라*.

Q. 소극적인 멤버와 질적인 관계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개인과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A.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좋고, 지속적인 질적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이다.

그룹은 팀멤버의 관심을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갖도록 부드럽게 지적할 수도 있다: 누구의 필요가 달성될 것인가? 부응해야 할 목회는 소극적인 멤버의 필요에 대한 것인가, 또는 적극적 멤버의 필요가 충족될 것인가?

종종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 멤버는 소극적인 멤버와 아주 가까이에서 달라붙어 있기보다는 뭔가 거리감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경험할 것이다. 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경험이 다를 때이다. 적극적 멤버는 이것을 처음 불일치의 시간으로서 보게 될 것인데, 반면에 이전에 소극적 사람은 전에처럼 같은 종류의 동참(포함)을 기대한다.

이것은 왜 전성도가 동참 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 멤버를 다시 동화시키는 것의 과정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이다.

당신이 따르는 단계들을 요약하면: 1) 기도하라 2) 결정하라 3) 계획하라 4) 알리라 5) 훈련시키라 6) 동참하라 7) 지원하라. 이런 7가지 단계들은 조직적인 계획의 핵심을 형성하는데, 당신이 수립한 사역이 시종일관적이고, 헌신되고, 그리고 효율성을 확실히 해줄 것이다.

Notes

1. Martin L. Smith, *The Word is Very Near You: A Guide to Prying with Scripture* (Cambridge, MA: Cowley Publications). 1989.
2. Kennon L. Callahan, *The Leader's Guide: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3. For information about Stephen Series system of lay caring ministry, write Stephen Ministries, 8016 Dale, St. Louis, Missouri

63117-1449, or call (314) 645-5511.

4. Kenneth C. Haug, *CARING FOR INACTIVE MEMBERS: How to Make God's House a Home* (St. Louis: Tebunah Ministries), 1990.

제 6 장 민감성과 이해력

“한사람이 울고, 다른 사람은 소금을 맞볼 때에 여러분 사이에
그런 하나 됨(*oneness*)이 있도록 하라.”

소금은 언어에 있어 은유의 풍성한 자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 5:13) 라고 예수님은 방금 산상보훈에서 설명한 그들, 즉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삶의 음식에 맛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극적 멤버에게 적용시키면, 그것은 좋은 이미지이다: 당신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속의 잘 꾸며진 축제에 소극적 멤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민감성과 이해력은 질적인 관계성인데 예수님이 의미한 측면에서 보면 “소금 친” 관계성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종종 이런 특질들이 최소화되고 있거나 또는 적극적 멤버와 소극적 멤버 사이에 관계성에서 둘 다 없다. 그 대신에, 적극적 멤버는 마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없애는 소금”이라는 또 다른 은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좋은 암시는 아니다. 소극적 멤버는 고통속에 있다; 그나 그녀는 어떤 측면에서 거의 확실히 상처받고 있다. 그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은, 민감성과 이해력이 없이 개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한 그런 행동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관련짓는 데에서 과정지향적으로 당신이 구비됨으로 당신은 바뀌어질 수 있다.

Q. 소극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서서 얘기하는 것이 알맞은가?

A. yes, 그것은 알맞다. 알맞은 것? 그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명령적이다.

당신의 질문은 아주 잘 표현되었다. 당신이 물은 질문과 당신이 받은 질문사이에는 주요 차이가 있다. 당신의 질문은 소극성을 하나의 징후로서 아주 알맞게 다루고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지향적

질문이다.

대신에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소극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알맞은가? 그 질문은 소극성이란 것은 그 안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시하기를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어떤 해결을 보여주려고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지향적 질문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no’이며, 그것은 정말 부적합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소극성 *때문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당연하다.

Q. 소극적인 멤버가 들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A. 그들은 어떤 것이라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Q. 나는 소극적인 멤버들을 접촉하는데 어색(거북)하다. 교회는 그들을 몇 달이나, 또는 1년 정도를 접촉하지 않는다. 이것과 같이 차가운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A. 당신이 맞다. 차가운 가운데 떠난 소극적 멤버들이 있으며, 따뜻함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을 그냥 방문하라. “요즘 어때요?”라고 물어보라. “잘 지냈어요?”라고 물어보라.

당신 회중에 의한 나쁜 소홀함(notorious neglect)은 소극적 멤버의 집에 당신이 나타날 때에 비탄함을 입게 될 것이다. 내가 *나쁜* 소홀함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입증의 우세함”이 회중의 부분에 대한 둔함이나 피동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닿아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제안하는 예이다.

내 생각에 나는 비탄함에 대해 농담하지만, 그러나 사실 솔직함이다. 확

실히, 당신은 사과할 수 있다. 소홀함의 경우에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소극적 멤버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대해 사과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의 멤버이다. 그 몸은 별로 연결되지 않은 조개껍질들이 아니라, 분리되어있거나 독립된 생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unity)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모든 것에 상처가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하라. 만약 그 사람이 무시되어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면 그 사람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소극적 멤버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문하는 동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분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바로 당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나와야하는 것은 분노이다.

많은 경우에 회중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소극적 멤버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사탄은 이런 죄의식 느낌이 어떤 접촉(닿기)이고 간에 조용히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밀 때 쾌재를 올린다.

접근하는 것에서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미리부터 너무 염려하지 말라—그냥 방문하라. 소극적인 멤버를 신중(성실)하게 —그러나 너무 창백해 지도를 경직되지는 말고—동료 인간으로서 관련지으라.

Q.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는 데에는 대개 한가지 주요 이유가 있는가, 또는 몇가지 이유들이 있는가?

A.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 데에는 전형적으로 몇가지 이유들이 있다. 이런 위기들은 개인적인 위기, 대인관계에서 생겨지는 문제들, 그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유들은 몇 번에 걸쳐 쌓인다. 그러나 종종 가장

최근의 사소한일이 가장 괴롭히는 일이 되어(‘낙타의 등을 부수어버리는 밀짚’ 역할) 소극적인 멤버가 되어버리는 시점이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극성이란 것은 매우 복잡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소극적인 멤버들은 최근의 사건을 그 이유로 지적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원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포함되어 있었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들(layers)을 말로서 벗겨내 버릴 때 만이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 멤버들로부터의 진짜 이유를 숨길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이다.

원인들은 사람일수도, 또는 기관일수도 있다 - 즉, 그것은 사건, 상황 그리고 소극적 멤버 삶에 연결된 태도, 또는 회중 자체 안에 요인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인들은 덩어리(cluster, 떼)로 오는 것이다. 때문에, 종종 개인과 기관적인 요인들 양쪽이 그 사람의 소극성에 근거(the root)이기도 하다.

Q. 영적인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즉, 소극적이 되는 것과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사이에 관계성은 무엇인가?

A. 소극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에서 명백하게 영적인 것이 아닌 이유들의 연합들로 그렇게 된다.

내가 얘기했듯이 그들은 관계성에서, 사회생활에서, 심리학적인, 그리고 가족 때문에, 또는 개인 또는 가족위기 때문에 소극적이 된다. 대부분의 소극성이 믿음의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말한 것을 보라.

나의 믿음은 내가 소극적이었거나 그 이전(적극적이었을 때) 양쪽에 있어 나에게 상당한 의미였다. 나는 영적으로 버림받았고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였다. 나는 열등한 크리스찬인가, 또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동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 나는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할지 몰랐다.

주요 질문은 목회에 대한 것이지, 분석하거나 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있을 법한 거만함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의 태도는 전혀 사역이 아닌 어떤 싫은 사역-믿음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소극적멤버-을 하는데 있어 우리를 준비시킬 수도 있다.

Q. 어떻게 적극적인 것이 소극성이 생기도록 하는 일에 마귀역할(devil)을 하는가?

A. 마귀는 매우 적극적이다. 나는 항상 그렇다(100% of the time)고 믿는다. 그 다음질문은, 마귀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타락한 이 세상에, 답은 “우리 모두 안에서” 이다.

마귀는 회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갖지 않는(inconsiderateness) 상황을 만든다. 멤버들의 삶 속에 개인적인 위기들은 아마 마귀의 소행일 수도 있다. 소극적인 멤버는 또한 신앙의 위기를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 속해있는 이런 우주 속에서(마귀가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귀의 소행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사랑스런 멤버들을 속박하고 복종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귀의 삶은 오늘에 있어야 할 사랑스런 행동을 뒤로 미루며 “내일 하도록(you can do it tomorrow)” 만드는 것이다.

Q. 그러나 죄란 것은 소극적인 멤버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가?

A. 나는 죄란 것이 어느 사람 안에든지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은 -기쁨과 감사를 덧붙이며- 나는 죄인인고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워십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하다면 손을 드시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을 든 적이 없다.

소극적인 멤버와 교회는 화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상호임무이다. 화해는 쌍방향(two-way street)이다. 소극적인 멤버와 교회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연회테이블을 예수님이 마련하셨다.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할 때에,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 안에 치유와 용서가 필요함을 보게 된다. 이사야 43:19절에서, 하나님은 소극적 멤버에 대해 교회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Q. 그리스도는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A.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종종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이는 소극적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아주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다. 교회소극성에 대해 내가 인도한 워십에 참석한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워십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결석에 대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 사람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도전하였다.

나는 그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크리스찬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증하지는 않는다. 동료멤버들을 상처내어 성나게 한 능동적멤버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셨다: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뎐대 차라리 연자 밧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눅17:1b-2

특히 잘 들어보기도 전에,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나는 그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눅 6:41

Q. 소극적 멤버들은 상당한 돌봄, 잘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역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계속 강조한다. 언제 소극적 멤버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대해 다 관심을 갖기 시작 하는가?

Q. 나는 동정심, 민감성, 이해력 그리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제 소극적 멤버들이 그들 자신의 헌신과 제자화의 필요성에 직면하는가?

A. 이런 질문은 능동적 교회멤버들이 전형적으로 소극적인 멤버를 보아왔던 비판주의의 과거 태도를 버리게 한다.

동물이 심각하게 다쳤을 때에 종종 어떤 비밀스런 구덩이에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을”것 인데, 거기에서 죽음이나 회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self-centered)행동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적인(selfish) 행동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 상당히 상처받고 있으며, 그들의 속성은 살아남기 위해 “숨어있는 격”이 되기도 한다. 종종 적극적 멤버들은 이것을 이기심(selfishness)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간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것은 목회, 양육, 돌봄이다. 그들이 살

아남는데 필요한 것을 얻은 후에야 “십자가를 다시 지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종정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들은 종종 헨리뉴먼이 명명한 “상처있는 치유자들(wounded healers)”이 되는데, 그들 자신의 고통의 깊이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구비된 사람들이다.1)

Q. 적극적 멤버가 다른 사람이 소극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비판함으로 서이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할 때에 그들의 부모들을 비열하게 바라봄으로. 무시함으로. 다른 의견(생각)에 대한 아량이 없음으로.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당신에게 어떤 것이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하는지에 대하여, 그것이 대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소극적이 될 수 있다.

Q. 만약 모든 사람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다면,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친 감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약한 피부를 갖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A. 비평주의가 그들을 휩싸도록 하는 사람들은 부둣가 뒷벽을 때리는 파도와 같다 -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독특하다.

그러나 내가 강하게 표현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goodness)”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받을 만 할 때까지 구원을 수여하는 것을 기다려야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이다.

같은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to be holy) 한다는 우리의 책임에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만약 타락이 세상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

다.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다. 사실 인간 자체도 그렇다고 사도바울은 말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8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는지 말할 필요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꾸려고 어떤 일이든지 해보려고 한다. 변화라는 것은 약해졌을 때 충분히 힘이 주어질 만큼 충분히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다 - 즉, 그들의 방어(거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다.

이전에 소극적 멤버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능동적 멤버들에 대해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몇 마디가 있는데 이런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지 마라. 단지 돌봐 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다시 믿도록 우리를 도와 달라”

Q.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A. 그들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물어보면 - 당신이 물을 때에 입은 가능한 다물고 귀는 열어놓도록 하라 - 대부분의 소극적 멤버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불평을 말할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게 관련짓는 데에 잘 활용 될(to be well-informed) 것이다.

교회들은 그들이 소극적이 되기 오래전에 그들의 필요들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교회들은 종종 새신자 관리(new member orientation process)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새신자가 무엇을 필요(new member's needs)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정보는 대개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이 채워야 할 구멍들(slots)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어디에다 놓을까요?”

“만약 우리가 소극적 멤버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

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물으면 그들은 말할 것이고, 그것들은 분명히 수용적이다. 당신이 묻는 방법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소극적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할런지에 대해 기다리는 인상을 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조각 조각 짜를 준비가 되어있다면, 당신이 옳지마는 당신은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적으로 비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에 비판적인 것이 섞여있고, 또 제스처어가 비판적이 되면, 당신의 말이 비록 옳다고는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반대도 역시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순수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비록 당신이 선택하는 말이 좀 서툴다 할지라도 ‘돌봄’은 전달될 것이다.

Q. 개인적인 필요와 복음의 목적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

A. 분명히 개인의 진실한 필요와 복음은 목적이 다르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들은 일치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화해, 정의, 그리고 인류의 성화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능동적이든 아니든—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만약 회중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나쁜 일까지)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A. 대부분의 소극적 멤버들은 아주 실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 목회를 위한 필요와 그 목회를 위해 구비될 필요하다. 누군가의 필요가 비현실적이란 것은 정말로 예외인 것이다.

이 질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관심은 대부분이 가설적인 예이다: 만약 그 사람이 비싼 리무진에 태워 교회로 데려오기 바란다면 어떻게 것인가? 예배시마다 17개의 파이프를 가진 올겐을 연주해달라?

“주로 가설적인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예를 들어, 목사가 그를 매일 또는 매주 심방해 달라는 것. 비록 당신이나 나나 이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지만, 양육과 관계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필요인 것이다. 만약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소극적 멤버에 대해 항상 침묵 가운데 물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Q. 소극적 멤버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가?

A. 그렇다.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 - 교회로부터 더 오래 떨어져 있을수록, 그들은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소극적인 멤버는 돌아오는 것에 대해 아주 마음이 열려있고, 교회에서 그들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더 오래되고 더 멀어질 때, 그들을 관련짓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또한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왜 소극적 멤버에게 초기에 닿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누가 소극적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닿아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Q.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 될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초기의 신호는 무엇인가?

A. 시간 이전에, 또는 아주 초기 단계에 말해주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다:

- * 불규칙한 예배출석
- * 헌금하는 습관이 바뀜
- * 프로그램 참여가 바뀜
- * 떠나는 것에 대해 얘기함
- * 의지하는 것이 줄어 듦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너무 많이 말한다. 또 다른 초기신호는 자신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힌트를 비치는 것이다. 이것은 테스트이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런 힌트를 알아차리고 더 정보를 요구하기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만약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지원이 전혀 없다면, 회중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음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소극성은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Q. 관계성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때, 왜 그들은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는가?

A. 아마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은 아마도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던 안전과 사랑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무엇이 지금? 일어날법한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라.

더 중요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떨어져있는 회중에게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결(ties)은 우연이거나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묶음(bond)은 희망의 엄청난 출처(source)이며, 회중들이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목회를 생각하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기동력)이 된다.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단지 회중만이 소극적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멤버들도 또한 돌아가고 싶어 한다.

Notes

1. Henri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 (Garden City, NY: Image Books), 1979.

제 7 장 특별한 관심들

이 장에서의 중심내용(grouped)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인데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분명히 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내용들에서 실제적인 면들을 나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Q. 소진된(burn-out) 멤버들에게는 어떻게 힘을 줄 수(reactivate) 있는가?

A. 근본적으로, 당신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진된 멤버들이 그들 스스로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는(reactivate) 분위기를 만드는데 돕는 것이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들을 묵회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당신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나친 일(overextension)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여, 미래에 잘못되거나 남용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한 것에 대해 인정하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No’라고 말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코치로서 당신 자신을 제공하고 돕기 위해 힘을 주는 리더(cheer leader)가 되라. 만약 그들이 소극적이 될 정도로 회중 안에서 소진되었다면, 이런 특징은 그들의 나머지 삶에도 또한 입증이 되는 좋은 기회이다.

주장적이 되는 것에 대한 훈련코스나, 또는 자료(책)들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어떻게 주장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1) 교회의 측면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비시킴으로, 당신은 모든 다른 측면에서 역시 그들을 돕게 될 것이다 - 가족, 일터, 그리고 사회.

Q. 새 신자가 즉각적으로 소극적이 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들은 동참하는 데에 단지 미성숙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being back) 있는가?

Q. 내가 보니까 소극적 멤버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1) 이전에 적극적이었으나 지금은 소극적인 경우; 2) 한번도 적극적이 되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 후자의 경우일 때 우리는 어떻게 접촉(reach out)하는가?

A. 당신은 당신의 회중을 잘 살펴보아서 무엇이 새 신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서술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회중과 묶어진 적이 없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그것에 대해 해야 할 놀라운 기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화(assimilation)라는 것은 엄청난 범위에서 당신이 하기에 달려있다. 릴리 쉬러(Lyle Schaller)가 지적 했듯이 묶음(bonding)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은 회중 안에 친구들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은 즉시 관계성을 수립하는 (relationship-building)

그룹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묶어주는 것은 새로운 멤버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에(예, 직책을 맡는다는가) 일어나거나, 또는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제공되는 일을 맡을 때에도 일어난다. 2)

묶음(bonding)은 멤버가 동참된 이후에 즉시 일어날 필요가 있다. 당신의 회중은 동참되는 모든 사람이 최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정 (mechanisms)을 만들어야 한다.

Q. 오랫동안 소극적이 되어 온 사람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는가?

A. 확실히 있다, 그리고 분명히 내게 다가오는 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우리가 시작만 한다면! 확신하건데, “오랫동안” 소극적이 되어온 사람들은 -1년, 2년, 또는 10년 이상-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전에 한때 소극적이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하늘의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고, 교정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 감사드린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의미가 없다. 아무래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판적이지 않고 신실한 구세주와 같이 되기 위해 나는 기도한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서 인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회중은 그 사람을 결코 개인적인 방법에서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제스처어는 소극적인 멤버가 돌아오는데 촉매역할(접촉반응)이 될 수 있다. 비록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목회는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이 될 것이다.

Q. 예배는 잘 참석하고 헌금은 잘하지만, 다른 것에는 능동적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더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가?

A.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라 -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관심분야, 교회에 대한 견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런 상호교환(interaction)의 목적은 탐구적인데, 듣고 배우는 것이다. 목적은 당황하게 하거나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 방법에서 관련지으라. 그리고 그들의 동참 수준에 대해 그들을 알아보지 마라. 긍정적이 되고, 인간으로서 그들을 확증하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은 도전을 받을 것인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회중 안에 더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동참될 기회들이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양을 갖추고 흥미를 가져야 한다,” 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격파(파괴) 증명서를 쓰는 격이 된다. 나는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효과적인 평신도목양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할 때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생활에서 10여년 이상 능동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그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시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포함되었다.

Q. 재정지원(헌금, 등등)은 잘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소극적이 되어질 때에 재정적인 지원은 최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첫 번째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참여이다; 두 번째는 예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끊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아직도 회중에 헌신되어있고, 묶여있다고 느끼며, 돌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Q. 당신은 “두 번만 오는(two-timing)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즉, 크리스마스와 부활절(Christmas and Easter/C and E)에만 교회에 오면서도 아직 멤버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A. 그들이 "한번도 안 오는(no-times)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일단 기쁨을 가져야할 것이다. 비록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그들은 복음에 접근하고 있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입장에 있으며 당신의 포용의 따뜻함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능동적 멤버들은 가능한 한 많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더 악화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빈정대거나, 비열한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한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평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치 않는 사람이 성탄이브 예배에 참석키 위해 교회에 갔는데, 안내원이 갑자기 교회 벽을 받치는 시늉을 하며 “당신이 오니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라는 말을 해버렸다.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런 빈정담(비꼬는 말)은 그 사람을 다음 크리스마스이브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감정을 분출시키지 말고) 맞이하고 친절하게 돌봄

으로 환대하는 스타일로 그들에게 관련지으라. 그들을 보게 되어 당신은 기쁘다고 말하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기피하지 마라. 교회의 이런 특별한 축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적극적과 소극적 멤버들 양쪽에 비치도록 하는 황금기회이다.

교회에서 좋은 질적인(high quality) 관련에 덧붙여서, 당신은 또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돌볼 수(follow-up)가 있다. 그냥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교회가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원하여 당신이 얘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만남(대화)의 목적은 아니다.

나는 부활절 바로 직후에 담임목사님이 교회신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부터 와서 방문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나오다가 다시금 교회("home" church)를 방문하였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방문이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참석한 소극성에 대한 다른 컨퍼런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C와 E" 크리스찬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 Q. 우리교인들 중에는 배우자는 전혀 안 나오지만 아주 능동적인 멤버가 있다. 아무도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 Q. 피동적인 사람이 있는 능동적 가족들이 독특한 목회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다른 멤버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의 계속적인 동참에 지원적이 될 수 있는가?
- A. 그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아름다운 일요일 아

침에 교회 때문에 배우자를 혼자 집에 남겨두어 커피 타먹고 혼자 신문 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기를 돌보거나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안 나오는 가족 때문에 능동적인 멤버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괴로움을 충분히 감내하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를 그 사람이 알게 하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자리에 앉도록 하고 어린애를 데려오는 젊은 엄마에게도 많은 배려를 하라.

다른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보고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교회에 갈 때에, 나는 늘 혼자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둘씩 둘씩 앉는다. 만약 내가 자녀를 데리고 오면, 나 혼자 애를 달래느라 엄청 애쓴다. 만약 당신이 애를 두명 이상 데리고 오면, 당신은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모든 압박은 사람들이 애들을 귀찮아하고 멸시하는 눈초리에 의해 더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 안 나오는 나의 남편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싸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헌금내는 것을 불평하거나, 아예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수동적인 저항이 있는데, 일요일에 애기를 보기 싫어하고, 다른 할일이 있다 핑계대고 모임에 나가고, 또한 가족간의 책임들을 나누는 것을 무시한다.

그런 입장이 되는 것(신발을 신는 것)은 불편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출석을 얼마나 쉽게 그만두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듣고 돌보는 목회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멤버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한다. 만약 당신이 해답을 주어야겠다고 느낀다면, 그런 목회에서 마지못해하는 역할이라고 생

각될 수도 있지만, 요청되는 것은 당신의 입(mouth)이 아니라 당신의 귀(ears)이다.

Q.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배우자에게 닿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있는가?

A. 몇 가지 아이디어는 이렇다:

1. 능동적 멤버가 그의 피동적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만들라. 이것은 너무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텔런트 쇼, 음악회, 어린이 예배, 저녁식사 등등. 소극적인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런 행사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도 좋다.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와서 어떤 집에서 할 수도.) 이런 행사에서 능동적인 사람들은 훈련받은(trained)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한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교회 올 때에 “오 천사와 악마가 오는구만, 어느 쪽이 악마인가” 라고 어리석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있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2. 내가 아는 한 목회자는 소극적인 배우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목적은 강압적인 설득이나 그들을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더 알기위해서이다. 종종 일어나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는 교회를 더 이상 경쟁자로서 보지 않았고, 능동적인 멤버를 위한 집 문간에서 긴장이 풀였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관계성의 개발은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면 너무 좋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나의 목표는 단지 그 사람을 알고 그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Q. 어떤 가족은 장례식후에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죽음 이후에(그리고 이혼 이후에, 역시) 당신 옆에 아주 친숙한 사람

없이 친숙한 환경에 있게 되기가 아주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의 하나는 중요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다: 감정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교회로부터 또는 교회가 포함된 아주 질적인 돌봄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특별히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고 하자. 절박한 외로움이 있다. 그 사람은 혼자라는 것을 느낀다. 슬픔에 대해 필요한 에너지를 다 사용한 나머지,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필요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

충격과 고통이 지나가면서, 걱정이 시작 된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들은 경제적인 영향에 관련되어 있다. 일을 하나 하고, 두가지 일, 더 나아가 세가지 일을 하기에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게다가,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슬픔의 단계에 의존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그 결과로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교회생활을 꺼려하기 시작한다.

이런 영향들은 또한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슬픔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기에 회복되는 동안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치 못한다. 더 우리가 접촉하지 않을수록, 특히 교회멤버들에 의해 정기적인 돌봄을 받지 않을 때, 교회로 돌아오기는 더 어렵다.

당신은 아마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영향을 무시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 이런 영향들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들은 혼자이다. 그들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전에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동료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혼자일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들과 관련지어야 하는가? 미묘하게도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선행되는 것은 이유(원인)들에 대해 당신의 질문에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간단하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좋은 크리스찬 돌봄을 제공하라.

소극적인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때

- Q. 나의 가족중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서 나는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 가족중의 소극적인 사람에게 설교조로, 또는 너무 밀어붙이지 않고 그의 소극성에 대해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
- Q. 우리성도중의 소극적인 멤버는 나의 가족이다. 나는 아주 불편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A. 돌봄과 듣는 것에 대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그러나 소극적 멤버가 당신에게 관련지을 때 생겨지는 다이내믹들은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 특별한 상황을 창조한다.

당신의 엄청난 개인적인 투자는 그 과정에 어려움을 더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에 대한 당신의 접촉은 다른 소극적 멤버들보다 훨씬 더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가끔 당신의 허를 깨물면서 주의해야 하고, 당신이 열 받아 있을 때에도 참아야 할 경우가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이 관여되어 있을 때 조용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로서 시작하라. 무엇인가 하기위해 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10대 아들에 대하여, 당신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러 이러한 것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나는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도, 나는 그를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

는 좋은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게 하소서.”

그러는 동안에도, 당신은 해온 대로 당신의 교회활동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좋은 모델(a role model)이 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순수하게 그리고 충분히 기능을 하라 - 외부에 대한 겉치레가 아니라 당신존재의 아주 깊은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으로.

당신은 특별행사에 계속적이 아닌, 그리고 예민하지 않게 부드러운 초청장을 보낼 수 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전화하여 이렇게 소리 질러서는 안 된다: “당신은 너무 게으르다! 일어나서 나와함께 교회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너와 헤어지겠다!” 이것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인 초청에 더 치중하라: “같이 갈래?” 만약 우연히 당신과 같이 간다할지라도, “네가 계속해서 다시오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는 말라. 그 대신에, “네가 여기 와서 좋다. 오늘밤에 너랑 함께 앉아있으니 좋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끝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입을 봉하라. 다른 말을 추가하지 마라.

진행하는 다른 방법: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접촉하도록 하라. 여기 그러한 예가 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엄마에게 한일이다. 나는 여전도회장에게 연락해서 혹시 여전도회원들 중에 나의 엄마와 가까이 지낼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은 엄마와 아주 가까이 지내서 결국 1년쯤 지난다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딸로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 Q. 소극적인 멤버가 나의 가까운 친구일 때 어떻게 내가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소극적인 친구와 얘기할 수 있는가?
- A. 소극적인 가족에게 대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좋은 소식(good news)은 관계성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안 좋은 소식(bad news)은 그들에게 닿으려고 할 때에 가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작할 때에 당신의 태도가 열쇠이다. 만약 당신이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겸손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은 동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은, 친구의 종(servant)인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것이다.

Q. 내 친구 한명은 우리교회에 잘 출석하고 주일 성경공부 반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비크리스찬 종교(예,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적극적으로 되 버렸다. 이런 나의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확실히, 크리스찬 신앙의 주장에 대한 발표로 바로 옮겨가는 것은 무책임한 소치이다. 오히려, 당신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친구가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때가 왔을 때에, “당신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물을 경우 표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낫다.(벧전 3:15). 만약 당신 친구에게 얘기할 기회가 온다면, 그가 종교를 왜 바꾸게 되었는지를 발견하라. 당신친구가 영적으로 처해있는 입장을 아는 것은 그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잘 꾸미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끔 사람들이 비크리스찬들에게 둘러쌓여 있을 때, 그들은 과시하려는 의도로 크리스찬 냄새를 풍기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마라 - 그것은 거의 항상 가식(phony)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당신의 친구는 그런 행동을 진실되게(있는 그대로)보지 않을 것이며, 그로인해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히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대로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당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당신친구에게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는가!(마 5:16).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은 당신의 빛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전부이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그의 새로운 신념(신앙)에 대해 말하기 꺼려 할 수도 있고,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유익보다는 아마도 해가 더 될 것이다. 그러나 친구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 관심

을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마 그가 당신에게 그의 신앙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신만이 그를 꼭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썼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고전 3:6). 아직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안에 있는 도구(연장)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Q.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난 좋은 친구에게는 어떻게 접근 하는가?

A. 당신이 그 사람을 추적(사냥)하지 않는 한 친구와 함께 소극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이것은 소극적인 멤버를 방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극적인 멤버일 경우에는 그가 그런 주제를 얘기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13장에서 더 얘기하겠다). 그러나 친구와는, 크게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동참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그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특별한 경우: 교회반대자들

Q. 만약 당신이 정말 교회로 돌아오기 원치 않는 소극적인 멤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성도들에게 심각한 해를 주며,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Q. 계속적인 문제아가 스스로 교회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대신 다른 응답방법이 있는가?

A. 나는 이 방면에 대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다:

반대자들이란 만족할줄 모르는 요구를 자기들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주로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을 공격한다. 이런 공격은 본성에

서 이기심인데 세우기보다는 파괴하는 것이며, 종종 리더십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다.3)

교회안에서 반대주의의 존재는 ‘반대자들인 소극적 멤버’에게 오게 될 경우 특수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것은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윤리적인(윤리적인 강조)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며 또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 몇가지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다.

- *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가?
- * 그 사람의 행동은 세우는 것인가, 파괴시키는 것인가!
- * 그 사람의 행동은 성도의 전반적인 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외부사역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 그 사람이 떠난 후에 환경과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 졌는가?
- * 그 사람이 돌아오면, 똑같이 상황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서 그 사람이 진짜 반대자라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은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가끔 가장 좋은 돌봄과 사랑의 행동은 -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경우이다. 분명히 당신은 그 반대자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것 이상이다. 반대자들은 그들 자신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Q. 반대자들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소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엄청나다 -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 그이상일 것이다. 소극성에 대해 내가 워십을 인도하고 있을 때에, “교회반대주의가 소극성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단원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간단히 얘기한 다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반대적인 갈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보았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런 반대

자들이 있는가?” 거의 75%가 손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소극성에 영향을 주는가” 라고 되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다. 항상 영향이 있는데, 특별히 1:1의 상호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75%였다 그랬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도 거의 똑같았다.

가끔 사람들은 계속되는 듯이 보이는 건강치 못한 언쟁을 일삼으려 한다. 그들은 떠난다. 그리고 여러 번 그들은 이것이 병든 상황에 대한 건강한 응답이라고 보기도 한다. 갈등 그 자체는 아주건강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생겨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갈등은 병(sick)이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중서부에 살고 있는 내 삼촌은 지난 2년간 교회가 쪼개어지는 불상사를 겪었다. 떠난 반대자는 너무 상처를 많이 내고, 그 교회의 멤버들 사이에 그런 무력감은 또한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같은 일을 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는 새 교회에서 이런 같은 일을 하여 쪼개어지는 결과를 또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반대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종종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이것은 염려와 슬픔, 낙심, 그리고 좌절을 포함하여 다른 가능성들을 유발한다. 그런 분위기에 누가 일원이 되려 하겠는가? 건강한 사람들은 안한다. 목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전체성도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Q. 당신이 말하는 것은 반대자인 소극적 멤버에 대해 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또는 적어도 한번은 방문해야 된다는 것인가?

A. 내가 추천하는 것은 소극적멤버로서 반대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하라.

실제적인 반대적인 갈등동안에, 당신은 마태 18:15-17에 요약된 처방전을 따르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독설을 발설하고, 그리스

도의 몸에 해를 입힐 것 같이 보이면, 내버려두라. 예수님은 유다를 내버려두었다. 반대자들은 사역에 아주 수용적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

Q. 비평하는 모든 사람은 반대자라는 말인가?

A. 그렇지 않다. 사실, 비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자들이 아니다.

다른 특징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문제들을 지루하게 질질 끌어내는 탐욕스런 것이다. 반대자들은 목표가 아주 건강치 못한 엄청난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다. 비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뜨리기 보다는 세우기를 원한다. 만약 그들의 불행이 알맞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전체성도의 건강을 해치는 방법에서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들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 책임적인 회중은 그들에게 닿을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다리가 되고,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들어주라.

Notes

1. Ruth N. Koch and Kenneth C. Haug, *Speaking the Truth in Love: How to Be an Assertive Christians* (St. Louis: Stephen Ministries), 1992.
2. Lyle E. Schaller, *Assimilating New Member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78), pp. 74–77.
3. Kenneth C. Haug, *Antagonists in the Church: How to identify and Deal with Destructive Conflict*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제 8 장

단계를 수립하라

당신은 당신 집에서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소극적멤버를 만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당신이 누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당신은 소극적멤버를 접촉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첫째로 당신은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누가 소극적 멤버에 접촉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인가?

A. 첫 번째 접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알아채린) 그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 필요를 본다면, 행동하라. 소극적인 멤버의 이름을 위원회나 부교역자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알아채린 사람(noticing one)"이 친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소극적인 멤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극적 멤버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인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물론 부교역자가 할 수도 있고.

문제는 누가 첫 번째 접촉자가 되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는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이든지 알맞을 수 있다.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리지는 말라는 것이다. 당신은 알맞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것이 당신일 수도 있다.

Q. 언제가 소극적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알맞은 때인가?

A. 지금이다 -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은 그 사람이 시간이 충분할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은 그 사람이 소극적이 될 신호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비교적 적극적 일 때에 얘기하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소극적이 된 사람과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일종의 숙명론이 당신에게 엄습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기에, 뭔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물론 일찍이 하는 것(earlier)이 늦게 하는 것(later)보다 낫지만, 늦게 하는 것이 아주 안하는 것(never)보다는 낫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당신이 소극적 멤버를 접촉하려고 할 때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세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다: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대답은 이렇다: 소극적인 멤버와 질적인 관계성을 시작하기 위해 만남시간을 정하려고 한다.

Q. 소극적인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 그들의 집인가? 나의 집인가? 식당과 같은 자연스러운 곳?

A. 추구하는 장소는 당신이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소극적인 멤버에게는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하는 세 곳에는 잠재적인 장단점이 있다.

그들 자신의 집에서, 소극적인 멤버는 가장 편하게 느끼는듯하다. 그것은 “홈경기장의 유익”이며, 소극적멤버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분의 안전(extra security)에 대해 감사한다. 항상 당신은 소극적인 멤버가 느끼는 자연적인 방어(defensiveness)를 축소하기 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경마장(집)에 있을 때의 안락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하기보다 당신이 그들에게 가고 싶다는 당신의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다.

있을법한 불리함(불편함, 불이익)은 ‘사적(with privacy)’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린애들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환대로 유익이 있도록 해야 한다. 불리함(disadvantage)은 역시 그곳이 당신의 경마장이고, 사적이 되기에 신경써야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는 그들의 집에서 보다 당신의 집에 있을 때 더 방어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집이 방해(distraction or interruption)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대화는 피상적인 유쾌함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제 3의 장소), 당신은 또한 환대를 보여줄 기회를 갖는 것인데, 예를들어 그 사람을 위해 점심을 사는 것이다. 방해받을 일만 없다면, 식당이 좋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다면, 점심시간 가볍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가 있다. 물론 불리함은 그런 공공장소가 사적인 대화에 최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선택들의 각각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pluses and minuses)도 있다. 당신의 상황과 소극적 멤버의 상황에 따라 당신이 셋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다른 상황들이 똑같다면, 내 경우 소극적 멤버의 집을 택하겠다. 종종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다.

Q. 소극적 멤버와 얼마나 종종 의도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

A. 모든 상황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cover) 있는 어떤 규칙도 없다.

만약 당신의 첫 만남이 좋았다면, 따뜻하고 관계적이었다면, 소극적인 멤버가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당신은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더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다시 만나자. 우리는 좋은 얘기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조만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여 동의가 있게 되면(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다른 긍정적인 표현), 계속 요청하라: “언제가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는가?” 또는 “다음주가 어떤가?”

헤어지기 전에 다음 방문일자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결속되지 않아 좋은 뜻을 교환하기에 쉽지 않

게 된다.

어떻게 진행하는가?

당신을 위한 세가지 질문들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Q. 당신이 알지 못하는 소극적멤버와는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터치할 수 있는가?
- A. 당신은 그 사람과 얼마든지 많은 공유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이다. 당신들 양쪽은 크리스찬이다. 당신들은 같은 교회에 속해있다.

어떤 성도들은 소극적인 멤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미 관계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첫 만남에는 가능한 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닿으려는 노력이 잘 안되었다면(turnoffs), 그것은 포함된 사람들의 친숙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차게 대했거나 또는 결과지향적(result-oriented)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Q. 성도들이 소극적멤버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이런 접근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A. 이런 접근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경우를 알고 있다. 단지 소극적멤버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원하고, 당신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의 효과는 전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메시지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강의식이라면, 이런 전화는 화나게만 만들지 돌봄의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다. 만약 전화가 듣고 확

인하는 데에 순수하다면,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전화는 소극적인 멤버에게 처음으로 접촉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직접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접촉은 마치 “싸구려 사역(cheap and easy ministry)”을 하는 것 같이 보여 지기가 쉽다.

Q. 나는 나보다 훨씬 오래 소극적멤버를 돌보는 일에 동참한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소극적멤버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미리전화하고 가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했다. 어느 것이 나은가?

A. 먼저 전화하라.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확실성은 몇가지 이유와 상당한 연구에서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 * 그 사람의 시간과 스케줄에 대해 존경을 보이는 것이다.
- * 당신은 그 사람과 단지 몇 분 정도만 얘기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연락하지 않고 가서는 길게 얘기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갑작스런 방문에 시간을 내느라 힘들어 할 것이다.
- * 당신의 방문에 대해 그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은 주어야 한다. 예기치 않은 방문을 맞은 사람은 마치 당신이 듣고 싶어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수 도 있다- “다음주에 교회에 갈께!”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또 정직하게 대화할 것이다.
- * 당신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그들의 활동 수준은 거의 같아서, 한 사람이 소극적이 될 경우 배우자는 종종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한쪽밖에 볼 수 없거나 또는 전부(양쪽)를 못 만날 수도 있다.
- * 전화 대화 그 자체는 다리 놓는(bridge-building)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전화접촉을 할 때에 돌보는 스타일로,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조종하지 않는 식으로 한다면, 후일에 직접 만날 때에 좋

고 긍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Q.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는 종종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방문하는데도 그때 마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A. 당신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손할 수 는 있다. 그런데 당신이 문을 나가 떠날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위기를 겨우 모면한 기분). 그러나 이런 식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미리 전화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2,000명 이상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과 항상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미리 전화 받기를 좋아 할 것인가?” 그 결과 80%가 전화를 미리 받기 원했고, 20%만이 상관없다고 하였다. 만약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발을 잘못 들여 놓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방문하는 그 사람은 불편해하며 반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Q. 방문 시간을 정하려고 미리 전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A. 이슈는 컨트롤(control: 통제, 간섭)에 관한 것이다. 소극적인 성도의 삶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 통제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미리 전화하는 사려 깊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잠재되어있는 그들 자신의 느낌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하기 원하는 마지막 일이다.

소극적인 멤버를 보는 것은 당신이 나중예(after) 할 일이 아니다. 사실, 당신은 개인에게 연결되고 돌보는 기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나중예(after)" 할 일이 아니다. 그 돌봄은 당신의 존경과 주의력으로서 시

작되는데, 방문해도 될 런지를 물어보는 전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Q. 방문을 결정하는데 있어, 왜 전화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소극성이 당신이 전화한 이유라고 말해야 하는가?

A. 당신이 그 사람과 접촉하려는 이유는 당신이 돌보려하기 때문이고, 당신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소극성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자신에 대해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하여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 사람의 소극성 때문이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면 당신은 마음을 열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너무 강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라. 예를들어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전화했다. 그러나 당신이 결석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나는 전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면(배후)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록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많은 말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방문한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소극적인 멤버가 ‘No’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미리 연락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고려할 수 있는 세가지 질문은 이것이다: 방문예정에 대해 소극적멤버가 ‘No’ 할 경우가 어떻게 할 것인가?

Q.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긴장감을 줄이라. 위협을 약하게 하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피하여 소극적멤버의 방어를 약하게 하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수많은 소극적멤버들의 진짜 이슈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 즉 “지나치게(workover)” 다루어지기 싫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다르게 관련짓는다면— 사랑, 돌봄, 듣는 것, 공감적으로— 대부분의 소극적인 멤버들은 당신과 우정을 개발하는 위험을 무릎쓰려고 할 것이다.

Q. 만약 만나려고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비록 밀어붙이지는 않되 지속적이 되라.

당신은 진짜 방문하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라. 만약 저항이 계속되면 당신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이번에 또는 다음에): “당신의 교회 동참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답이 ‘yes’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방문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단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 대해 얘기하기 원한다면, 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역시 괜찮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표현한다면, 동료 크리스찬은 당신이 방문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무비판적이고, 조종치 않고, 열린 마음, 정직하고, 그리고 존경적이 되라.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인식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Q. 당신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확실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A.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만약 그 사람이 “나는 너무 바빠”(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연락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당신과 릴레이(relay) 경주하는 식인가?

가끔은 “나를 잘 구슬러봐”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역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밀어붙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다면, 한동안 뒤로 물러섰다가 후에 다시 노력하라. 만약 당신이 단지 한번 포기했다면, 두세주 후에 다시 해보라.

Q. 교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어떤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unfortunate encounter) 때문에 소극적이 된 사람과는 어떻게 "교제(get with)"해야 하는가? 이 소극적인 멤버는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거부한다.

A.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와 사이 좋게 지내려고 결정했다면 숫자, 영광, 돈, 자리 채우는 것, 등등의 동기부여 같은 것은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되는 이유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에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돌보려고(to minister) 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마음(clean heart)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 좋은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 10-12

Q. 지속적으로 되는 데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가?

A.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당신에게 그 일이 주어질 때에, 양쪽은 믿음 속에서, 세상속에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데에 똑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Q. 만약 당신이 소극적멤버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로는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직접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꺼려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A. 모든 것이 똑같긴 하지만, 직접 만남이 확실히 좋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많은 정보를 잃게 된다.

당신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라도 최선을 다하라. 스테반

시리즈 훈련교재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인용해보겠다: “전화 돌봄: 직접 만나는 것 다음으로 최상의 것”¹⁾

1. 사려 깊게 들으라. 목소리에서(by sound) 얻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2. 당신의 가정들(상상, 생각)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의존하는 것은 단지 소리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확신할 수 없다. (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3. “분명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 라디오나 TV를 켜 놓고는 얘기(전화)하지 마라. 당신이 있는 방이 시끄러움으로 방해가 된다면 다른 방을 사용하라.
4. 소극적인 멤버가 당신을 볼 수 없음으로 당신이 듣는 것을 지금 말하는 실마리(단서)에 초점을 맞추라.
5. 당신 목소리의 어조에 유념하라. 따뜻함과 돌봄으로 대화하라. 당신의 응답들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라. 당신의 목소리를 단조롭게 하기보다 활기차게 하라.
6. “누구의 필요에 내가 만족할 것인가?”라고 당신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자신의 필요는 옆으로 제쳐두고, 소극적 멤버의 필요를 부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7. 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 당신은 대화를 잡담에서 벗어나 방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얘기들은 소극적 멤버에 대한 “확인 /testing-the-waters”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대화의 방향을 “중요한 내용(important stuff)”으로 바꾸지 말라. 왜냐하면 그 순간 소극적 멤버에게 있어 일반적인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말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말하라. 만약 소극적 멤버가 반복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다음에 얘기하자는 식으로 더듬거린다면, 적당하게 전화를 끊으라. 다음에 다시 전화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고, 다음에 반드시 전화해야 한다. 다음에 전화할 때에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한번 더하라.

Q. 만약 당신이 방문일자를 정하려고 전화했는데 실망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자신의 느낌을 다루겠는가?

A. 확실히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은 있다.

첫째,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당신은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상황과 개인에 대해 기도하라. 당신의 시도를 하나님께 드리고(말기고), 거절에 대한 느낌도 그렇게 하라. 당신의 기도에서, 당신의 부족,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 당신과 소극적 멤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양쪽을 위해 선함(well-being)으로 인도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를 검토하라. 만약 당신이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준비하려 한다면, 그를 잡아당기거나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기보다 소극적인 멤버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돌보려고 해야 한다.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당신은 판단 받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네 번째,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완전(perfect)’이 아니라 “과정속에 있는 인간(person-in-process)”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훈련과 경험을 통해 더 숙달 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 데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옳은 것이 될 것이다.

Notes

1.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the Stephen Series Leader's Training Manual, "Telecare: The Next Best Thing to Being There"

(St. Louis: Stephen Ministries), 1992

제 9 장

닿기(Reaching Out)

당신이 소극적멤버에게 닿을 때에 당신은 큰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관련지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25:40절에서 약속한 것을 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약 그런 보상이 충분치 않았다면, 당신은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전망(예상, 기대)을 갖는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당신은 그런 광경(풍경)을 탐구하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 닿을 때 어떤 기대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장에서의 질문들이다.

Q. 혼자서 방문하는 것이 나은가 또는 팀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A. 한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순간에 들어설 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당신을 때리고, 눕히고, 멍들게 하고, 혼 낼 거야”라는 것이다. 당신은 관계성을 개발하려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관계성은 1:1이 아닌 상황(2:1 또는 3:1)에서는 희석되기가 쉽다.

당신의 근본적인 목표는 곧 일어날 방문 때문에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을 법한 소극적인 사람에게 겁(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타날 경우는 두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으라.

Q. 만약 나 혼자 간다면, 내가 일찍이 방문했을 때 가졌던 내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가?

A. 필요한 기술을 위한 훈련은 당신의 염려를 많이 경감시킬 것이다.

훈련에서 당신은 충분히 실제적인 역할모델에 노출될 것이며, 흥분된 경험은 방문시에 기대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당신에게 주게 된다. 결과지향적으로 부터의 안도감은, 또한 훈련시에 강조되기도 하는 것인

데, 확실히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5장에서 내가 이미 강조했듯이 소극적인 멤버를 방문할 때는 같은 성(동성)끼리 만나도록 해야 한다. 남자는 남자를 방문, 여자는 여자를 방문. 만약 부부가 기다린다고 생각한 집에 당신이 도착했을 때, 단지 반대 성(opposite sex)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더 진행에 대해서 당신이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위협을 느낀다면, 다음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 좋다.

Q. 소극적인 멤버와 만날 약속을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A. 마치 마크투웨인(Mark Twain)이 자신의 죽음의 소문에 대해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일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피했다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지 말라. 그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바빴거나, 당신이 오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또는 아마도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대부분의 소극적 멤버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간절한 도움”에 응답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당신을 못 만나서 미안해요” 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화하여 만날 시간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Q. 내가 듣기로 소극적 멤버로부터 응답을 얻어내기까지 최소한 다섯 번의 방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인가?

Q. 소극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은 방문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동의하는가?

A. 만약 당신이 순수하게 돌봄, 열린 마음, 그리고 기꺼이 들으려고 하면서 방문한다면 한 번의 방문으로도 응답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닿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이 자극하는 결과지향적 생각을 조심하라: “음, 한 번 더 방문해보자(또는 두 번 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을 그만 둘 거야.” 이 두가지 질문들은 아마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로 돌아오려면 몇 번을 방문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은 소극적인 사람의 알맞은 응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교회로 돌아오는 것. 비록 내가 소극적 멤버의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방문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당신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이렇다: 질적인 관계성이 개발되는가?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가? 대답이 ‘yes’인 이상, 계속하라. 만약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 사역그룹의 일원이라면-소극적멤버들을 위해 특별히 선정된 사역자들-당신이 참석하는 팀 미팅은 후자의 질문들을 검토하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소극적인 멤버와 관계성을 개발하도록 하라.

Q.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응답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어떤가?

A. 먼저 당신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라. 올바른 동기-돌보고 배우려고-로 방문을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다. 잘못된 동기-단지 그 사람을 교회로만 돌아오게 하려는 것-로 방문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며, 진짜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왜 방문하는가? 교회는 여기에서 비즈니스 세계로부터 배울 수 있다. 많은 비즈니스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지 고용인이 떠날 때에, 감독자는 “떠나는 인터뷰(exit interview)”를 한다. 비즈니스는 그런 인터뷰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

교회는 떠나는 멤버라든가 또는 이미 떠난 멤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성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당신의 정직한 관심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느낌과 생각을 알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라. 당신은 당신의 교인들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 교회를 더 가정과 같이 만들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역시 물을 테스트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만 관련지어달라고 호소하는 “간절한 도움”을 표현하는 그 사람만의 방법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방문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당신은 곧 알아 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 사람이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잘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을 축하해야 하고, 그에 대해 축복을 해주어야 한다.

Q.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5년이나 10년 동안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이 교회의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 전화하여,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라. “전화한 것은 언제 한번 만나고 싶어서이지요” 라고 말하라. 배후에서 드림을 치듯이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말라. 듣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라.

예를들어, 많은 경우에 새로운 목사는 “나는 성도들을 잘 모르니, 교인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야지. 나는 당신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소극적 멤버는 많은 단어로 또는 다음과 같은 암시로 말할 수 있다: “나를 추적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군요?”

그때 목사나 평신도는 소극적멤버에게 “아닙니다. 당신을 좀 더 알기원해서입니다.” 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 왜 그런 재확인을 제공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정말로 하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발을 들여놓아 물건을 팔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안에서 이 부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련짓는 것은 순수한 관계성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감소시켜야 한다.

Q. 소극적이 멤버는 얼마나 오랫동안 방문해야 하는가?

A. 한 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만약 당신과 소극적인 멤버가 가장 중요한 대화(토론)를 하게되면 한 시간 이상 할 수도 있다. 시간은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오래는 머물지 말라. 시간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누가 주로 얘기하는가이다. 만약 소극적 멤버가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이다. 더 오래 머무르려고 하라. 당신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짧게 하고 떠나라.

만약 당신의 방문이 결과지향적(resulted-oriented)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면, 가능한 짧게 하라. 더 나은 것은 그런 방문은 결코 하지 마라. 결과지향적 얘기는 비록 5분간이라도 너무 길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한다.

Q. 소극적멤버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A. 소극적멤버가 얘기하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Q. 소극적 멤버와 관련짓는 데에서, 언제 소극적멤버를 하나님께 맡기는가, 즉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가(let go and let God)?”

A.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과정지향적 사역의 진짜 시작이다.

어떤 일이 정말 어려울 때까지 당신이 상황을 “조종(have control)”하여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이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결코 소극적멤버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당신이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Q. 소극적멤버가 방문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도록(dump)" 허용하는 것

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가?

- A. 내 생각에 당신이 ‘쏟아놓는다(dump)’ 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가 짐이 되고 있는 분노와 상처를 포함하여 아주 강한 느낌들을 당신에게 쏟아놓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역은 사도바울이 말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갈 6:2)”를 포함하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멤버가 느낌을 정직하게 표현 할 정도로 당신을 신뢰할 때 당신은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만약 소극적멤버가 관심이 없었다면 환기와 덤핑(ventilation, dumping)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사실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며, 가끔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과 소극적멤버에게는 성장이 있고, 양쪽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을 보라:

나는 상처있고 분노있는 소극적멤버에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들의 내적인 가치와 느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내가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쏟아놓도록 할 때에, 그들은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상처들을 나누었다.

또 다른 점은, 그들이 쏟아놓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정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동요시킨다.

내 자신의 성장은 역시 도움이 되었다. 분노하는 소극적 사람을 목회하는 것은 다르고 불일치하는 다른 상황들을 다루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제 갈등을 훨씬 더 건강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치유과정에서, 쏟아놓는 것은 또한 소극적멤버의 측면에서 순수한 고백과 후회에 대한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

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그렇다고 이것이 꼭 모든 소극적멤버들은 고백과 후회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쏟아놓는 것의 가치는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소극적멤버들과 얘기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 몇가지 실제적인 비결이 있다:

1. 당신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를 조율하라. 당신은 확실히 소극적 멤버보다는 적게 말해야 한다. 만약 시간의 1/4이상 당신이 얘기하는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다.
2.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들으라.
3. 소극적멤버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돌보라.
4. 인내하라.
5. 순수하라.
6. 당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주제(agenda)를 버려라. 당신은 해결책을 내어놓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멤버의 필요를 배우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Q. 내가 방문하는 소극적멤버는 나에 대해 조심하는데, 내가 교회속에서 적극적인 멤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그런 장벽들을 없앨 수 있는가?

A. 첫째,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인내, 이해력, 그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조종적이 아니고 비판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미 소극적멤버와 함께 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당신의 동기와 태도를 규명해보라. 내가 이미 어디에선가 한참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당신이 소극적멤버와 함께 있을 때 돌봄으로 관련지으라. 당신은 장애물 경주를 하거나, 그들을 통과하며 박치기하거나, 그들을 녹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화신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한 약속이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Q. 소극적인 멤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보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A. 이 질문은 나에게서 소크라테스를(철학적인) 연상케 한다: 소극적인 멤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보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당신은 거만함이 없이 소극적인 멤버와의 관계성숙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극적멤버들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의 역할은 그들을 도와서 약한 믿음을 끌어올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야.” 와 같은 식이 된다면 그것은 거만함이 심하다는 증거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를 보지 못하는 것은 종종 소극성의 원인 때문이 아니다. 연구결과가 이것을 입증한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소극적멤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려야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결석을 선택하게 한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 그들과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다.

Q.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될 경우,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제쯤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제기해야 하는가?

A.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한가지 가능성은 비록 나는 이런 해답의 급진적인 성격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전혀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유익(혜택)을 축소시킬 것이며, 개발되는 관계성에 해를 줄 수

있는 잠재성만 커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관계성은, 또는 그것의 부족은 소극성의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제안하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가 그 주제를 끄집어 낼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실마리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성을 그들이 제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그들이 얘기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대화 속으로 그것을 밀어 넣으려 한다면, 당신은 유익(good)보다도 해(harm)를 끼칠 수도 있다.

Q. 교회 또는 교회출석은 어떤가! - 당신은 언제 그런 주제를 끄집어내야 하는가?

A. 만약 나오지 않으면 안한다. 당신이 기다리면 분명히 소극적멤버는 그것을 얘기하게 된다.

당신이 거기 있는 이유는 반드시 소극적인 사람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본질적으로 그 주제는 당신이 거기 있음으로 제기될 것인데, 과정을 신뢰하고 인내하라. 당신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은 소극적멤버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교회출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라고 그들은 묻는다. 그렇다! 나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 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소극적멤버를 돌보는 결과로서, 그는 교회로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당신에 의한 초청이 당신과 소극적멤버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관련짓고 있는데, 말하자면, 친구인 것이다. 존재하는 관련성은 소극적멤버의 마음속에 당신과 교회 사이에 있는 연결을 열수도(screen off) 있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내가 아직 강요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교회의 주제를 끄집어낼 수도 있거나, 또는 당신의 대화 속으로 그 주제를 가져갈 수도 있다.

Q. 소극적멤버와 만남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A. 내 생각에 사람들은 우연한 모임에서, 소극적멤버와 관련짓는 “임무(task)”를 다 하려고 한다.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친구를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하라. 당신은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마도, “안녕, 잘 있었어?” “만나서 반가워,” “요즘 어때?”라고 말을 걸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싶었어,” 또는 “어디 숨어있었어?” 또는 “너 아직 살아 있구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얘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소극적인 사람은 확실히 방어적이 될 것이다.

소극적인 사람은 이런 만남에 의해 이미 당혹함을 가지고 있다. 더 당혹스럽게 만들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라. 지나친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코너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우연한 만남은 한두 순간에 마쳐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다. 더구나 당신 자신이 교회의 주제를 끄집어 내지 마라.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언급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그것에 대해 당신과 정말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할 곳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다음의 약속시간을 만들 기회가 안 되면 다음에 방문한다는 얘기만 하라.

Q. 당신이 말하는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 나는 항상 그런 기회에 친절하게, 가벼운 대화를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뭔가 전혀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A. 당신이 하는 것을 계속하라.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 성과에 대해 너무 많이 염려하면—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길 당신이 기대한다든지—당신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역할을 빼앗는 것이다. 우연한 만남의 한 가지 목적(goals)은 그 사람이 비록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어떤 것이라도 안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만나는 그 순간 단순히 사랑과 돌봄을 나누는 것이다.

왜 당신은 돌보는가? 가장 깊은 수준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돌봄은 소극적멤버로부터 어떤 응답에 따라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who you are)’에 근거하고 있다.

Q. 목사로서, 소극적인 멤버와 우연히 만날 때 따뜻하고 친절인 인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비록 그것의 비생산적인 경험에 의해 알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 가는’ 것으로 유혹받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떻게 나는 이런 제어하기 어려운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A. 어떤이를 교회로 돌아오도록 위협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시작이다. 당신은 100% 옳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계속 말하라. 덧붙여서, 기도할 것을 나는 제안한다. 역시, 당신의 혀를 깨물라.

당신능력의 최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에 당신 자신을 넣어라. 만약 상황이 바뀌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우받기 원하는가? 당신은 친절하게 대우받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확실히 당신의 목사가 당신을 멀리하고 피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압박을 받기도 원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바라는 것은 친절한 것이며, 거만함, 우월감, 조종,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함이 없이 합리적으로 간단한 만남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 지식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 10 장
“분위기를 바꾸고
과거에 대해 안녕!”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당신의 첫 방문은 좋은 아이디어의 모든 요소들을 가질 수도 있다. 거기에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 속에 원리들의 성격개발이 있다 - 당신과 소극적 멤버. 만약 이야기가 만족한 것이라면, 관계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신호이며 첫 번째 방문은 마치 소설의 제1장과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Q. 소극적멤버와 어떻게 대화하거나 어떻게 방문하는지에 대한 제안들이 있는가?

A. 내 생각에 사람들은 그들의 염려수준을 상당히 낮추어 줄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멤버와의 대화는 단지 두명의 인간사이에 교감(interaction)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사이에 만남이 아니라 로라와 에이미, 또는 엔드류와 나단 사이, 다른 말로, 이름을 가진 두사람 사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첫 번째 제안은 여유를 가지라(to relax)는 것이다.

대부분이, 첫 방문에 대한 염려는 결과지향적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첫 미팅이고 간에 거기에는 일상적인 염려가 있다. 당신은 결과지향의 무익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혹시 수줍어하거나 처음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연스럽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같은 식으로 소극적멤버와 얘기하라.

환영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또는 “요즘 생활이 어때?” 확실히 당신은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 또는 “당신을 만나보아서 반갑다.”

Q.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다음 당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A.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이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지 순수해지라. 일상적이 되라.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알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면, 시간이 덜 필요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미리 준비한(통조림 된) 말보다는 몇가지 지침을 주려고 한다. 관계성을 형식화 하는 것은 자기-파괴이다. 당신은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 상대방은 인공적인 것(만든 것)을 듣고, 그리고 역시 부자연스럽게 느낀다. 당신은 단지 서로가 알고자하는 두 사람이다.

가장 안전한 과정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당신 보고 싶었다!”와 같은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일 때만이 그렇게 말하라. 왜냐하면, 그런말은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이 보여지며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멤버 마음속에 방어적인 느낌만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사람의 면전에 교회주보나 신문을 내 밀지 마라. 현금봉투 같은 것을 그 사람에 앞에 “우연히 라도” 내놓지 마라. 다룰 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만나지 말라.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것이다.

Q. 만약 내가 안부를 물으려고 만났는데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는 항상 돈만 밝히고, 사람들은 그 이유로 자기를 만나려고 한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A. 첫 번째로 당신이 커뮤니케이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돈이 그 사람을 방문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여야 한다! 돈은 소극적 멤버와 얘기하기에는 확실히 맞지 않는 주제이다.)

예를들어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당신의 얘기는 사실일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기로 돈에 대해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전화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어

떤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일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가 당신을 믿을 것인가? 그럴수도, 또는 아닐수도. 그런 진술은 적어도 그 사람과 계속 대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는 당신이 얘기한대로 당신이 살아가는 지에 대해 그가 확신이 설 때 생겨지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 Q. 분위기를 좋게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먼저 소극적멤버에게 왜 소극적이 되었는지 묻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토론으로 들어 가야 하는가?
- A.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의 정 반대이다. 소극적인 멤버의 필요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에 부응하려는 것이 당신이 출발점이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등허리를 찡긋 때리며 첫마디에, “옛날 열심은 어디 갔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3년이나 크리스마스때 집에 오지 않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왜 전에는 오지 않았어?” 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겠는가? 이런 식의 서두(대화 시작)는 무례하고 무분별한 것이며, 당신의 타고난 숨씨가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먼저 신뢰의 관계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당신은 함께 나누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멤버는 당신과 앞으로 뭔가 나눌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

- Q. 소극적멤버에게 관련짓는데 너무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한가?
- A. 사실인즉, 내가 생각하기로 소극적멤버에게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당한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얼마나 열심인지는 여기에서 이슈가 아니

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channeled)되고 어떤 형태(what form)를 택하느냐가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나와 얘기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는데 열심을 잘못 낸 것이 불운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이다.

우리 교인중에 한 소극적 멤버가 최근에 이혼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주 ‘독신자모임’에 오도록 엽서를 그녀에게 발송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계획했던 중요한 경우였다. 나의 관점에서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그룹이 되어, 그런 나의 초청을 결코 거절치 않고 다 모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관점에서 (다른 독신그룹의 한사람이 나에게 보고했듯이), “교회는 내 결혼의 재가 내 손에서 차가와질 때까지 조차도 기다릴 수 없구나!”

나의 바보짓은 나에게 두가지 교훈을 가르쳤다: 첫째, 개인적인 접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이제 다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위해 듣는 시간을 더 가질 것이다.

당신이 열심을 내는 것이 무감정(냉담)하게 만들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외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돌보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열심을 내라.

진짜 돌봄은 무리한 힘(overpowering)을 쓰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에 대해 잘 듣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있는다면, 당신은 관계성속으로 세워진— 당신이 필요한—보호(안전지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특별히, 만약 당신이 소극적 멤버를 다시 가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인간으로서 이전에 생각했다면. 이것은 당신 측면에서 인내와 자기억제가 요구된다.

Q.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극적멤버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인가?

- A. 무엇보다도 먼저, 적극적멤버가 소극적멤버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적우월감의 거만한 분위기가 전달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소극적멤버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은 못났어. 타락한 사람이야. 당신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그것을 당신한테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이지.” 소극적인 멤버의 측면에서 건강한 응답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적극적멤버에게 “나도 역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는 대답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말은 소극적 멤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을 물리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는 마치 많은 상황안에서 유창한 말같이 들린다. 그것은 마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듣고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빨리 처리해버리기 위해 쉽고 빠른 대답을 찾는 것과 같이 들린다. 당신의 그런 지각(인식)은 당신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관계성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돌보지 않고 조종하는 듯이 보일 수 있으며, 물론 그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사람을 당신의 의지(뜻)에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소극적인 멤버가 회중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응답이, “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네가 불평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기 원한다는 것을 네가 깨닫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전달된다. 그것은 마치 교회가 새신자를 우수한 성가대 테너로 되도록 했지만, 안내담당자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듯한 기도이다. 성가대는 테너를 원했다. 그래서 환영자는 이런 기도로 그의 방문을 마쳤다: “주님, 제임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소서. 그가 봉사하는 곳 어디든지 제임스의 사역은 당신의 귀에 음악과 같이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새로이 들어온 적극적인 제임스를 소극적 제임스가 되도록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소극적인 멤버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 당신은 그것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그가 올바른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눅 18:1-12). 그러나 제안했듯이 당신의 골방(inner room)에서 사적으로 기도하라(마 6:6). 그것이 당신과 소극적멤버 양쪽을 위해 좋은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소극적멤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는 소극적멤버를 위해서도 좋은 것인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딤후 2:1, 3-4).

소극적 멤버와(를 위한) 기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있다. 소극적멤버가 노골적인 삶의 괴로움을 다룰 때에, 그리고 두사람이 그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제시하는 것은 딱 알맞다. 예를 들어, 가족중에 죽음이 있을 경우, 또는 소극적인 멤버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을 때를 상상해보라.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며, 그 사람을 위협하려고 한다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들으려고 시간을 갖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나눴의 시간에 당신의 이해를 더 해 가는 것이 다른 것이다.

방문 도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Q. 소극적멤버를 방문함에 있어, 어떻게 그 방문을 사교적인 방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깊은 토론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 A. 깊은 대화로 옮겨가는 최상의 방법은 당신의 입을 닫고 당신의 귀를 여는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될 때에 모든 종류의 깊은 이슈들(in-depth issues)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자진해서 함(willingness)과 그들의 시간적인 감각(sense of timing)을 존경해야 한다.

느낌에 초점을 맞추라. 꼭 ‘예’ 또는 ‘아니오’ 라는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 즉 열린 질문들을 하라. *어떻게(how)* 그리고 *무엇(what)*과 같은 질문들이 이런 종류(열린)의 질문들이다.

만약 당신이 소극적멤버를 의도적으로 깊은 이슈로 잡아당기려 한다면, 그 이슈가 정말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무엇이 소극적멤버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인 경우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리며 듣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소극적인멤버들은 고민하고, 가끔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그들은 누군가 정말로 그들의 얘기를 함께 잘 들어줄 사람을 기다린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Q. 당신은 이전에 소극적멤버에게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첫 대화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극적멤버에게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묻는 것은 어떤가?

A. 괜찮다. 좋은 관계성의 상황안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도 있다. 관계성이란 아마도 한번 방문으로는 개발이 안되며, 첫방문 때 그런 질문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이 기다리면 소극적멤버가 먼저 그런 주제를 끄집어 낼 기회가 오게 된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소극적멤버가 얘기한 것에 근거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대화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연결(follow-up)질문의 예를 보자: “어디에서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켰는가?” 이것이 만약 너무 강한 표현 같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디에서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킨 것 같은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용기가 요구된다. 이런식의 말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용기 있는 돌봄을 알리는 말들이다.

Q. 만약 소극적인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정직하라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A. 소극적인 멤버의 측면에서 방어는 부정직과 동등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방어를 기대할 수 있고, 소극적멤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각하게 청취하면서 그것을 존경하라.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의 권리를 존경하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신뢰함으로 관계성에서 신뢰를 쌓아가라. 소극적멤버의 느낌을 들으라. 적대적이 되려고 하지마라. 약속을 지키라.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정직을 인정하고 최상을 바라라.

Q. 소극적인 멤버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나에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그 사람이 무엇하기를 당신이 원하는지 분명히 하라.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내가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려고 여기 있으며, 그리고 또한 당신도 나에게 정직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에게 진짜 그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라.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생각한(preconceived) 아이디어는 없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색칠하고 달콤한 유쾌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듣기 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자,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진술이 당신의 내적인 태도의 진실한 반영이 되도록 하라. 당신은 소극적멤버로 하여금 불성실 하든가 또는 순수하든가를 택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단지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초청장을 발부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소극적인 멤버는 그것을 알고 “다음주에 교회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당신을 보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소극적멤버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정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당신이

주춤하고, 눈을 번쩍이고, 깊게 한숨짓고, 당신의 잇빨을 깨문다면, 그 사람은 더 정직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소극적멤버가 경험한 상처를 설명하기 시작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멀어 지려고 할 것이다. 주로 당신이 듣고 공감하기 원하는 것, 다시말해 그가 염려를 얘기하고 느낌을 설명하는 동안 그 사람과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첫 번째 방문후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 생각에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소극적 멤버는 아주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매듭지었다. 내가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소극적멤버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얘기하려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대신에 내 생각만을 전달한 것 같다. 당신이 말해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나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미안하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당신은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기 바란다.”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사람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진술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다른 진술로서 힘든 방법에서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 돌봄과 관심을 커뮤니케트한다. 당신의 잘못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당신은 소극적멤버로 하여금 당신을 잊어버리려는 결정(생각에서 지우려는 것)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신의 정직과 공격받기 쉬움(다치기 쉬움)은 상황을 회복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다.

Q. 우리성도들은 최근에 소극적이 된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얼마 후에 우리는 오랫동안 소극적이 되어온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원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

- A. 그들을 방문하라. 그들에게 잠깐 들러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대화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극적멤버: 당신은 너무 늦었다. 나는 지금 다른 일로 바쁘다.

적극적멤버: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미안하다.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아마 그는 기뻐 할 것이다. 당신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적극적멤버: 나는 한번 들리고 싶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때에 대화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소극적멤버: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나는 교회로 안 돌아간다.

적극적멤버: 나는 당신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만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나려는 것은 오랫동안 못 보았기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에] 나를 믿는가?

소극적멤버: 아니, 못 믿겠다.

적극적멤버: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겠다. 만약 우리가 만날 때에 당신을 교회로 데려가지 않겠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당신이 이런식으로 마음을 연다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얘기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된다.

- Q. 피동적인 멤버가 교회의 능동적이 되기 원하도록 매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한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 A. 돌봄에 있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조종이나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 비소유적인 방법(nonpossessive way),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수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유일한 가능성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기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Q.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에게 몇마디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이 되겠는가?

A.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요점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 봐요.”

그다음에 내 응답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에 달려있다.

놀랐는가? 아마도 당신은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 *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라.”
- * “우리는 당신에 대해, 당신의 영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 *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당신은 그것을 깨닫기 바래.”

이 단원의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당신에게 깨닫기 바라는 것은, 소극적인 멤버가 우리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관심을 나누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런 관심들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듣는 귀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마치 여러분이 장님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눅

18:41)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장님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당신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이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하는 것(what you say)이 아니라, 소극적멤버가 말하는 것(what he says)이다.

제 11 장 방어와 비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소극적멤버와의 모든 관계성은 독특할 것이고, 당신의 독특함의 융합이고, 당신이 관련지으려는 사람의 융합이다. 대화가 잘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chapter)은 당신의 관계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당신에게 보여주려 한다. 어떤 관계성에서도 사실이듯이, 당신이 소극적 멤버에게 닿을 때에 아주 유의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들 중에 첫 번째는....

방 어

- Q. 나와 얘기하고 있는 소극적멤버가 소극성에 대한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는가?
- A. 대부분 사람들이 이유들을 말하지 않을 때, 또는 그들이 대는 이유들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판, 논쟁, 또는 감언이설에 유의하기 때문이다. 그런 주의깊음(조심함, wariness)은 ‘방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런 조심함에 대항함에 있어, 한가지 응답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유들을 꼭 알아야 하는가? 아마도 어떤 비판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들은 그들을 날카롭게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조언은 인내하라는 것이다. 몇 번의 방문을 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정직하고, 평온하고, 돌보고, 수용하게 되면 당신은 분명히 녹아내리는 것을 볼 것이며, 당신이 말한 것의 진짜 의미하는 바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진짜 판단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짜 돌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역시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너무 상세하게 애

기하는 것에 대해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극적멤버가 더욱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당신의 반응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당신이 너무 충격이나 놀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소극적멤버로 하여금 방어적인 행동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해버리고 만다.

Q. 아주 방어적인 사람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대화의 주제를 갑작스럽게 이동하지 말라. 당신은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진실이다. 당신과 소극적인 멤버사이에 관계성은 방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공원에 있는 다람쥐처럼 가능한 한 부드럽고, 할 수 있는 한 활기차게(격려조로) 대하라.

소극적인 멤버들은 적극적인 멤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1)

- * 그들을 평가하는 것;
- *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 * 한 가지 동기부여 이상이나, 또는 모호한 동기부여를 할 때;
- * 중립인 척 하면서 부정직할 때; 그리고
- * 그가 옳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행동할 때.

당신이 소극적멤버에게 결과지향적 보다는 과정지향적으로 접근하도록 구비되었으므로, 당신은 많은 실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결과지향적 접근은 방어감을 증대시킨다; 과정지향적 접근은 그것을 감소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방어감속으로 달려가려하기에 사전에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방어의 전면에서 방어적이 되려는 당신의 스타일(tendencies)을 조심하라. 그것은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멤버와의 좋은 관계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양쪽에서 당신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시지에 유념하라.

비평주의

Q. 아주 실제적으로 비평하는 교인, 직원, 또는 평신도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A. 당신은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의 아픈(찌르는) 본성을 정확히 인식시켰다. 이것과 같은 교감은 단지 소극적멤버와 적극적멤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멤버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종종 비평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의 비평이 들려지고 있다는 느낌(sense)이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변호하거나 서둘러 동의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근본적인 역할은 청취자이다. 당신이 들은 것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옳게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소극적멤버에게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감사한다. 나는 이 일을 살펴볼 것이며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그때 당신에게 알리겠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비평을 가지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소극적멤버에게 가지고 가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평을 양탄자 밑으로 넣으려 하지 말고, 또는 편편하게 고르지도 말라. 만약 당신이 그 비평을 철회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다면, 소극적멤버는 그가 말한 것을 당신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가 용서하고 잊어버려야한다고 서둘러 제안하지 말라 -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단지 소극적멤버 에게만 있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그런 비평들을 환영할 수 있다. 소극적멤버들이 당신에게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당신 자신이 신뢰의 가치를 보인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런 피드백은 개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류의 상황들은 지도자들과 교회스택이 사전에 열린(오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단계를 밟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소극성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변화를 위한 길을 준비한다; 나쁜 커뮤니케이션이나 전혀 아닌 대화는 변화를 파괴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Q. 만약 그런 비평을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갔는데, 비평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전혀 관심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A. 변화를 저항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 지도자가 저항하는지의 그 배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지 않는 데에는 아주 좋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비평은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극적멤버에게 알맞게 설명할 수 있다.

리더십이 얘기하는 데에 따라서 당신은 지도자입장에서 좀 더 마음을 열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전투적은 아니지만 주장적으로). 만약 비평이 여러 명에 의해서 계속 일어날 때에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전체 상황을 지도자에게 설명 하라. 그들이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들에게 주라. 만약 필요하다면 한번 이상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하라.

전투적인 행동은 소극적인멤버보다도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공격적인 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방어의 벽을 쌓게 한다. 당신의 경우는 만약 당신의 주장에서 돌봄이 있게 되면 유익(혜택)이 있을 것이다.

Q. 만약 소극적인 멤버가 “우리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면 교회에 나갈까”라고 말한다면,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A. 이런 진술에 대한 클래식한 응답은 어떻게 목사가 그들의 신앙에서 근본적인 초점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강의자는 대개 초대 교회시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회중에 대한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같이 강의자들은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친다.

그 대신에 성도 중에 지도급멤버(a level-headed member)는 피동적 멤버와 마주앉아 들어야 한다. 나는 지도급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소극적인 멤버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이 보임이 없이 수용하고 비 논쟁적이 될 필요가 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여기서 ‘목사비판’에 합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으려 하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단지 들으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라. 소극적인 멤버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은 후에, 그런 다음에 듣는 이는 분명히 하기위해 어떤 실마리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듣는 것의 목적은 소극적멤버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한 가지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느낌을 신선한 공기 속으로 날려 보내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불평들을 뱉어내게 하는 것이다. 중요희망(main hope)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목회자들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이 목회자의 명성에 관련되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기회들을 폭발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소극적인 것 또는 다른 경우) 꾸짖는 느낌이라면, 목사는 어쨌든 비판받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구조 속에서 느낌을 나누도록 기회를 준다면, 일대일의 분위기는 긍정적이 될 수 있다 - 소극적멤버에게 교인에게, 그리고 물론 목사에게도.

그러나 한가지 주의점: 만약 그 사람이 내가 7장에서 얘기한 정의에 따라 '반대자(antagonist)'라면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주는 것은 그들의 파괴적인 충격에 더 불을 붙이게 되고 말 것이다.

Q. 우리 교회안에서는 적극적인 멤버와 소극적멤버 양쪽이 담임목사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관점에 그의 설교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좀 부족한 설교를 훨씬 더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A.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히 설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목사와 가까운 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그 문제를 사랑스럽게 대화해보라. 이것은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중상모략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목사가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강한 교인으로 면허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목사가 이런 피드백을 합법적으로 받아드린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염려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몇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개개로 또는 두세 개 합하여도 도움이 된다.

1. 당신의 목사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서 설교웍샵이나 크리닉이 열리는지 확인해보도록 격려하라.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참석토록 요청하라. 물론 목사의 계속교육을 위한 예산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언제 고급반이나 클리닉이 개최되는지 확인하고, 담임목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라.
3. 유명한 설교자, 강사들의 비디오테이프를 구하라. 당신의 목사는 내용보다는 그들의 어떤 스타일이 그렇게 효과적이 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4. 많은 교단들이 그들 자신의 계속교육 사무실을 통해, 또는 세미나를 통해 비디오코스 자료를 제공한다.
5. 공중연설에 대한 대학 강의들이 많은 공동체속에서 가능한데, 밤이나 낮에도 가능하다. 당신의 목사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라.

Q. 어떤 소극적멤버들은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이 좀더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무슨 의미로 그러는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우를(구체적으로) 듣도록 하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당신이 들음으로서, 당신은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넓게 알 필요가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출처들 중의 단지 하나이다. 당신의 교회 속에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얘기하라. 교제그룹, 성경공부그룹, 기도그룹, 그리고 장년 주일학교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긍정적이 되라.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양육되어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키려 하지 마라. 당신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료들의 혜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짐이라고 설득하지 말라. 양쪽 노력들은 잘못 안내한 것이고, 확실히 열매가 없는 일이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영적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기회가 필요하다. “먹지 못해 배고프다”는 부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다. 그 갈증(배고픔)은 더 의미 있는 봉사를 위한 인식치 못한 필요,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직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경험하는 필요 대신일수도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발견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라.

나의 친구 제네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확신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놓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교회의 스데반 사역자가 되었다. 그녀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때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

이제 분명히 적극적멤버는 소극적멤버에게 이렇게 대항하지 않아야 한

다: “당신은 당신에게 의미있는 사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듣는 것(listening)은 소극적멤버로 하여금 그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봉사에 대한 알맞은 길(avenue)이 당신 교회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과 소극적멤버가 함께 그것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것(wins)이다: 당신, 소극적멤버, 그리고 교회. 소극적멤버에 의해 제안된 도움이 되는 피드백에 감사하는데, 단지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opened up)보다도 사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Q. 우리는 연간 예산에 대한 아주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이 소극적이 되었다. 성도들의 결정이 소극성을 유발해 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사람들은 종종 이것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접근은, ‘그것의 장점을 논쟁하고 소극적멤버가 “이해” 할 때까지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결정 또는 정책에 대한 즉각적 토론’이라고 믿는다.

많은 경우에 논쟁은 그들이 특별한 결정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소극적멤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두고 단지 그 사람과 관련지으라. 아마도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질적인 관련이 불일치나 정책의 차이에서 더 중요하다. 질문하고 들음으로서, 당신은 불일치가 다른 이슈들에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사람은 아마도 거절을 느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갈등이든지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고, 또한 교회리더십(지도자들)은 그런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한다.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좋은 리더십 테크닉은 참여적인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사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관리적이고 인간 서비

스(managerial and human services) 인 것이다.

편지와 뉴스레터에 그것들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비공식적으로 그것들을 토론하여 정보교환 미팅에서 그것들에 대해 얘기함으로 그들이 정해지기 전에 교회결정과 정책변화의 결과를 검토하라.

- Q. 교리나 교단적인 방침(practice)이 성도들의 신앙에 갈등을 갖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극적이 되게 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 A. 무엇보다도 먼저, 교리적이나 교단적인 방침에 대한 차이가 소극성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종종 뭔가 다른 일 때문에 그렇다. 소극적 멤버는 다른 이슈들을 표현하기(stand for) 위한 것으로서 이런 설명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돌보고 용납하는 관계성을 통해, 당신은 "다른 것(something else)"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별한 교단적 방침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의 돌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 원만히 헤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더 맞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이것을 패배보다는 승리하는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Notes

1. Jack R. Gibb, "Defensive Communication," in *Messages: a Reader in Human Communication*, ed. Jean M. Civikly (New York: Random House, 1974), 333-337.

제 12 장

상처와 분노 다루기

가끔 소극적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깊다. 가끔 소극적 멤버가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상 처(Hurt)

Q. 교인이 상처받은 느낌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경우, 무엇이 취해야할 최상의 행동인가?

A.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들으라.

상처에 대해 그 사람이 얘기하도록 하라. 얼마 후에, 당신과 그 사람은 상처받은 느낌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느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응답일수도 있다; 가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상처를 인식하기도 한다.

만약 그것이 그 사람의 인식이라면, 종종 분명히 돌보는 사람과 그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단지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갈등상황에 돌보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종종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야기 하는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을 표현했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상처를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라.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거나, 또는 느낌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갖지 말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이런 모든 실수가 하는 것은 더 분노하고 화나게 만든다. 진실을 가릴려고 하는 대신에 소극적 멤버에게 다음번에 당신에 대해 더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은 소극적멤버와 상처의 근원이 된 사람(또는 그룹)을 함께 만날 수도 있다. 더 나은 것은, 조심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소극적멤버를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또는 적어도 듣도록 하는 것도 좋다. 조심을 하는 것

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화해보다는 항상 ‘상처’가 다시 열려질 수가 있고 과거의 ‘불일치’가 재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들어야 하는가? 나는 소극적멤버를 방문하여 상처를 듣는 데에 45분을 썼다. 그런데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았다.

A. 서두를 필요 있는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을 수도, 또 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질문은 실제 사람보다도 형식에 근거한 즉각-고침(a quick-fix mentality)을 반영 한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고, 당신은 저것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멤버가 이 질문을 보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말하는 사람은 농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는 진짜 비현실적이다. 내 경우에, 내가 소극적이었을 때, 나는 2년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 나는 이세상이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라고 결코 다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후에, 45분 동안 내가 치유되고, 승리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현실적이 되라.

내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바라는 것은, 종종 우리 소극적멤버들은 우리가 하는 방법에 자랑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통함 아래 있는 것은 우리자신이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부터 깊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정죄가 아니라, 당신의 도움을 원한다. 우리는 자기정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고통과 부끄러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돕는 당신의 돌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간단한 방문 후에 우리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것의 복잡성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 안에 있는 우리를 못 본 것이다.

Q. 교회로 돌아오기를 완전히 거부한다거나, 그에게 상처를 준 교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A.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전체 상황과 포함된 전체 부분들을 살펴

보라.

당신은 소극적멤버가 어떤 초인적인 노력을 하기 기대하는가? 당신은 이 사람에게 그의 느낌을 무시하라든지, 지워버리라든지 등의 말을 했는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요구이다. 인간이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멤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교회로 돌아갈 힘조차 없다고 말할 때 많은 적극적멤버들은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소극성을 통과 하는 동안 나는 교회로 돌아갔고, 나는 머무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 정말 할 수 없었다. 나를 교회로부터 밀어내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가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소극적인 멤버에게서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관계성속으로 들어간다. 아마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대들은 이럴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소극적멤버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며, 비록 교회안에 있다할지라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결점은 교회안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라고 사도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또는 밖에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얘기하듯이 교회로 돌아오거나 용서하기를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은 종종 용서 쪽으로 서두르게 된다. 그러나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과정이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더 예민하고, 그 과정은 더 길게 요구될 것이다.

- Q. 어떤 사람이 교회생활을 오래했는데 당회원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는 상처를 받았고, 그와 아내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상당히 돌보고 애썼지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떡하면 좋은가?
- A. 인내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접촉을 계속하라. “상당히 돌보았는데도 안된다” 기 보다는 “이만큼 돌보았는데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고통을 감내할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함께 대화하도록 하라.

적극적인 멤버의 관점에서 볼 때 종종 돌봄사역은 정말 일어났다. 그러나 소극적 멤버들은 그 일을 아주 다르게 인식한다. 종종 “돌봄사역”이라는 이름아래 시행된 것은 적극적멤버가 소극적멤버에게 얘기하여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상처받아서 안된다고 말하고, 아마도 한두 개의 상투적인 말을 던지고, 소극적멤버의 신앙의 부적당함에 대해 통지하는 식이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돌봄사역이 아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점은, 소극성의 원인은 종종 여러 개 (clusters)속에서 온다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 갑작스런 사건이 있지만 (예를들어, 당회원 선거에서 낙방),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속에 스트레스를 창조하는 상황들의 전체 체인중에 마지막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왜 종종 소극적멤버가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소극성에 대한 이유가 첫째 소극적인 멤버에 의해서 증대된다는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한 가지 갑작스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모든 원인들을 정말로 이해한다고 만족하기 이전에 충분히 열린 질문들(open-ended questions)과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노(Anger)

- Q. 나는 소극적멤버를 방문하여 정말로 잘 들어주었다.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강한 느낌으로 그것을 갖도록 해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 A. 대조적으로 소극적멤버가 깊은 느낌을 느슨하게 했을 때, 분노나 그 외 다른 것, 그것은 정말로 긍정적인 신호이다. 강한 느낌은 강한 돌봄

을 의미한다.

Q. 적대감, 분노, 그리고 분개의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A. 나는 단지 한가지 방법을 아는데, 그것은 소극적멤버로 하여금 느낌들을 쏟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더욱 더 그런 느낌들을 발산하면 할수록, 더 좋다. 당신은 그들이 쏟아놓는 느낌들이 스며들게 하는 일종의 스폰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과 논쟁하고 싫어하는 유혹을 피하라. 당신은 용서와 “네 형제를 사랑하라”에 대한 단호하고, 도덕적인 경고를 해야한다는 것에 부름 받았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소극적멤버를 쫓아버리려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목표는 아니다. 설교조로 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수이다. 그런식의 진술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더 안좋은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무감각하고 결여된 이해력을 보인다 - 당신은 소극적멤버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on the shoes) 하지 않는다. 당신이 소극적멤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듣는 것이고 그의 느낌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들의 느낌들을 수용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들을 딱 잘라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들을 수용하는 것은 나에게 부정직한 것이다.” 너무 종종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옳다’ 또는 ‘그르다’ 로만 생각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옳았고, 그 사람은 틀렸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믿도록 해야 하고, 내가 보는 식으로 세계를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믿으려는 당신의 권리를 존경한다. 나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소극적멤버가 그 자신이 되도록(be himself/herself) 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음으로서, 그 사람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가장 깊은 자신에게 들어오도록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의 하나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에 있게 되는 것이다.

Q. 소극적인 멤버가 화가 났을 때,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때, 그들은 나에게 더 진실을 말하려 하는가?

A.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렇다! 소극적인 멤버가 화났을 때,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감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면(얼마간의 시간이 지난다음에 일어나는), 그것은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염려할 때이다.

Q. 폭발이 끝났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A.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당신의 분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그것을 나에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니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직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고맙다.”

이전에 소극적 멤버였던 한 여성도가 유사한 확증을 받은 것을 상기하였다:

내가 왜 소극적 멤버가 되었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돌아온 후 5년 될 때였다. 내가 이야기 할 때,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해주어 고맙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을 보면 당신은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와우! 얼마나 확증적이고 수용적인가! 그런 얘기는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Q. 15년 전에 일어 난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수년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로 교회스텝(부교역자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교회 사역위원회가 가끔 방문하긴 했다.)

A.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위원회(stewardship committee)를 그 사람으로

부터 철수하라.

놀랄 것도 없이 그들의 방문은 별로 좋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단지 사역위원회 만이 소극적멤버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것보다 더 안 좋다.

당신이 해야 할일은 성도중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도록 하는데, 단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위해서이다. 만약 첫 방문이 아니라면 분명히 조만간에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얘기되어질 수 있다. 그것도 또한 놀랄 필요 없다. 교인들이 지난 15년간 이사 갔다 할지라도, 소극적멤버는 그 사건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계속하여 되살아나면서 그때를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지 누군가가 들어주고, 또 누군가가 더 들어줌으로 소극적멤버는 이런 옛날 인식과 실체들의 열쇠를 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사건을 얼버무리려하지 말고, 그것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소극적멤버를 깎아 내리려고 하지 말라. 만약 필요하다면, 교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라. 그리고 더 듣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Q. 소극적인 멤버가 무례하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스럽게 다루는가?

A.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기다리라. 사랑과-내적으로!- 용서로 응답하라.

너무나 종종 소극적멤버가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느낌들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때, 적대적인 감정(느낌)은 사라진다. 대다수의 소극적 멤버는 무례하거나 적대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타겟(target)으로 당신에게 단순히 그들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할 때 적대적으로 빠져들기는 쉽다.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바램이 당신에게 분명히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분노로부터

움직여지는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꼭 당신 개인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흡수시키는 분노에 대한 이런 추천의 한가지 예외는 만약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반대적(antagonistic)일 경우이다. 7장에서 정의를 내린 교회반대자들은 대개 교회내에서나 다른 곳에서 파과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랑, 애정,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 그들의 적대감을 키우는 그런 행동.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견고하고 단호해야 하며, 그리고 때로는 초기에 ‘안녕(good-bye)!’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관계성 상황들

- Q. 어떤 사람은 직장과 가족 때문에(내 생각에 재정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 너무 바빠서 교회에 대한 시간을 낼 수 없게 보인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가?
- A. 이것이야말로 사역에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람의 소극성은 즉각적인 필요, 즉각적인 상처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작은 문제이다.

당신이-또는 다른 사람이-한번 지원을 제공했을 때, 이 사람의 근본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적극성 또는 소극성은 리스트의 아랫부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그런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다루라.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은 필수적이다.

- Q. 만약 다른 비기독교신앙을 접했기에 교회출석을 멈춘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에서 관련지어야 하는가?

A. 우선 당신의 관련은 같은 코스를 밟아야한다. 즉, 닿아서(reach out) 그 사람을 만나 삶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편지를 쓰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라.

듣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기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신념, 당신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라.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그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짜르려는 막대기처럼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화(personification)가 되라는 뜻이다.

그들의 가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문을 너무 급히 닫으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을 보라.

이교도(cults)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종종 거기에서 멈추고, 그들을 위해 종착역이라 생각하는 것을 나는 관찰하였다. 그것은 때때로 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복음이 결여되어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부응되지 않은 굶주림(배고픔)이 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 믿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인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단순히 그들을 사랑한다면(우리의 질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더 큰 사랑의 실체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할 수 있다.

Q. "나는 혼자 집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극적멤버를 방문하였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A.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여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속삭임에 빠지기가 쉽다: “나는 이 사람을 반박해야한다.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논박해야 한다.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논쟁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안 된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듣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왜 논쟁하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물론, 문제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양육을 위해 충분한지이다. 그러나 그 이슈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비록 즐겁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이유), 또는 소극적멤버 때문에(이유)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 사람은 집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이런 식의 찬양은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것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유익은? 불리한점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그들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하고 당신은 들으라. 그 사람에게 대항하는 경우(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하지 말라. 또는 당신이 말하기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하도록 조종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당신이 순수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물어보라.

다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원인들은 대부분이 집단(무리)에서 오게 된다. 당신이 듣는 동안에 좀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점을 발굴해 낼 수도 있다.

Q. “교회는 애들에게는 좋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부부(주일학생의 부모)를 방문했다. 그들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A.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다: “나에게 좀 더 얘기하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교회가 애들에게는 괜찮은데 당신들은 필요 없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좀 더 설명해 달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들으라.

당신은 계속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애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하는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답할 것이다. “당신은 비슷한 것이 어른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되

물을 수도 있다.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런 필요들을 여러분의 삶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계속할 수 있다. “아하! 당신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구만, 그렇지요!”라고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질문들은 뒤로 남겨두고, 그들 자신의 대답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치도록 하라.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조금 건드리고 싶은 것이며,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 과정에서, 당신은 잠시라도 그 부부의 입장에서 당신의 교회를 보는 것이다. 사실 당신의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영양가(meat and potatoes)가 있는가? 아마도 영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조금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실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린이음식(유아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 부분의 인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얻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찰을 나눔에 대해 고맙게 여겨야 한다.

Q.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것에 대한 소극적인 멤버의 합법적인 이유들은 어떻게 되는가?

A. 음, 생각해봅시다. 최면술이 있다. 생각을 싹 씻어내는 것이다. 무릎 뼈가 뿌러지도록 겁을 주라....

이것은 농담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협박전략에 의한 승리를 채택한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어쨌든, 왜 어떤 사람이 소극적멤버의 합법적인 이유들을 압도하기 원하는가?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교회가 그런 필요들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책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이유들이 합법적으로 보인다면, 그것들을 압박하는 것이 당신이 하도록 요청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당신의 교회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당신은 그의 방법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도록 부름 받았다. 당신은 잠시 기다

리도록 부름 받았다. 당신은 당신교회가 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 사람을 지도하도록 부름 받았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가끔 확인하고, 당신의 교회가 그런 사역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 13 장
초청적이냐
또는 초청적이 아니냐

당신이 소극적 멤버와 관계성을 개발한 후에, 어떤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던질” 시간이 된 것 같은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 소극적멤버에게 교회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것. 이 장(chapter)은 그 질문에 관련지어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것을 다루게 된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소극적멤버를 집(교회)으로 환영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얘기해준다.

Q. 내가 듣기로 우리가 최상으로 노력한 것이 단지 소극적멤버에게 조금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능동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A.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노력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거야.”

교회가 그들의 최상의 노력을 할 때에, 많은 소극적멤버가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교인들이 그들의 최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다른 “최악들” 사이에는 그들이 결과 지향적으로, 그리고 판단적인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보는 예가 있다.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기억하고, 응답한 것이다:

돌아오는 것에 대해 조금 노력한다고? 나에게 물어보라. 나는 돌아왔다. 웬델, 레베카, 에브린, 로버트, 신디아, 게리, 제니스, 프랭크, 데이빗, 도리스, 레니, 웨인, 그리고 케드린, 등등에게 물어보라. 그들 각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독특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삶과 사랑에서 충만하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함이 없으면 상당히 위축되고 깊이 허약해 질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집(교회)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다.

소극적멤버들은 어떤 한 분량과 통계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다. 그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언급한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3-14

Q. 언제 당신은 소극적멤버에 대해 포기하는가?

A. 결코 안 된다.

Q. 돌아오지 않는 소극적멤버와 접촉하고 관계성을 개발하려고 의도적으로 닿는 것을 그만둘 때가 결코 없다는 것으로 당신은 의미하는가?

A.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전혀 관계성이 안 되어 있을 때, 스파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흥미가 전혀 없을 때, 당신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6개월은 더 노력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이 다시 시도하지 않음은 다시 채워지려는 소극적멤버의 삶 속에 갭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당신의 기도리스트에 그 사람을 넣어 야 한다.

Q. 얼마나 종종 소극적인 멤버는 교회로 돌아오려고 마음먹는가?

A. 항상 100%이다.

만약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로 하여금 돌아오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속이는(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소극적인 멤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그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잘못된 바램으로 돌아온다면, 또는 당신이 강요한 것 때문에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소극적 멤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안에서 사랑과 돌봄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Q. 소극적인 멤버를 교회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질문은 *어떻게(how)*가 아니라, *언제(when)* 그리고 *어떤지(whether)*이다. 관계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how)는 그 자체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 만약 그것이 정말로 알맞다면.

그리고 거기에는 마찰(장애, 곤란)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교회로 돌아오도록 초청장을 실제로 발부하는 것은 필요치도 않고 알맞지도 않다. 소극적인 멤버는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기(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돌보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옳게 결정한다면, 소극적인 멤버는 초청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그런 경우가 될 것이라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신은 그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단지 소극적 멤버의 초청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대표자로서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소극적 멤버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다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소극적인 멤버가 스스로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할 때만이 그가 그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을 먼저 뺏다든가” 당신 자신이 초청을 제시함으로, 당신은 너무 서두르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초청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덜 해가 될 수도 있다. 초청을 너무 일찍 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한 관계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Q. 만약 소극적인 멤버가 나를 교회의 대표로 보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라면 어떻게하는가? 그 사람도 초청이 필요치 않는가?

A. 당신 말이 맞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성은 규칙의 예외이다.

당신의 과거 지속되었던 관계성을 결코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2+2를 4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을 초청으로 절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그런 경우라도, 관계성속에서 신뢰수준을 구축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당신이 가져오는 주제(topic)를 첫 번째로 하지마라. 당신이 누군가를 초청하기 오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그 사람의 느낌에 관련되는 질문들로 시작된

당신의 초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설명이 아닌 질문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느껴야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는 무엇을 해야 하거나, 또는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해서 안 된다. 그들은 완전한 친구도,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다.

Q. 소극적인 멤버가 돌아오기 원하도록 하기위해 좋은 분위기(환경)를 창조하는 것이 한 가지이다. 그러나 소극성의 둔함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가 - 그 사람이 다시 동참되는 첫발을 움직이도록 나는 어떻게 도우면 되는가?

A. 여기에서 적용이 될 것같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인용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을 향해 기대어 있는
벽을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당신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키스하려고 하지마라.

만약 그 사람이 이미 교회를 향해 기대고 있다면, 그가 얘기하는 것에 근거하여, 가서 초청하라. 당신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또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다면, 초청하지 마라. 돌보는 방법에서 그 사람과 단지 계속 관련지으라.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멤버가 보고한 것이 있는데, 초청이 정말로 시기 적절했던 한 예이다.

우리교회에 새로 온 목사님이 나를 방문하여 말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제일(교회명)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자신이 왜 소극적이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끝에서 나는 말했다: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습관이 되버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른다.“

그는 아주 간단한 진술로 대답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만약 당신이 돌아오기 원한다면, 당신은 어떤 곳(some place)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주일에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다.”

후에, 한참 후에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목사님의 초청이유는 너무 힘 있고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나로부터 그것을 들을 때 까지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처음 접촉이 실패한 곳이다. 그들은 알맞고 닿을만한 순간이 나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둔함(굵뚱)”에 대해 다루려고 녹색등을 바꾸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조심한다. 너무나 종종 적극적 멤버들은 소극적멤버의

둔함에 대해 다루기 위해 관계성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너무 급한 것이다. 어떤 사람을 돌보고 관련짓는데 있어서, 그가 먼저 무엇인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자질들이 수립되면, 덜 위협적이 되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시기가 적절할 때에, 단지 그때만이, 당신은 예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작은 모임(a low-profile event)에 대해 가도록 제안할 수 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성가 발표회를 들으러 나랑 같이 갈래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당신은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예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여름동안만 드리는 토요일 저녁예배에 들러 ‘맛보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회 외에 다른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다 -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식사하러 간다거나, 또는 볼링을 가는 것. 이것은 관계성을 더 깊게 해주고, 나중에 교회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데 자연스러워 질 수 있다.

Q.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는가?

A. 만약 당신이 초청을 멈추고, 소극적멤버 자신의 스타일로 초청을 결정하도록 하려한다면 이런 많은 것들을 다룰(handle) 필요가 없다.

관계성은 장기(chess) 게임이 아니다. 소극적인 멤버가 움직이면, 당신이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소극적인 멤버가 움직이고, 당신이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등등이다. 소극적인 멤버에 대한 돌봄의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은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기술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소극적멤버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대답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한다: “알겠다. 나는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들을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잘 반박하였다. 당신이 이겼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가 아주 능동적이 될 것이다.”

환상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Q. 그러면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A.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Q. 당신이 제안하듯이 만약 내가 소극적인 멤버를 돌봄으로 관련짓는다면, 소극적인 멤버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느끼도록 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가?
- A. 평균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소극적이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돌아오려고 결정하는 데에는 그 만큼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계학적인 주장이기에, 당신이 특별한 사람을 다룰 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마라. 단지 잠깐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번이나 그 이상의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2년간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번의 방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소극적인 멤버가 보고한 것을 보라.

나는 2년간 소극적이었다. 나를 돌아오게 하는 길을 놓는데 다양한 형태로 8번(방문, 우연히 만남, 그리고 전화접촉) 접촉에 전체 4시간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점이다: 소극적멤버가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초청하는 것은 압박(pressure)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돌아오고 싶다고 그 사람이 말한 후에도, 그 시점에서 부드럽고 비압박적인 초청은 귀중한 격려의 말과 같이 보일 것이다. 그때 초청은 소극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힘을 전달할 것이다.

- Q. 우리는 기관 밖에서 활동하는 ‘모든 성도 방문팀’을 가진 적이 있다. 이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누가 적극적이고 누가 소극적이었는지를 구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소극적멤버들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는 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는데, 정말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떻게 된 건가?

- A. 내 생각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심방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말한 소극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돌아오려는 의도 없이 단지 정중할 뿐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더 얘기거리가 있는 것 같다. 바깥기관(outside organization)이 가방을 싸서 떠난 후에 이런 소극적인 멤버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촉(follow-up)이 분명히 없었다. 만약 내 추 측이 맞다면, 왜 소극적인 멤버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이 첫 번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 방향에서 제스처어는 취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들과 관계성을 세우려고 아무도 계속 접촉이 없었다(no one followed).

소극적멤버를 환영하는 방법

- Q. 우리의 소극적멤버들중에 교회로 정말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해했다. 나는 어떻게 그들이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 A.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반영적인 메아리를 당신이 제공함으로 어느 두려움이 현실적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올 때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라.

- Q. 소극적인 멤버들이 교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려 할 때에 그들이 갖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 A. 당신의 질문이야 말로 적극적멤버들이 계속적으로 물어야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소극적멤버에게 엄청난 공감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질문이다. 소극적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걱정한다...

- *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 나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 *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크리스찬으로 볼 것인가?
- *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 * 사람들은 내가 상처(희생)받는 농담을 하지 않을까?
- * 나를 보고 싶어 했는가?
- *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 * 나에게 누가 말을 걸어 줄까?
- *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너무 야단법석 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들의 최악의 환상인데, 그들은 예배동안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들을 전체성도에게 소개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여기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Q. 소극적멤버가 돌아올 때에 환영하는 것에서 당신이 추천할만한 축하식이나 의식이 있는가?

A. 어떤 교단들은 멤버가 돌아올 때에 추천하거나 또는 필수적인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전통에 근거한 축하이다. 만약 이것이 당신교단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라.

나는 최근에 천주교의식을 알게 되었는데, 예를들어 12-18개월간 화해의 과정을 포함하고 세족목요일 예배동안에 즐거운 축하와 의식을 최절정에 달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라, 화해는 울타리의 양쪽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런 "다시 멤버가 되는(re-membering)" 의식은 교회를 수년 떠나있거나, 또는 1, 20년 안나오던 카톨릭교인을 위해 예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참석하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의식이나 예식이 주로 소극적멤버에게 창피를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 의식이 소극적멤버가 돌아오는 것을 세워줄 것인지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정해

야 한다. 만약 화해의 의식이 그 사람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안에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의 한부분이라면, 돌아오는 소극적 멤버는 자신이 속하고 싶어 하는 뭔가로서 그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돌아오는 소극적멤버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당황함은 당신 역시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짧은 기간동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할 경우 - 아마 몇 달에서 2년 정도- 당신은 사적인 제스처어를 통해, 또는 담임목사의 사무실에서 사적으로 만나 축하함으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어떻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1년 이내) 만나온 사람들을 당황함을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가?

A. 일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친절함이 없이 친절하게 대하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의 돌아옴을 축하하지 마라 -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당신 자신을 보면서, 당신이 관련하고 싶은 식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들이 알맞지 않은가?

- * 보게 되어 반갑다.
- * 어떻게 지냈는가?
- * 커피한잔 같이 할까?
- * 가족은 어때?
- * 만나서 기쁘다.

또한 말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있다. 소극적멤버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능동적멤버: 우리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돌아오는 소극적멤버: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때 왜 나에게 연락 안 했는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돌아오는 소극적멤버들은 많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 존귀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거기에 표현하는 데에는 강한 기회가 있다!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또는 우리는 당신이 보고 싶었다와 같은 말은 얼마동안이나, 또는 한참동안이라도 만나오는 사람에게는 값싸게 보인다. 비록 당신이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해야할 다른 얘기들은:

- * 어디 갔었어?
- * 오, 돌아 왔구나!
- * 이제 제 정신이 드는 때인가 보다.
- * 네가 돌아왔으니, 어떤 일을 맡길까...
- * 오, 통제라! 지붕이 내려앉겠네!
- * 네가 온 것을 보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인가본데.
- * 새신자이신가요?

만약 그 사람이 새신자인지 진짜 확신이 안 간다면, “내 이름은 000입니다. 이전에 만난 것 같지 않군요” 라고 말하라. 그것은 당신(you) 메시지가 아니라 나(I) 메시지이다. 얼마나 많은 반대적인 진술들이 당신 메시지를인지 주목하라.

- Q. 소극적인 멤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교회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할 수 있는가?
- A. 교육과 훈련이다 - 다른 방법을 나는 모른다. 또한 돌아온 사람들과 진짜 친구처럼 되라.

서로 잘 아는 기회를 가지라. 만약 당신이 그런다면, 사람들은 소극적인 멤버와 얘기할 때에 어떤 방향이 옳은지 알기위해 내적인 나침반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복하는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소극적이었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일대일의 경험을 하도록 하라.

Q. 만약 소극적이었던 멤버가 적극적이 되었다면, 다시 소극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A. 만약 성도들이나 개인들이 소극성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소극성의 반복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들이 이런 원인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게다가 그런 원인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다른 멤버들도 소극적이 되기 쉽다.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필요들을 발견하려고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필요들을 표현하도록 돕는다면, 그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Q. 어떻게 소극적멤버가 교회 삶의 참여에 대한 필요가 있어 다시 동참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A. 첫째, 확실히 순수한 필요가 있다. 당신은 필요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며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필요는 또한 도전적이 되어야 한다.

다시 적극적인 된 멤버들은 - 모든 멤버들은-단지 “노예일꾼” 그 이상의 것에 동참되기 원한다. 행정적인 것과 “교회 일에 연결하는” 측면은 필수적이고, 그들은 어떤 멤버들의 모임에 즉시 연결되어야 한다. 사도바울은 사실 성령의 은사들 중의 하나로 *지배(통치)*를 말했다. 그러나 많은 멤버들은 더 개인 대 개인(person-to-person) 사역을 포함하는 다른 활동들에 동참되기 원한다.

이전에 소극적멤버들이 교회로 가져오려는 한 가지 큰 은사는 소극적멤버들로서 그들이 겪어온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이다. 그들은 소극적멤버들에게 닿는 데에 책임을 지는 그룹의 일원이 되는데(훈련을 받으면) 이상적으로 알맞을 수 있다.

Q. 교회가 지나친 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면, 긴장의 원인들을 다루는가? 또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닿는가?

A. 이 질문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부분에,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하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소극적멤버가 단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려고 어떤 사람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적대감만 쌓이게 하는 비 생산적일수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떨 것인가? 결국 또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양쪽이다. 당신은 성도들 속에서 갈등 때문에 마음상한 소극적멤버에게 달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갈등(strife)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료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낫다.

제 14 장 훈련과 다른 어려운 결정들

당신이 소극적멤버들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difficult decisions)이 요구되는 어려운 질문들(tough questions)에 봉착하는 때가 올수도 있다.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어려운 분야는 훈련의 분야이다 - 어떤 교단들은 사람들을 언제 교인명부에서 제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훈련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종결과 옮기는 것

Q. 소극적인 멤버를 교인 명부에서 빼내어야 할 때가 있는가?

A. 예, 그럴 때가 있다. 소극적멤버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확실히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이다.

성도들과 적극적멤버가 다르고 좌절되는 벽에 그들의 머리를 박으라는 요청은 없다. 또한 혼자 있기를 원한다고 확실히 표현하는 소극적멤버를 계속 괴롭히려는 요청도 없다.

교회와 교단들은 가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멤버가 소극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그런 율레나 규칙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책임적이 되도록 돕는 명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멤버가 그런 책임을 갖기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거나 또는 그런 책임을 안 받아드린다면, 그 사람을 교인 명부에 계속 놔둔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열쇠는 어떤 사람을 미숙하게-무책임하고 잔인할 수도 있게 하는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우리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 비싼 댓가(고급 사치품 같은 것)를 치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교인 수에 대한 교단적인 평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

고 우편발송의 비용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런 지도자들의 입장은, ‘죽은 나무는 제거’하며 단지 적극적인 멤버들만 반영하도록 교인명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A. 여기에서 당신이 질문하는 것은 교인명부에서 누구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 돈을 아낀다는 원리는 최상에서는 근시안적이고, 최악에서는 죄이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이슈는 그들의 문제를 부분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해결로서, “명부를 정리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멤버십 명부가 텅 비어질 때 까지 완료될 수 없는 ‘잘라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교인은 그들의 소극적멤버에 대한 실제사역을 시작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낫다. 소극성이 분명해지는 이유들로서, 그리고 제기된 필요들로서, 교회는 생동감에서의 쇠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느냐 또는 그냥 놔두느냐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 일 때, 그것은 수년동안 소극적멤버를 방치해왔다는 표시이다. 매해마다 몇 명씩 소극적이 되고 사역의 필요에 대해 아무 것도 안할 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갑자기, 전체 비용이 어느 수준 넘어갈 때에 제안되는 첫 번째 해결은 그 사람들을 명부에서 지우는 것이다. “그들을 잊어버려, 보이지 않는데 잊어버리자.”

미안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은 나도 공감한다. 하지만 해결을 위해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나는 제안하고 싶다. 나는 또한 이런 교인들에게는 소극적멤버들에 대한 질적인 사역을 해보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Q. 어떤 소극적멤버는 다른 곳에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의 교인이적(transferring)에 대한 것은 아주 저항적이다. 그는 우리교회 멤버로서 계속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그 사람과 앉아서, 왜 계속 멤버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지 얘기해보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당신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라.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계속되지 않도록 하라.

Q.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종결짓는 소극적멤버에 대한 내규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내가 알기로 당신은 어느 교회든지 내규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교회를 흠 있는 것(상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당신은 내규에 뭐라고 쓰기를 바라는가?

A. 내가 확신하기로 거기에는(내규) 돌보고, 커뮤니케이팅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는 안 되고, 같은 과정이 한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든지 소극적멤버든지 결정하는 요인으로 재정적인 언급은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성도가 진정한 애정으로 닿은 이후에, 소극적멤버가 교인명부에서 제거되기를 분명히 설명하면, 그때 나는 그 요구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진정한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번의 형식적인 전화나 방문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진정한 돌봄이란 시간적인 제한을 둔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 그것은 한달이, 또는 1년일 수도 있다. 성서적인 안내를 보면 눅 13:6-9절에, 과원지가가 과실 못 맺는 무화과나무에 대해 찍어버리려는 주인에게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따라야할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다.

Q. 만약 누군가가 성도들의 그룹(집단)으로부터 빼내어지기를 요청한다면, 이것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또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가?

A. 어떤 사람이 빼내어지기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방금 교인명부에서 빠지고 싶다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어 감사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 교회를 떠나곤 하는데, 그들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한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연락을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나 그 가족들과 관련을 갖도록 한다: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내 기억으로 맥의 자녀가 주일학교에 나왔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성경공부반에 참여도 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여기 멤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에 불과하다. 당신은 묻기 원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성도들이 모든 멤버에 대해 더 잘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화대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과 마주앉아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바래서입니다. 아마 우리는 당신과 축제를 나눌 수도, 아마도 우리는 당신에게 사과할 수도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더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와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당신에게 당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요청에 따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확실히, 노력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치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거기 갔을 때에 그 사람의 결정을 다시 고려해보도록 강요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마라. 사랑하고 돌보는 목적으로 가서 방문하라. 그것이 전부이다.

Q.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인명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A. 만약 그가 동의한다면, 앞의 답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 사람과 개인면담을 가지라.

첫째로, 당신의 교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 만약 그 사람이 도움을 원한다면 영적으로 좋은 곳이 되는 교회나 개인을 소개하라. 만약 당신이 편안하다면 축복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교인명부에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라. 그 사람을 당신의 기도명단에 넣어놓으라는 것이다.

딱 편지한통으로 교인명부에서 빼내지 말라. 당신은 소극적멤버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 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에 다른 교인-또는 당신 교인-들과의 관계성 수립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Q. 교인명부에는 있지만 다른 도시로 이사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제안하는가?

A. 비록 이사 갔더라도 당신의 교인들로 하여금 아직 목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교회에 등록하거나, 당신에게 그들의 의도를 알려올 때 까지는 아직 당신의 교인이다.

최상일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선택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느낌이 좋았던 편지 예문을 하나 소개하겠다.

존경하는 O O O 님께.

우리는 최근에 당신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동체(가까운 곳) 속에서 교회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이명 증서를 보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다면, 당신 지역에 있는 다음의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당신이 우리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임시적이거나 또는 영원히, 우리에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서
(싸인)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편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첫째로 그 사람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공동체(교회) 속에서 어떠냐고 물어보라고 나는 추천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제 이사 했으니, 당신의 멤버십(우리교회)에 대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동참되어 있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 물어보라. 관심을 가지라 - 당신은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 만약 다른 교회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라.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 같으면, 그의 바람을 존경하라. 만약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내가 믿기로 모든 교회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쓰여진 편지라 할지라도 전화대화보다는 더 비인격적이다. 교회에 대한 사람의 관련은 전화비용으로 드는 몇 달러의 가치가 충

분히 있다.

Q. 어떤 사람이 소극성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 교회명부에서 제거 될 경우, 그 사람이 다시 돌아 올 결정을 할 때에 새 멤버로 다시 받아주어야 하는가?

A. 이것은 당신교단의 규율이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요소들이다. 만약 수립된 정책이 없다면,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

교인으로 다시 올 경우 가능한 한 단순히, 그리고 가능한 한 돌봄으로 작은 축하를 하도록 하라. 그 사람이 돌아옴을 확실히 인정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당황함(혼란스러움)은 피하도록 하라.

Q. 소극적인 사람을 우리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보도록 해야하는가?

A. 이런 것의 어떤 것도 소극적인 멤버를 돌보는데 있어서 주요관심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당신의 주요관심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당신이 그런 필요들에 대해 묵회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경우에도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거나,” “그들을 다른 곳에 보내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Q. 만약 소극적인 멤버가 우리교회 속에서는 부응될 필요를 갖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가?

A. 먼저, 당신의 가정(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필요가 당신의 교회 속에서 부응될 수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잘 들은 후에, 당신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지 들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극적멤버의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어떤 이유에든지 그 사람의 필요가 교회에 의해 부응될 수 없을 때 방향수정(redirection)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어날 때에 당신은 비판이나 정죄함이

없이 그것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교회를 졸업하고 다른 교회로 갈 필요가 있는가?

A. 내 생각에 당신은 이것을 졸업보다는 은사의 문제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졸업이라는 아이디어는 그것 속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우월감을 세워놓는 것이다. 사람은 바뀌기도 하거나 또는 현재 교회 속에서 수요(활용)될 수 없는 은사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끔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은사는 단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를 위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항상 이런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애쓸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배출구(outlets)를 계속적으로 창조하려고 해야 한다.

“엄포 놓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들

아래의 질문들처럼, 교회가 결정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엄포 놓는 사람들”이다.

Q. 내가 들은 통계가 있는데 새신자보다 소극적멤버를 적극적으로 되게 하는 데에 10배나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극적멤버를 잊어버리고 새신자를 전도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A. 당신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유추를 해본다. 어떤이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집의 사춘기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와 내 아내는 아직도 건강하고, 임신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우리가 집을 나간 딸애를 잊어버리고 애를 다시 가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때요?”

내가 이와 같은 질문에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은 마치 영화 [소피에의 선택 (Sophie's Choice)]에 나오는 소피에게 제공된 선택으로서 같은 도덕적 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파수꾼이 그녀의 딸들 중의 하나가 죽어야겠다고 소피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 질문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느 것이 살아야 하고, 어느 것이 죽어야 하느냐?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다 –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씨를 던지는 것이며, 부족한 크리스찬 식물은 최상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다. 좋은 땅에서 충분히 축복받은 그런 “충분한 행운”은 번성할 것이다;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 속으로 빠진다. 그것은 잘못 가르침이다. 적극적 크리스찬은 좋은 땅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적극적 크리스찬은 좋은 땅이다. 그런 사실은 이 비유를 예방적인 노력의 지지에서는 아주 좋다. 사실, 예방(방지)의 부분은 땅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또 다른 비유는 눅 13:6-9에 있는 것인데, 과수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여 실과를 딸 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소극적멤버들은 멤버십 속으로 환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척스러운 통계로서 그들을 해산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이 발견되기를 바라신다.(눅 19:10)!

소극적멤버를 적극적이 되게 하는 것이 새신자를 데려오는 것보다 10배나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떠난 소극적멤버의 측면에서는 사실일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상황속에서라도 복음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롬 1:16). 당신이 개인으로서 더 인식하고 예민하게 될 수록, 그리고 당신의 회중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더 알아차리고 (aware) 예민할수록, 당신은 소극적멤버에게 더 빨리 닿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들에서 관계성은 수립되거나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결국, 소극적멤버를 표현하는 데에는 풍성한 자료들이 있다. 그들은 많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으며,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서 가장 강한 지지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 알고 관계성을 개발하는 데에 아주 흥분한다. 그들이 묻는 질문과 그들이 표현하는 필요들은 분명히 성도들이 영적인 분야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는 도전들이기도 하다.

Q. 소극적멤버를 “다시 부르는데” 쓰는 시간과, 또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 멤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쓰는 시간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수 있는가? 오래된 적극적 멤버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A. 특히 소극성을 막는 얘기가 나올 때,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것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필요들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이기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 그것이 첫째로 막는 것이다. 회중은 전반적으로 더 강하고 더 낮게 될 것이다. 유익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소극적멤버 돌봄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멤버십*에 대한 것이다. 벨몬트(Velmonters)가 표현했듯이, “멀어진 사람들”은 없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다. 관계성은 그것 이상의 친숙함을 더 갖고 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한 몸의 지체이며 한 부분이다!

대부분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두려움이다. 나는 아직도 적극적멤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소극적 멤버들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교회로 달려가야 한다.

Q. 내가 방문한 소극적멤버는 교회로 돌아오기는 원치 않지만, 내가 계속 방문하는 것은 좋아한다. 그를 계속 방문해야 하는가? 언제 그만 두면 좋은가?

A. 이것은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며, 또한 대개 이론적인 질문이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멤버를 잘 방문하였는데, 그냥 계속 방문에 그치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것은 또한 부담이 되는(힘 드는)일에 대한 처방(규정)이 아니다. 만약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행되는 어디에선가 당신은 그 삶과 관계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되는 동안 언젠가는 믿음에 대해 토론하고 복음을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다.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은 이렇다: 당신이 제공해야 하는 돌봄과 사랑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한, 그것을 계속 제공하라. 당신이 만나게 될 실제적인 삶의 상황은 이런 질문 영역의 중요성을 말해줄 것이다. 당신이 실제 이름과 실제필요들을 가진 실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운명에 그들을 맡긴다”는 생각은 당신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제 15 장

한 온스의 막는것 그 이상

소극적멤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소극성의 원인에 대한 슬픔과 심각성에 대한 당신의 표출(노출)은 막는 것에 대한 이 장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다. 소극성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교회는 그 자체(교회)와 많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

같은 회중은 더 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선교와 사명이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막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거나 제압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다.

몇가지 질문들을 먼저 보라...

일반적으로 막는 것

Q. 소극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A. 건강에 좋은, 가정과 같은,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하는 방법들만큼이나 소극성을 막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것들 중에 5가지를 소개하겠다.

1. 질적인 예배를 강조하라

나에게 있어, 질적인 예배란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고 사역을 위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내 친구는 그 말을 “거위가 범프(완충기,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는 예배”로 의미하기도 한다. 당신에게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크리스찬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메사츄세츠주 한 작은 교회의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공동체의 분위기, 목적의 일체감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기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크리스찬 예배에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흘러나와야 하며, 예배에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점잖고 질서있게(고전 14:40)” 진행되어야 한다.

2. 의미있는 관계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재미를 위해 사교적인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일 중심(task-oriented)과 관계중심(relationship-oriented)에 대한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일중심의 그룹들은 많으나 관계중심의 소그룹은 부족한 편이다. 묶어지는 것과 계속적인 중요성의 센스(느낌)는 양쪽 다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있도록 하는 이유의 중요한 부분들임을 기억하라. 만약 멤버들이 교회안에서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결코 소극적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3. 성도들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필요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단계를 밟도록 하라. 각 사람에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 앙케이트조사, 방문, 비공식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발견된 필요들에 대해 당신교회 속에서 프로그램과 봉사할 기회들을 만들라.

한번 묻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들어줄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인들 속에는 항상 있다. 사람들의 삶은 항상 변화하고, 교회의 상황속에서 변화는 새로운 필요를 제기한다.

4. 커뮤니케이션에서 열린 채널을 제공하라.

사람들은 느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 이것

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한 측면이다. 만약 듣고 돌보는 교회 상황속에 좌절과 상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 소극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빠져나오게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어는 것이다.

5.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구비시키라.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안에서 가능한 한 많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소극성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제사장 직이 사람들이 삶 속에 현실이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소극적이 되려는 인식은 비교적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다.

Q. 만약 우리가 막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교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런 약을 부드럽게 먹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A. 당신 말이 맞다. 소극성은 종종 시스템적인 이슈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멤버들에게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신의 질문은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외상(외적인 상처)을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여준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변화하도록 요구할 수 는 없다. 변화의 필요가 아주 피부로 느껴질 때 - 그것은 다른 경우이다. 우리는 괜찮다. 고맙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 없다.

나와 함께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 오는데, 각 사람이 독특한 것처럼 필요도 독특하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교회로부터 얻을 수 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몇가지 필요는 교회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종종 - 아마도 지당하다고 여겨야 할 텐데 - 소극적이 된다.

소극성을 막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많은 것이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관련이 있다. “충족되지 않은 필요”는 많은 원인들을 포함하는 소극성의 함축적인 이유이다. 나는 시시한(하찮은) 필요나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 얘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한다고 확신 한다: 목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매주 3시간씩 일방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들의 모든 활동에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매주일의 예배는 TV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모습처럼 멋지게 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 교회안에 교회소극성을 막는데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때에 조심하라. 모든 사람의 느낌과 관심들을 존경함으로 다루라. 사람들은 본성에서 변화를 저항한다. 변화하는 것은 오래 끌게 하며, 때때로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Q. 어떤 종류의 필요를 당신은 의미하는가? 어떤 종류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A. 그 질문에 답하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기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아마도 대부분이)은 교회가 그들의 영적 필요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도와서 혼란스런 세상속에 제대로 살게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삶을 동행하기 바란다. 가끔 사람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응해온 것 - 특히 위기시에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의미있는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성도들이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종류들은 교리, 즉 교회의 신조같은 것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선교와 사역에서 좁거나 또는 좁은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

당신 교회안에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 적극적멤버와 소극적멤버들 똑같이. 그리고 들으라. 그 다음에 좀 더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라.

Q. 우리는 빨리 성장하는 교회이므로(지난 4년간 200에서 600명으로) 소극적멤버가 많지 않다. 내 질문은, 계속 성장함에 있어 소극적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이다!

A.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도 소극적인 멤버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새 신자가 많이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가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분명히 당신은 뭔가 옳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 양떼의 각 멤버를 사랑스럽게 돌보는 것. 그 관심을 가지라. 지난 질문들에서 내가 많이 지적했듯이,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예배와 의미 있는 관계성에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성도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평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에 열린 채널을 가지라. 큰 교회들은 소그룹을 만드는데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에서 막는 것

Q. 교회는 단지 돈을 요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A. 이것을 바꾸는 열쇠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부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데 교회가 ‘모든 성도 방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모든 성도가 돌본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 없이 방문자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청소년부 지도교사로부터 나의 흥분된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꺾였는지: “헤이 케넷! 그럴 수도, 아닐수도. 모든 멤버방문은 사실 체직회에서 내세운 이름에 불과해.”

교회가 말 그대로 ‘모든 성도 방문’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모든 멤버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 아닌가! 나는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급한 인식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그들의 멤버들을 접촉하는 것이 단지 돈 때문일 때만이 너무나 종종 있다. 그런 인식을 바꾸려는 방법이 그 사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Q. 만약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올 때에 바로 훈련을 시켜서 헌신하게 하면 소극성을 막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A.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할 때에 의미있는 동참이 되도록 도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 할 때에 그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동참에 의해 붙잡혀지기를 기다리는 열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 만약 그들의 많은 멤버들이 소극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교회생활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이기에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교회 자체가 멤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리고 이런 은사를 활용하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전망이다. 반면에, 만약 그 교회가 멤버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면, 모든 사람을 선교나 사역의 측면에서 똑같이 헌신하도록 하려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은사의 정당성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Q. 그들의 느낌에 너무 강요당함이 없이 새신자들을 교회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A. 만약 당신이 그들의 필요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묻는다면, 그들은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덜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그들이 질문을

받을 때에는 기쁘게 답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흥분시키는지, 어느 것에서 사역하기를 좋아하는지 발견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비시키고 그리고 그 사역에 파송하라!

Q.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소극성을 막는 주요방법이라고 당신이 계속 주장하는데, 그들의 필요에 대해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방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A. “내 생각에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아이디어이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 당신이 발견한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실행하라.

Q. 교회가 더 의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 교회란 장소인데 - 내가 알기로 유일한 장소인데 -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도전하는 곳이며 그것을 하기위해 힘과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당신의 교회도 역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 적극적 교회멤버는 이렇게 서술했다.

나에게 있어 교회가 더 의미있게 되는 것은 계속하여 나에게 도전이 되는 방법에서 섬김에 동참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한다면 나는 성공할 것 같은 방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나는 한다. 교회는 결코 나에게 지루한 것이 아니며 교회일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삶과 섬김이 매일 신나기 때문이다.

Q. 사라지려고 하는 -세레 받은 이후에 - 젊은이들의 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A. 그 방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젊음이란 굴곡이 있는 시기이고, 아마도 젊은이들의 모든 소극성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얼마정도는 막을 수 있다. 몇가지 제안들을 해 보겠다:

1.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듣고, 또 들으라.

교회는 종종 그들의 필요에 대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사역과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또는 아마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어른들이 ‘추측하여서’ 계획세우기도 하는데 목표(타겟)와는 더 멀어 질수도 있다. 무엇을 해야하는지 듣고 물어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세레이 후’ 시대가 되기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

2. 젊은이들의 필요에 정말 부응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계획하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제공하라. 이것은 환상적이고, 천박하거나 또는 비싼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평범한 영적’ 필요들로 만족을 찾으려 한다.

3. 청소년 프로그램과 사역에 투자하라.

교회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다른 노력들에 그들이 투자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 당신교회의 예산에 ‘청소년 사역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가? 200불, 250불 또는 300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나는 계속 보아왔다 –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소량이다. 이와같은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청소년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소액을 투자하는 것은 청소년 사역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방법에서 소극적멤버로서의 청년들의 필요는 어느 누구의 다른 필요들과 다를 바 없다. 그 러므로, 당신은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구속받은 한 인간으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 청년들은 어버이들과 교회가치, 그리고 성서적 표준을 테스트한다. 그들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 시기는 중요한 때이다. 교회가 그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후에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다.

Q. 어떤 사람들은 익명이 되기 위해 큰 교회에 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었

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내 생각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히 보여 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에 나는 의혹을 제기한다.

내가 알기로 어떤 사람들은 적게 노출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삶이 적게 노출되는 데에는 많은 측면이 있다. 그들은 너무 바쁜 사람을 살거나 또는 그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관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심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반응은 쉽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격분으로 당신 자신을 채찍질 하지 말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알도록 하고, 그들을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들에 대해 좋은 목회를 하도록 하라. 덜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뉘앙스”가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매력적인 뉘앙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desirable)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암시한다는 것이다.

Q.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사람들은 한달(4, 5주)에 두주만 교회에 나와도 아주 헌신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어떤가?

A. 당신은 여기에서 나로부터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텐데, 그들의 출석 패턴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은 그들을 깎아내리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을 확인하려고 방문하기 원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수도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은 당신의 교회가 가장 좋은 예배를 준비하고 가능한 가장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좋은 예배경험 또는 특별히 알맞은 교육적인 제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님이 항상 제공하는 더 큰 동참(포함)에 대해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이 보고한 것을 보라:

우리나라의 경우, 70%의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참석치 않는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멤버로서 4주 동안에 두주일 만을 교회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변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가 있다.

Q.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당신이 제안하는 원리와 훈련은 전도하는 것에도 적용되는가? 만약 새신자 후보자를 방문할 경우 될 것인지 의아스럽다.

A. 당신 말이 맞다. 유사성이 많다. 그러나 또한 다른 점도 있다.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새 멤버들은 당신이 이전에 전혀 접촉이 없었을 것이고, 이전에 접착(부착)도 없었을 것이다. 소극적인 멤버들은 그들과 당신 양쪽이 교회에 접착되어있다는 공통기반에서 출발한다. 비록 당신이 소극적멤버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들 양쪽은 당신교회의 경험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초청에 관계되어있다. 새 멤버들에 있어,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 소극적멤버들에게 있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그들 자신이 보일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는 것이다.

소극적멤버들에게 있어 그 기회들은 일정기간 동안 돌볼 필요가 있는 어떤 상처나 깨어짐이 있어서이다. 새 멤버 후보자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소극적멤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돌봄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잘 들음으로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지역에 낯설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도 전혀 연결 안 될 수도 있다. 새 멤버에게는 당신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소극적멤버들은 더 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제 16 장 당신과 당신교회를 위한 비전

이전에 당신이 다루지 않은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이다: 우리가 소극적인 멤버에 대해 얘기할 때에 어떤 성경구절을 당신은 추천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 만약 그 목적이 단지 그들의 소극성에 대해 판단을 하려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멤버와 성경구절을 나누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더 얘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꾸짖으면서 시간을 다 보냈다고 상상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속에 있는 무정하고 자기정당방위적인 적극적 멤버들에게 이다.

나는 비판적인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몇가지 성경구절들을 생각해본다. 이 성경구절들은 이런 사역에 있어 당신을 격려하고, 교화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당신이 희망하는 태도에 대한 성경구절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로 힘이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사역의 비전이고, 당신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 보좌의 관점에서 당신을 위한 비전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40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소극적 멤버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당신은 예수님의 실체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42

당신이 소극적멤버와 함께 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수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별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목말라있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주려는 것이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2-14

이 성경구절은 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소극적멤버에게 관심을 갖도록 강조하는 내용이기도하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9-20

예수님은 당신이 소극적멤버를 방문할 때에 구비된 힘을 재 확증하며, 당신이 제공하는 돌봄 속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주신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11-12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섬기도록 부름 받음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당신이 소극적 멤버에게 갈 때에 우수한자가 열등한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 가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는 것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것은 왜 당신이 종의 직분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당신이 섬길
때에 당신은 당신이 닿는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사도바울은 당신이 소극적 멤버에게 보여주어야 할 공감력과 동정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58

그리고 바울은 당신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오게 되는 결과들을 제
안하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을 믿을진대 자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10:7

당신의 믿음이 소극적 멤버보다도 강하다고 유혹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은 당신을 멈추게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당신은 소극적 멤버가 지고 있는 상처를 나눔으로서 함께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당신에게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사도바울의 이런 말들은 소극적인 멤버를 돌볼 때에 인내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믿음의 권속이기 때문이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3-4

겸손에 대한 이런 요청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종이 되신 겸손’을 본받은 바로 그 바울이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것이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조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5-6

비록 이 구절은 외인(이방인)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와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있다.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는데 주력하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8

이 본문은 당신이 소극적인 멤버와 관련지을 때 관계성의 본질에서 “진실(truth)”이 되기를 나는 정말로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1

이것은 또한 당신과 소극적멤버가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성 본질을 서술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성경, 당신의 믿음, 교회, 예배,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나누는 기회는 소극적멤버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주라”라고 요구할 때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 보다도, 당신은 소극적멤버의 마음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한다. 소극적인 멤버는 하나님 없이는 혼자, 또한 당신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당신은 확신할 수도 있다.

이런 성경구절들은 소극성과 크리스찬 관계성에 관련짓는 많은 성구들 중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당신이 교회 소극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려고 할 때에 당신이 더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성구들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구절들을 연구해보라. 당신이 최상의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힘과 태도의 부분으로서 그들을 삶에 적용해보라.

인간관계성에 대해 완전히 다루는 것[질문-해답]은 없다. 이런 질문들과 나의 대답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해본 것이고, 확신하기로 적어도 당신은 기대했던 바를 얻었다고 본다.

당신의 교회와 모든 교회에 내가 바라는 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당신의 집, 그리고 모든 멤버들의 집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충분히 완성되는 그의 가족의 멤버로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많이 성장할 것인데, 옛날 중국 속담 하나로 마치려한다:

나는 듣고, 나는 잊어버린다.

나는 보고, 나는 기억한다.

나는 하고, 그리고 나는 이해한다.

당신이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일안에서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Notes

1. *The Jerusalem Bible*, ed. Alexander Jones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2966.
2. *The Jerusalem Bible*, 1966
3.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York: New York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78.

사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30-35%의 소극적인 성도 문제에 대해 고민 안 해 본 분이 없을 것이다. “왜, 그 성도는 그럴까!” “왜 우리교회는 아직도 두 명이 들어오면 한명 나가거나 (2-1),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거나 (1-1), 최악의 경우 한 명이 들어오는데 두 명이 나가는 이런 문제(1-2)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특히 이 책은 ‘소극적 성도’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1) 예배출석이 부진한 성도, (2) 헌금을 잘 안하는 성도, (3) 교회활동에 잘 참석 안하는 성도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십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김상복목사/ 할렐루야교회
평신도목회연구원장

우수하다! 읽기 쉽다! 실제적이다!

마가렛 터니애브 목사/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Lilburn, Georgia

소극적인성도(피동적인성도)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책이다.

메릴 오스틴 목사/ Bella Vista Community Church
Bella Vista, Arkansas

이 책은 모든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매년마다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덴 커레 목사/ Knight Memorial Church
Salem, Oregon

사람들의 느낌에 대해 잘 쫓여진 책이다. 이것은 결과지향적 보다는 과정 지향적 이라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티슨 목사/ St. John Episcopal Church
Marysville, California



저자 케넷 호크

Rev. Kenneth C. Haugk, Ph.D.

A pastor and clinical psychologist, Dr. Kenneth C. Haugk has counseled and cared for many people in crisis. Recognizing the need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Ephesians 4:12) to expand that care beyond what anyone can do alone, he developed the Stephen Ministry system of lay caring ministry, which has reached over 13,000 congregations worldwide. A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Stephen Ministries St. Louis, he has devoted his professional life to helping congregations train their members to minister to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a wide range of life difficulties.

His ministry took on deeper significance as he dealt with the death of his wife, Joan, in early 2002 from ovarian cancer. In writing *Journeying through Grief* and *Don’t Sing Songs to a Heavy Heart*, Dr. Haugk drew from his professional work, his own experience of grief, and what he has learned from others experiencing suffering in their lives.

In 2003, he received the National Samaritan Award from the Samaritan Institute for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he has made to the field of caring ministry.

His newest book, *The Gift of Empathy*—coauthored with Joel Bretscher, Stephen Ministries’ Program Director—offers a fresh approach to the familiar topic of empathy,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and real-life examples that equip readers to better understand, connect with, and care for others.



서병채 (역자)

성결대학교 (B.A)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M.Div)

감리교신학대학원 (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Foundation (Ph.D)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postdoc., 2006)

영국 Oxford University (Wycliffe, postdoc., 2012)

영국 Cambridge University (ICE, 2018)

나가랜드 PACE신학교 총장 (2015-2020)

케냐 학교법인 Blue Nile Melvin 이사 (2021-)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2021-)

역/저서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평신도목회의 극대화

목회에서 동역자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

뒷문을 다시열라

평신도목회의 개념과 신학

구비시키는 교회

평신도목회 실천론

Me to We

독특한 교회

Pastoral Care

창조적인 삶

미래교회와 패러다임